

Name _____

Learn to Read the Bible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성서를 읽는법을
배우자!**

Workbook
학습 교과서

차 례

1 과	서론.....	4
2 과	성서의 배경.....	8
3 과	성서의 개관 1 - 서론.....	12
4 과	성서는 그 자체로 해석해야 한다.....	20
5 과	성서 읽기.....	22
6 과	성서의 개관 2 - 창세기.....	24
7 과	왜 신약과 구약이 존재하는가?.....	28
8 과	성서 용어 I.....	32
9 과	예언의 역할.....	36
10 과	성서의 개관 3 -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40
11 과	성서의 개관 4 - 모세부터 다윗까지.....	46
12 과	학습 도구 I.....	62
13 과	성서의 개관 5 - 솔로몬에서 북방 추방까지.....	66
14 과	성서 읽기 요령.....	78
15 과	성서 용어 II.....	84
16 과	성서의 개관 6 - 선지자.....	88
17 과	전후 참조 사용법.....	100
18 과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104
19 과	성서의 비평가들.....	108
20 과	성서의 개관 7 - 히스기야에서 시드기야까지.....	112
21 과	하나님의 나라.....	134
22 과	비밀(秘密)이란?.....	138
23 과	성서의 개관 8 - 신구약 성서 사이의 시대.....	140
24 과	성서 용어 III.....	144
25 과	우리 성서.....	148
26 과	성서의 개관 9 - 복음서.....	162
27 과	학습 도구 II.....	172
28 과	성서의 개관 10 - 사도 행전.....	174
29 과	유대인들과 모세의 율법.....	176
30 과	성서 용어 IV.....	180
31 과	생명과 죽음.....	184
32 과	성서 개관 11 - 신약 서신들.....	188
33 과	선(善) 對 악(惡).....	216
34 과	결론.....	224
부록 1	성서의 화폐들(Coins).....	226
부록 2	초기 그리스도인들.....	228
실문 조사		248

Table of Contents

Section 1	Introduction	5
Section 2	Background to the Bible	9
Section 3	Overview of the Bible 1 – Introduction	13
Section 4	The Bible Interprets Itself	21
Section 5	Reading the Bible	23
Section 6	Overview of the Bible 2 - Genesis	25
Section 7	Why Two Testaments?	29
Section 8	Bible Terminology I	33
Section 9	The Role of Prophecy	37
Section 10	Overview of the Bible 3 - Abraham to Moses	41
Section 11	Overview of the Bible 4 - Moses to David	47
Section 12	Study Tools I	63
Section 13	Overview of the Bible 5 - Solomon to Northern Exile.....	67
Section 14	Tips on Reading.....	79
Section 15	Bible Terminology II	85
Section 16	Overview of the Bible 6 - The Prophets	89
Section 17	Using Cross References	101
Section 18	The Purpose of God Revealed	105
Section 19	Critics of the Bible	109
Section 20	Overview of the Bible 7 - Hezekiah to Zedekiah.....	113
Section 21	The Kingdom of God	135
Section 22	Mystery?.....	139
Section 23	Overview of the Bible 8 - Period Between the Testaments ..	141
Section 24	Bible Terminology III	145
Section 25	Our Bible	149
Section 26	Overview of the Bible 9 - The Gospels	163
Section 27	Study Tools II	173
Section 28	Overview of the Bible 10 - Acts of the Apostles.....	175
Section 29	The Jews and the Law of Moses	177
Section 30	Bible Terminology IV.....	181
Section 31	Life and Death in the Bible	185
Section 32	Overview of the Bible 11 - New Testament Letters	189
Section 33	Good vs Evil	217
Section 34	Conclusion	225
Appendix 1	Coins of the Bible	227
Appendix 2	The Early Christians.....	229
Appendix 3	Bible Maps	234
Appendix 4	Time Charts	242
Appendix 5	Bible Reading Plan	246
Questionnaire		249

1 과 - 서론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 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할 그 시간을 유익하고 즐겁게 만들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성서를 더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은 이 위대한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의 성서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는다.

- 좌절하고
- 혼란스러워 하며
- 지루해 하거나
- 손에 쥐어진 업무에 질리게 된다

여러분은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란 것을 믿을 것이다.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함으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이 이 세미나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되어서 성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과연 성서의 내용 중에서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하여 절대로 여러분에게 개종을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둔다. 단지 성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우리의 양심은 만족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강좌 시간 동안 교리에 대한 논쟁을 지양할 것이고 단지 여러분이 성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성서 메아리(에코)의 중요성

성서 메아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서 전체에 걸친 모든 관계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가 성서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시작이 되는, 또한 아주 중요한 단서:

- 성서에는 “echo” (여러 곳에서 되풀이 되는 개념)가 존재한다.

질문: 무엇이 떠오르는가?

Section 1 - Introduction

Welcome!

We know that your time is valuable. So we promise to make your time with us productive and enjoyable.

Our goal is to teach you to read the Bible more effectively. You are certainly capable of reading and understanding this great book, but if you are like most people you are occasionally:

- frustrated
- confused
- bored
- overwhelmed by the task at hand

The Bible is the inspired Word of God, and understanding its message can bring great benefits. Reaching a good understanding of the Bible is often difficult for many different reasons. We think we can provide you with the help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By giving this seminar, we will be sharing with you what we have learned, and helping you to respect and appreciate God's Word as we do.

Why are we giving this seminar? We hope that God is pleased by our attempts to build respect and familiarity with His Word. We are concerned for your salvation as well, but rest assured, we do not believe it is our place or role to attempt to convert you to our way of thinking in this course. We are committed to helping you discover the Bible message for yourself. If we come to agreement on matters, all the better. If not, your conscience and ours must be satisfied independently. For this reason, we will avoid a debate of doctrine during class time, and stick to our promise of helping you read the Bible more effectively!

The Value of Bible Echoes

Understanding Bible Echoes give us a view of how remarkable all the connections are throughout the Bible. It means we must consider the whole Bible.

A Beginning (but Critical) Tip:

- **Look for Bible "echoes"**

Ask: What does this remind me of?

바리새인들과 헤롯당들이 예수가 하는 말을 꼬투리 잡아 그를 체포하려 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마가복음 12:14-17

정당한 말이다. 세금은 인간의 사물체계에 속한 것이므로 그것을 내라는 말은 명확한 대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바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서의 ECHO 를 보자

창세기 1:27 를 기억해 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며 표제인가? 예수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께 속하였으므로 그의 형상과 성품을 올바르게 반영함으로써(이것을 “현현(顯現)”)이라고 함) 그 분께 그 값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신비로운 연결이 아니다. 이것은 성서를 조심스럽게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연결이다.

그렇다면 더 알아보자....

우리는 이 과정 동안 표와 지도를 자주 사용할 것이다.

이 표들과 지도들은 부록에 있으므로 자주 찾아보길 바란다. 이는 효과적으로 성서 읽기 강좌를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다.

Consider this example of when the Pharisees and Herodians attempted to catch Jesus in his words, so they could arrest him. They asked,

"Teacher, we know that You are true, and care about no one; for You do not regard the person of men, but teach the way of God in truth. Is it lawful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Shall we pay, or shall we not pay?" Jesus recognised their treachery and asked for a penny. He asked "Whose image and inscription is this?" And they said to Him, "Caesar's."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Render 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And they marvelled at Him.' Mark 12:14-17 NKJV

Fair enough. Pay your taxes because they belong to man's system of things, is the clear answer. But what are the things we ought to render to God?

Look for Bible Echoes

Remember *Genesis 1:27 NKJV*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Whose image and superscription are we? Jesus' full message is not merely to pay your taxes, but also that we belong to God and must render to Him His due by reflecting His image and character correctly (This is known as "manifestation").

This is not a mysterious connection. It is a wonderful association gained by careful reading.

Let's learn more...

We make regular use of charts and maps during this course.

Copies of these are found in the appendix – please refer to these often. They will make learning to read the Bible effectively much more enjoyable and meaningful.

2 과 - 성서의 배경

몇 가지의 놀라운 사실들

- “Holy Bible” (거룩한 성서) = “Separate Book” (구별된 책)
- 권수: 66 권
- 구약 39 권
- 신약 27 권.
- 기록자: 40: 왕, 농부, 의사, 어부, 왕자, 목자, 시인, 노동자, 부자, 가난한 자, 학식 있는 자, 학식 없는 자.
- 집필 기간: 약 1600 년에 걸쳐 기록되었음.
- 등장인물 및 장소: 1551 개의 장소에서 2930 명의 인물들이 등장함.
- 문체: 다양한 문체로 작성 (시, 산문 편지글 등.)

이렇게 성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여러 세대 동안 다른 국가, 다른 장소에서 기록되었지만,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는 모순과 불일치가 없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파하였다.

영감

하나님이 저자이시다. 딤후 3:15-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 성경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
- 예: 다윗 - 삼하 23:1-2 예레미야 - 렘 30:1-2

성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자주 나온다;

- “주께서 말씀하시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기록하지 않았다. 벰후 1:19-21

성서는 진리의 근원이다. (시 19:7-9,- 완전, 확실, 올바름, 순결, 참,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며 (사 40:6-8: 잠 30:5-6)

성서 읽기의 중요성

-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딤후 3:15-17)
-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롬 15:4)
-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롬 1:16-17)
- 성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사망을 면치 못한다. (잠 13:13)
-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케 하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한다. (벰전 3:15, 유 3-4)
-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시 119:105, 수 1:8)

Section 2 - Background to the Bible

A Few Remarkable Facts

- “Holy Bible” means “Separate Book”,
- Contains 66 Books,
- Old Testament - 39 books,
- New Testament - 27 books,
- Over 40 writers: kings and peasants, doctors and fishermen, princes and herdsmen, poets and labourers, rich and poor,
- Written over a period of 1600 years,
- About 2,930 characters in 1,551 places,
- Every imaginable literary form (poetry, prose, etc.).

Even with so many different writers, subjects, etc., all parts of the Bible agree with one another. Though the writers were divided by class, period, country, and disposition, there is wonderful harmony in all they wrote. There is no contradiction, no disagreement. How can this be? They all wrote by divine inspiration. They were God’s agents, proclaiming His message to humanity.

Inspiration

God is the Author: *2 Tim. 3:15-17* All scripture is Inspired - “God Breathed”

- Scripture is sufficient in itself.
- Examples: David - *2 Samuel 23:1-2*; Jeremiah - *Jeremiah 30:1-2*

Notice how often you read in the Bible:

- “Thus saith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 came unto me saying...”

Men recorded God’s words not their own (*Peter 1: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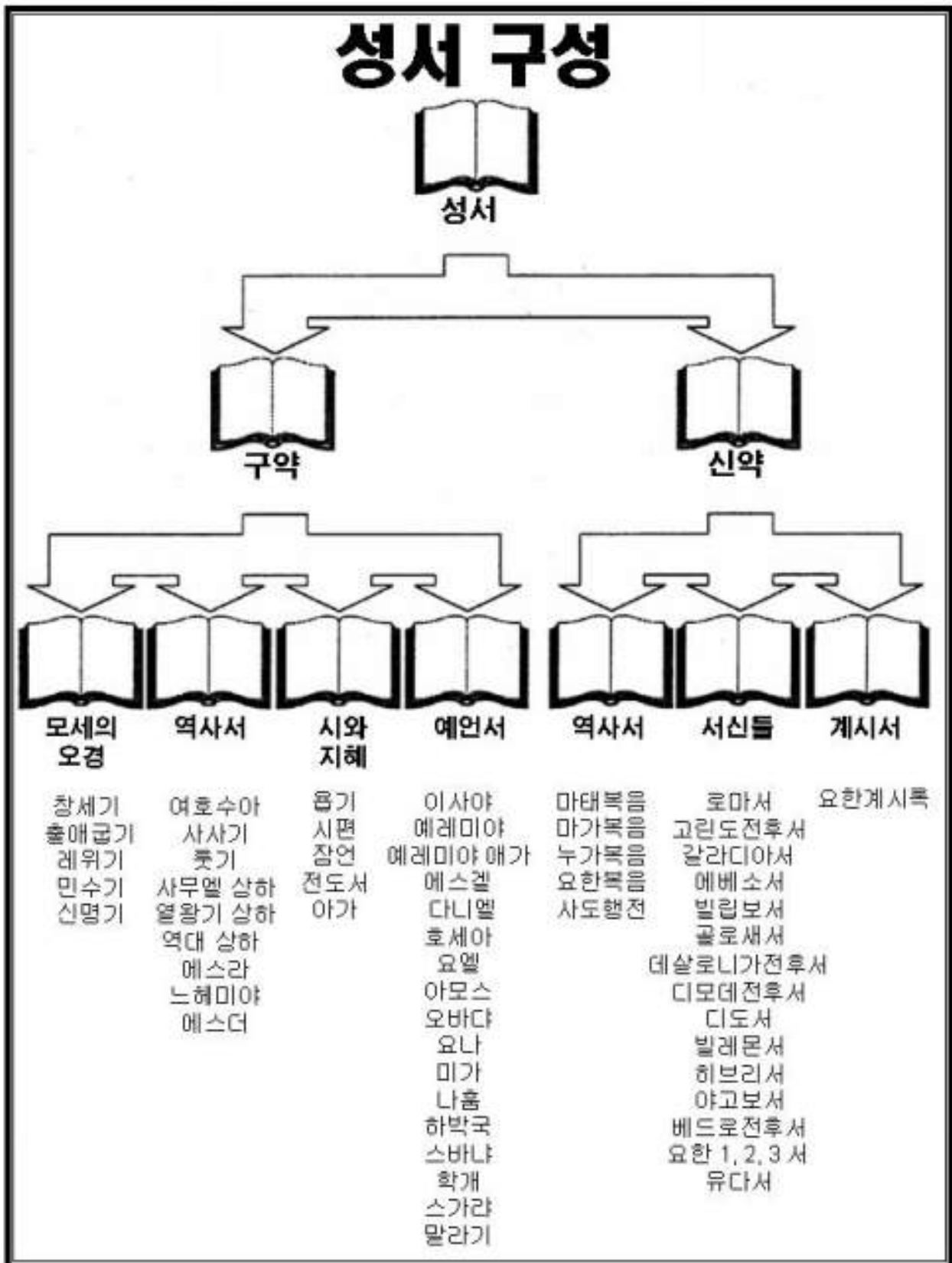
The Bible is the Source of Truth (*Psalms 19:7-9* - perfect, sure, right, pure, true)

God’s Word never fails (*Isaiah 40: 6 - 8*; *1 Peter 1: 24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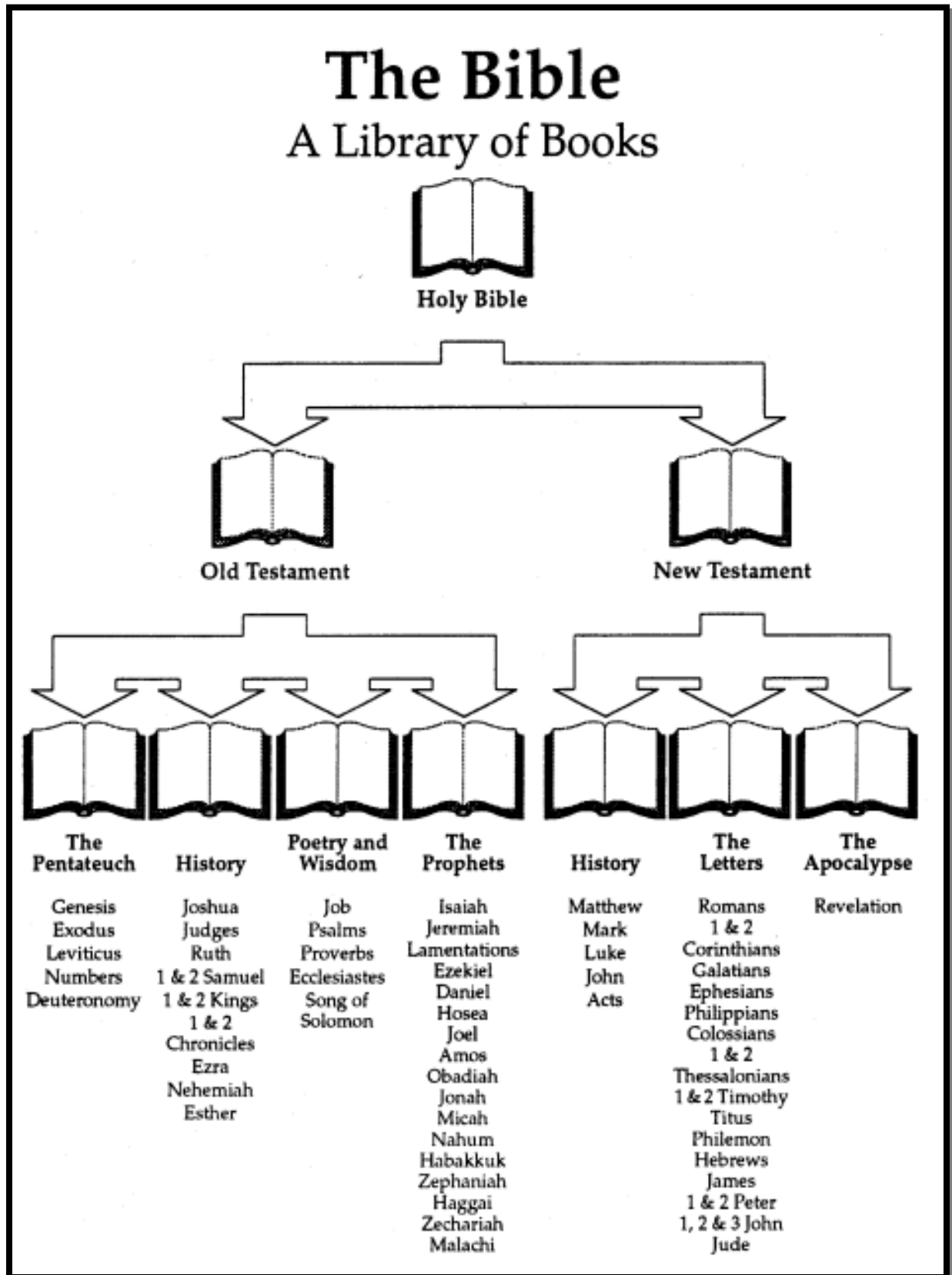
Importance of Reading the Bible

- Makes us wise unto salvation (*2 Timothy 3:15-17*)
- Power of God unto Salvation (*Romans 1:16-17*)
- Gives us Hope (*Romans 15:4*)
- Neglect brings death (*Proverbs 13:13*)
- Prepares us to give an answer and contend for the faith (*1 Peter 3:15*; *Jude 3-4*)
- Provides direction for daily living (*Psalms 119:105*; *Joshua 1:8*)

성서의 개관



Overview of the Bible



3 과 - 성서의 개관 1 - 서론

성서의 정경은 성경으로 인정된 권위 있는 책들이다. 성서는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다음의 책들로 구성되었다.

구약

창세기	창	역대하	대하	다니엘	단
출애굽기	출	에스라	스	호세아	호
레위기	레	느헤미야	느	요엘	욥
민수기	민	에스더	에	아모스	암
신명기	신	욥기	욥	오바다	옵
여호수아	수	시편	시	요나	온
사사기	삿	잠언	잠	미가	미
룻기	룻	전도서	전	나훔	나
사무엘상	삼상	아가	아	하박국	합
사무엘하	삼하	이사야	사	스바냐	습
열왕기상	왕상	예레미야	렘	학개	학
열왕기하	왕하	예레미야 애가	애	스가랴	스
역대상	대상	에스겔	겔	말라기	말

신약

마태복음	마	에베소서	엡	히브리서	히
마가복음	막	빌립보서	빌	야고보서	약
누가복음	눅	골로새서	골	베드로전서	벧전
요한복음	요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베드로후서	벧후
사도행전	행	데살로니가후서	살후	요한 1 서	요 1
로마서	롬	디모데전서	딤후	요한 2 서	요 2
고린도전서	고전	디모데후서	딤후	요한 3 서	요 3
고린도후서	고후	디도서	딤후	유다서	유
갈라디아서	갈	빌레몬서	몬	요한계시록	계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세 가지 분류

유대인들은 성서를 다음의 순서로 배열한다. 사건이 일어난 연대순으로 되어 있다.

1. **율법서(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 **예언서(8권)**:

1. 초기의 예언서(4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2. 후기의 예언서(4권):

대 예언서(3 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 예언서(1 권) 12 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Section 3 - Overview of the Bible 1 – Introduction

The “Canon” of Scripture is an authoritative list of books accepted as Holy Scripture. The Bible is composed of two Testaments, Old and New, containing the following books:

Old Testament

Genesis	Gen.	2 Chronicles	2 Chron	Daniel	Dan.
Exodus	Ex.	Ezra	Ezra	Hosea	Hos.
Leviticus	Lev.	Nehemiah	Neh.	Joel	Joel
Numbers	Num.	Esther	Esth.	Amos	Amos
Deuteronomy	Deut.	Job	Job	Obadiah	Obad.
Joshua	Josh.	Psalms	Ps.	Jonah	Jon.
Judges	Jud.	Proverbs	Prov.	Micah	Mic.
Ruth	Ruth	Ecclesiastes	Ecc.	Nahum	Nah.
1 Samuel	1 Sam.	Song of Solomon	Song	Habakkuk	Hab.
2 Samuel	2 Sam.	Isaiah	Is.	Zephaniah	Zeph.
1 Kings	1 Kings	Jeremiah	Jer.	Haggai	Hag.
2 Kings	2 Kings	Lamentations	Lam	Zechariah	Zech.
1 Chronicles	1 Chron	Ezekiel	Ezek.	Malachi	Mal.

New Testament

Matthew	Matt.	Ephesians	Eph.	Hebrews	Heb.
Mark	Mark	Philippians	Phil.	James	Jas.
Luke	Lk.	Colossians	Col.	1 Peter	1 Pet.
John	Jn.	1 Thessalonians	1 Thess.	2 Peter	2 Pet.
Acts	Acts	2 Thessalonians	2 Thess.	1 John	1 Jn
Romans	Rom.	1 Timothy	1 Tim.	2 John	2 Jn.
1 Corinthians	1 Cor.	2 Timothy	2 Tim.	3 John	3 Jn.
2 Corinthians	2 Cor.	Titus	Tit.	Jude	Jude
Galatians	Gal	Philemon	Philem.	Revelation	Rev,

The Three Parts of the Hebrew Old Testament

The Jews arrange their Bible in the following manner - it reflects more of the chronological order of events:

1. The Law (5 books)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2. The Prophets (8 books)

1. The Former Prophets (4 books): Joshua, Judges, Samuel, Kings

2. The Latter Prophets (4 books):

Major (3 books): Isaiah, Jeremiah, Ezekiel

Minor (1 book) The Twelve: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Haggai, Zechariah, Malachi

3. 기록(11권):

시(3 권) - 시편, 잠언, 욥기

5 권의 두루마리(5 ROLLS) - 아가, 룻기, 예레미야애가, 전도서, 에스더.

역사서(3 권) -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서.

비록 순서는 다르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는 상, 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킹 제임스 역본 구약서는 정확히 유대 성서와 같은 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성서의 개관 강좌는 성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기초로 하여 연대기적인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신약은 성서순서대로 (비연대순) 진행할 것이다.

Section Outlines

배경과 창세기

배경/구조/연대

창조에서 애굽까지

- 창세기

이스라엘의 역사 - 1 부: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 욥기
- 출애굽기
- 레위기

이스라엘의 역사 - 2 부: 모세부터 다윗까지

사사의 시대

- 민수기
- 신명기
- 여호수아
- 사사기
- 룻기

사울과 다윗

- 사무엘 상하
- 시편

이스라엘의 역사 - 3 부: 솔로몬에서 북방 추방까지

솔로몬의 통치

- 열왕기 상하
- 역대 상하
- 잠언
- 전도서
- 아가

북방왕국

- 아모스
- 호세아

3. The Writings (11 books)

Poetical (3 books): Psalms, Proverbs, Job

Five Rolls (5 books): Song of Solomon, Ruth, Lamentations, Ecclesiastes, Esther

Historical (3 books): Daniel, Ezra, Nehemiah, Chronicles

Note that although the order is different, and the books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a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King James Authorised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contains exactly the same books as the Jewish Bible.

The overview of the Bible sessions will be conducted by presenting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 in a chronological order, based on the historical events outlined in the Bible.

The New Testament books will be presented in the same (non-chronological) order as in the Bible.

Section Outlines

Background & Genesis

Background/Structure/Chronology

Creation to Egypt

- Genesis

History of Israel – Part I: Abraham to Moses

Exodus to Promised Land

- Job
- Exodus
- Leviticus

History of Israel – Part II: Moses to David

Period of Judges

- Numbers
- Deuteronomy
- Joshua
- Judges
- Ruth

Saul & David

- 1st & 2nd Samuel
- Psalms

History of Israel – Part III: Solomon to Northern Exile

Reign of Solomon

- 1st & 2nd Kings
- 1st & 2nd Chronicles
- Proverbs
- Ecclesiastes
- Song of Solomon

Northern Kingdom

- Amos
- Hosea

이스라엘의 역사 - 4 부: 선지자

추방 전

- 예레미야
- 스바냐
- 하박국
- 예레미야 애가

남방왕국

- 이사야
- 미가

다른 민족

- 요나
- 나훔

70 년간의 포로

- 요엘
- 다니엘
- 에스겔
- 오바다

이스라엘의 역사 - 5 부: 히스기야에서 시드기야

남방왕국

- Hezekiah
- Zedekiah

추방 후

- 에스라
- 느헤미야
- 에스더
- 학개
- 스가랴
- 말라기

신구약 성서 사이의 시대

외경(APOCRYPHA): 헬라어로 “숨어 있는 것들”이라는 뜻이다.

이것들은 히브리어의 성서가 아니다. 이것들은 이집트에 살던, 헬라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유대인을 위하여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중에 포함되었다. A.D. 1520 년경이 되어서야 정전에서 분리되었다. 이 외경은 일반적으로 B.C. 200 - 50 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여겨진다. 오늘날, 만일 이것을 성서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것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History of Israel – Part IV: The Prophets

Pre-Exile

- Jeremiah
- Zephaniah
- Habakkuk
- Lamentations

Southern Kingdom

- Isaiah
- Micah

Nations

- Jonah
- Nahum

70 years captivity

- Joel
- Daniel
- Ezekiel
- Obadiah

History of Israel – Part V: Hezekiah to Zedekiah

Southern Kingdom

- Hezekiah
- Zedekiah

Post Exile

- Ezra
- Nehemiah
- Esther
- Haggai
- Zechariah
- Malachi

Period between the Testaments

Apocrypha - Greek meaning “hidden things”

Not part of the Hebrew Scriptures. Included in the Greek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for Greek speaking Jews in Egypt. Later included by Jerome into the Latin Bible.

Protestants do not consider them as part of the inspired canon of the Bible. We will not cover them in this seminar. The 14 books are accepted as written between 200 – 50 BC. Some versions include them between the testaments.

The Gospels

Matthew

Mark

Luke

John

Acts of the Apostles

신약 서신들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서

- 로마서
- 고린도전후서
- 갈라디아서
- 에베소서
- 빌립보서
- 골로새서
- 데살로니가전후서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

- 디모데전후서
- 디도서
- 빌레몬서

일반적 서신서

- 히브리서
- 야고보서
- 베드로전후서
- 요한 1,2,3 서
- 유다서

계시서

- 요한계시록

New Testament Letters

Paul's Epistles to the Ecclesias

- Romans
- 1st & 2nd Corinthians
- Galatians
- Ephesians
- Philippians
- Colossians
- 1st & 2nd Thessalonians

Paul's Personal Epistles

- 1st & 2nd Timothy
- Titus
- Philemon

General Epistles

- Hebrews
- James
- 1st & 2nd Peter
- 1st, 2nd & 3rd John
- Jude

The Apocalypse

- Revelation

4 과 - 성서는 그 자체로 해석해야 한다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

자녀를 위해 자전거를 조립해 주려고 밤새도록 애를 쓰다가, 알고 보니 자전거의 핸들을 거꾸로 끼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있다. 또한 “업은 아기 삼년 찾는다” 는 속담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성서를 읽을 때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성서를 해석하는 열쇠는 바로 성서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성서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본 원칙

성서를 효과적으로 읽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성서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성서 속에 있다.

이 말은 “조부님의 무덤에 누가 묻혀 있소?”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의 본성은 그 명백한 해결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마는 것이다. 가전 제품을 사용할 때 실패를 방지하려면 먼저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 보아야 한다.

해답은 가까이에서 그리고 멀리에 있다.

같은 장이나 앞 뒷장을 살펴 보라.

-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 마 13:3-8 과 마 13:18-22 를 대조 (두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소 떨어져 있음에 주목하라.)
- 느부갓네살왕이 꿈에 본 상
 - 단 2:31-45: 다니엘이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았음에 주목하라. 단 2: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 보자 (특히 신 구약 대조)

- 가시 떨기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은 천사였다.
 - 출 3:4 과 행 7:30-31 을 대조하라.
- 예수님께서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셨는가?
 - 마 27:46 과 시 22 편을 대조하라.

해야 할 것

- 의문에 대한 답을 먼저 성서에서 찾아 본다.
-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서 전체를 읽는다.
- 답을 찾을 때까지 의문점을 기록해 둔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해답을 빨리 찾으려 한다.
- 엉뚱한 부분을 찾아서 결론을 내린다.

Section 4 - The Bible Interprets Itself

When all else fails...

How many times have you heard of a person who spent a frustrating evening assembling his child's bike only to find out after the fact that he has assembled the handlebars backwards! Of course, we all know the modern proverb "when all else fails, read the instructions."

This is of course true when reading the Bible. We need to learn from our life's experiences and recognize that the key to easier (not easy) understanding of the Bible is found within its own pages. Our tendency is to not look far enough for answers within the book when we encounter something we do not understand.

A basic principle

A basic principle for reading the Bible more effectively lies in this simple fact:

Your questions about what the Bible teaches are answered in the Bible

We know that is like asking who is buried in Grant's tomb? However, with human nature, the obvious solution is often our last resort. Read the instructions first is the obvious solution to preventing frustration with most of life's projects.

Answers are found near and far

Look in the same chapter or surrounding chapters:

- Christ's explanation of the parable of the sower.
 - *Matt 13:3-8 compare Matt 13:18-23* (note they are not adjacent)
- Nebuchadnezzar's vision of the Image
 - *Dan 2:31-45. Note that Daniel recognised the dream would be revealed by God. v22 "He reveals the deep and secret things."*

Look in other books of the Bible (especially New & Old Testament)

- It was an angel who spoke to Moses in the burning bush
 - *Exo 3:4 compare Acts 7:30-31*
- Why Jesus said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 *Matt 27:46 compare Psa 22*

Do

- Look first to the Bible for answers to questions
- Read all of the Bible to find answers to your questions
- Write down your questions (some answers take longer to find than others)

Don't

- Expect quick answers
- Look at isolated passages and draw conclusions

5 과 - 성서 읽기

성서를 읽는 것은 왜 어려운가?

성서를 읽기가 어려운 까닭은 아마도 그 해석이 난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실망하지 않고 도전해 보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퍼즐을 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성서의 간단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는 사람은 몇이나 될 것인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라.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 25:2)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마 13:10 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하나의 분리 방법임을 보여 준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공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롬 9:18-21 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견해를 참고하라.)

누구에게 진리를 나타내셨는가?

1.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마 11:25-26)
2. 스스로 지혜있다고 자처하는 자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셨다. (고전 1:17-31)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1.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사회적 지위나 금전적인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깨달음은 “돈 없이, 값 없이” 획득할 수 있다. (사 55:1,3, 잠 23:23)

2. 단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단번에 모든 것을 계시하시는 일이 없다. 한 가지 과제를 성취함에 있어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천천히 가르쳐 주셨다. (히 1:1, 출 23:29)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깨달음이 약속되어 있다.

믿음으로 (기도와 함께) 구해야 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마 7:7-8, 약 1:5-6)

성서를 속독해서는 안된다

Section 5 - Reading the Bible

Why the Bible is Difficult to Read

Reading the Bible is often difficult, but we need not lose heart! We must accept the fact that it can be difficult and meet it as a challenge. It is part of the purpose of God to present his message in such a way.

Always remember:

'It is the glory of God to conceal a matter, but the glory of kings is to search out a matter.' (Prov 25:2 NKJV)

Why did Jesus speak in Parables?

The disciples posed this question to him in *Matthew 13:10*.

His answer reveals that it is a separation process. *"It is given unto you...unto them it is not given"* (If this sounds unfair, consider Paul's comment in *Romans 9:18-21*).

Who is the Truth revealed to?

1. To "babes" *Matthew 11:25-26*
2. Certainly not to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wise or "learned"
1 Corinthians 1:17-31

How does one gain understanding?

1. By application of time and energy.

Social status or financial position will not give anyone an advantage over another.

Understanding requires a purchase without money. (*Isaiah 55:1,3; Proverbs 23:23*)

2. Slowly!

God never revealed anything all at once and has always taught a sure slow effective method of achieving a task. (*Hebrews 1:1; Exodus 23:29*)

Understanding is promised to those who seek diligently

We must ask in faith (and this involves prayer), but understanding is assured if we are patient to receive it. (*Matthew 7:7-8; James 1:5-6*)

YOU CANNOT SPEED READ THE BIBLE

6 과 - 성서의 개관 2 - 창세기

창세기 - 기초

성서의 기초 또는 시작으로 모든 것이 이 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 히브리 성서의 처음 다섯권으로 구성된 모세 오경의 첫째 책이다.

창세기의 뜻은 “기원, 근원, 태어남”이다.

계시록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시를 이어주는 양쪽 끝의 기둥이다. 창세기는 그 계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해 주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계시록에는 이 지구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장면을 묘사하였고 그 시작점은 창세기에 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계시록	
자연의 창조	1	영적 창조	3:14
뱀이 말하고 있다	3:1-5	뱀이 결박된다	20:2
저주를 받다	3:17	저주가 풀린다	22:3
슬픔과 죽음의 모습을 나타내다	3:16-19	이것들이 없어진다	21:4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이 불허되었다	3:24	그것이 자유롭게 허락되었다	2:7
첫째 낙원이 인간에게 닫혀졌다	3:23	그것이 인간에게 열려졌다	21:25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2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태고의 역사 창 1 장 - 11 장
- 족장시대의 역사 창 12 장 - 50 장

태고의 역사는 4 가지 뚜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 창조
- 인간의 타락
- 홍수
- 언어를 나눔(바벨탑)

족장의 역사는 4 명의 걸출한 인물들과 관계 있다.

- 아브라함
- 이삭
- 야곱
- 요셉

Section 6 - Overview of the Bible 2 - Genesis

Genesis – the foundation

The beginning or foundation of the Bible, upon which all the other books are built. It is the first book of the Pentateuch, which consists of the first five books of the Hebrew Bible.

The name itself means “origin, source, or begetting.”

The books of Genesis and Revelation stand as two end posts in the revelation of God to man; the first telling how it all began, the second revealing in symbol how it all will finish. In Genesis there is seen the beginnings of all that which Revelation predicts as the consummation of the Divine purpose in the earth.

For example:

Genesis		Revelation	
Natural creation	1	Spiritual creation	3:14
The serpent speaks	3:1-5	The serpent is restrained	20:2
The curse is imposed	3:17	The curse is removed	22:3
Sorrow and death make their appearance	3:16-19	Sorrow and death are taken away	21:4
Access to the tree of life is denied	3:24	Access to the tree of life is opened	2:7
The first paradise is closed to man	3:23	Paradise is opened to him	21:25

Genesis basically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 Primeval History Ch 1-11
- Patriarchal History Ch 12-50

The first division records four outstanding events:

- The Creation
- The Fall of Man
- The Flood
- The Confusing of Tongues (Tower of Babel)

The second division is concerned with four outstanding individuals:

- Abraham
- Isaac
- Jacob
- Joseph

이러한 시간적 분류 이외에도 창세기는 자연적으로 다음의 12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1	창조	1:1 - 2:3.
2	하늘들과 땅의 세대	2:4 - 4:26.
3	아담의 세대	5:1 - 6:8
4	의로운 자 노아의 세대	6:9 - 9:29.
5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	10:1 -11:9.
6	셈의 세대	11:10-26.
7	데라, 아브람/아브라함의 세대	11:27 - 25:11.
8	이스마엘의 세대	25:12-18.
9	이삭의 세대	25:19 - 35:29.
10	에서의 세대	36:1-8.
11	에서의 아들들의 세대	36:9-43.
12	야곱의 세대	37:1 - 50:26.

창세기에서 생각해야 할 몇 가지:

1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	1, 2
2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3:15
3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우르에서 불러내심	12:1
4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12, 13, 15, 17, 18, 22
5	이스라엘이 어떤 경위로 애굽에 들어갔는가?	15, 37-50

In addition to the natural separation into two periods of time, the book of Genesis is also divided naturally into 12 sections. These **natural breaks** are as follows:

1	Creation	1:1 - 2:3.
2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2:4 - 4:26.
3	The Book of the Generations of Adam	5:1 - 6:8
4	The Generations of Noah, a just man	6:9 - 9:29.
5	The Generations of the sons of Noah	10:1 -11:9.
6	The Generations of Shem	11:10-26.
7	The Generations of Terah, Abram/Abraham	11:27 - 25:11.
8	The Generations of Ishmael	25:12-18.
9	The Generations of Isaac	25:19 - 35:29.
10	The Generations of Esau	36:1-8.
11	The Generations of the Sons of Esau	36:9-43.
12	The Generations of Jacob	37:1 - 50:26.

Some Points to Consider from Genesis:

1	Creation challenges evolution.	1, 2
2	God's First Promise to Man.	3:15
3	God called Abram out of Ur.	12:1
4	God's Covenant with Abram/Abraham.	12, 13, 15, 17, 18, 22
5	How Israel Came to be in Egypt.	15, 37-50

7 과 - 왜 신약과 구약이 존재하는가?

약속 혹은 언약은 무엇인가?

성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두 부분(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다.

“Testament” 라는 단어는 언약을 뜻하는데 이것은 동의, 약속 또는 두 개체간의 맹세를 말한다.

성서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존재하였던 충성된 자들과 맺었던 약속을 근거로 한다.

성서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Jesus Christ came ... to confirm..)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고 이방인으로 그 공훈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롬 15:8-9)고 기록되어 있다.

다른 곳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벧후 1:4)라고 되어 있다.

왜 구약과 신약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들은 성서의 각 권 즉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지침이 된다. 그러나 성서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것은 인위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성서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완전하여 둘로 나눌 수 없는 한 권의 책이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이후로 구약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 신약을 읽게 되면 끊임없이 구약을 참고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로 묘사되었다. - 히 9:15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말씀하였다 “성경을 상고하라” - 요 5:39 이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듣는 자들에게 성서를 읽을 것을 권하였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27)

Section 7 - Why Two Testaments?

What is a Testament or Covenant?

The Contents Page of the Bible shows it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 word “testament”: means covenant or agreement, promise or pledge between two parties.

The teaching of the Bible is based upon covenants of promise that God made with faithful men and women in times past.

It teaches that:

‘...Jesus Christ has become a servant to the circumcision for the truth of God, to confirm the promises made to the fathers, and that the Gentiles might glorify God for His mercy, as it is written: “For this reason I will confess to You among the Gentiles, And sing to Your name.”’ (Romans 15:8-9 NKJV)

And again:

‘...by which have been given to us exceedingl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that through these you may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through lust.’ (2 Peter 1:4 NKJV)

Why two Testaments?

The events surrounding the Lord Jesus Christ provide a natural division of the scripture, between the prophecies in the Old Testament relating to the birth of Jesus Christ and the records of his birth and life in the New Testament. However, it must be remembered that this division of the Bible into Old and New Testaments is man-made.

The whole Bible is the revelation of God, and is one complete and indivisible book. Some claim that the Old Testament became outdated when Christ appeared nearly 2000 years ago, but that is not so. The New Testament constantly refers the reader back to the Old.

The Lord Jesus Christ is described as the “*Mediator of the New Testament*” (*Hebrews 9:15 AV*).

Christ, in preaching, told his listeners to “*search the Scriptures*” (*John 5:39 NKJV*) by which he meant the Old Testament.

He appealed to those same Scriptures to expound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And beginning at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expounded to them” (the disciples)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Luke 24:27 NKJV).

만일 구약을 무시한다면 성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복음 자체는 구약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 3:8)

구약의 많은 부분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제 이루어 지려고 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생각해 보자.

1.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하신 약속 - 창 3:15
2. 옛 사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
3. 다윗에게 주신 약속 - 삼하 7:12-17
4. 예언자들에게 주신 왕국의 약속 - 사 9:6-7

신약에서의 천사의 증거는 누가복음 1:31-33에 나타난다.

- 31 절 -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에 관한 것.
- 32 절 -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에 관한 것.
- 33a. -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후손”에 관한 것.
- 34b. - 메시아의 “왕국”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약속에 관한 것.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장해 나갔는지 바울이 갈라디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찾아보자. 갈 3:8-29 - 아브라함, 그리스도, 신도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렘 31:31-34

The Bible will never be properly understood if the Old Testament is neglected. The Gospel, itself, is based upon an Old Testament promise:

'And the Scripture, foreseeing that God would justify the Gentiles by faith, preached the gospel to Abraham beforehand, saying, "In you all the nations shall be blessed."' (Galatians 3:8 NKJV).

Much of the Old Testament is prophecy and is today being fulfilled, or soon will be.

To illustrate this consider the following promises or covenants made by God in the Old Testament.

1. In Eden following the sin of Adam and Eve - *Genesis 3:15*.
2. Promises to Abraham, Isaac and Jacob - *Genesis 12-28*
3. Promises to David - *2 Samuel 7:12-17*
4. Promises of the Kingdom to the prophets - *Isaiah 9:6-7*.

These connect with the angel's testimony in the New Testament in *Luke 1:31-33*:

v31 - relates to the "seed of the woman" promised to Adam & Eve

v32 - relates to the promise of the "Son of God" made to David

v33a - relates to "the seed" that was promised to Abraham

v33b - relates to the promises made to the prophets concerning the "kingdom" of the Messiah

Another example of how God's promises span the two Testaments is found i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Review: *Gal. 3:8-9* - Abraham, Christ, Believers

God's Promises are not yet complete. This is made evident through the prophecy of Jeremiah.

Review: *Jeremiah 31:31-34*

8 과 - 성서 용어 I

믿음 -하느님이 존재(存在)하시고, 그분이 창조주(創造主)이시며 모든 것의 통치자(統治者)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確信).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實像)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證據)입니다"(히브리서 11:1)

속죄(贖罪) - 덮다, 깨끗이 하다, 속죄하다, 중재하다, 역청(瀝靑)으로 덮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 일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레 16:34)

지옥(地獄) - 히브리어로 스올 - 무덤, 음부(陰府), 구덩이

"(다윗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나"(행 2:31)

만군(萬軍)의 여호와 -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로 야웨 = HE WHO WILL BE. 하나님의 목적과 특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이름. 만군“萬軍” = “많은 군대(軍隊).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하느님의 명칭+ 앞으로 나아가는 많은 군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侮辱)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 17:45)

그리스도 - "기름 부음 받았다"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뜻

"네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막 14:61)

예수 -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의 헬라어 형태. 뜻은 "야웨는 구원(救援)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의롭다 하심 - 믿음으로 인간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롬 5:18)

침례(浸禮) - 물에 폭 담금, 염색(染色).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려 함이니라."(롬 6:4)

Section 8 - Bible Terminology I

Faith - belief or trust. The conviction that God exists and is the creator and ruler of all things, and the provider of eternal salvation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Hebrews 11:1 N.KJV)

Atonement - to cover, purge, make reconciliation.

"This shall be an everlasting statute for you, to make atonement for the children of Israel, for all their sins, once a year." And he did as the LORD commanded Moses." (Leviticus 16:34 NKJV)

Hell - usually grave, pit.

"[David], foreseeing this, spoke concerning the resurrection of the Christ, that His soul was not left in Hades, nor did His flesh see corruption." (Acts 2:31)

LORD of Hosts – In the Hebrew "LORD" = Yahweh = "He who will be". This is God's special name by which he declares his purpose and Character. "Hosts" = "Sabaoth" = "armies" or "hosts". Hence, the proper name of the one true God + that which goes forth, army, war, warfare, host.

"Then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to me with a sword, with a spear, and with a javelin. But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1 Samuel 17:45)

Christ - "anointed", Hebrew equivalent is Messiah.

"But He kept silent and answered nothing. Again the high priest asked Him, saying to Him,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Mark 14:61)

Jesus - Greek form of Hebrew name Joshua; meaning "Yahweh is salvation"

"And she will bring forth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 1:21-22 NKJV)

Justification - the act of God declaring men free from guilt by faith and, thereby, acceptable to him.

"Therefore, as through one man's offense judgment came to all men, resulting in condemnation, even so through one Man's righteous act the free gift came to all men, resulting in justification of life." (Rom 5:18 NKJV)

Baptism - immersion, submersion in water, to dip (in dye).

"Therefore we we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even so we also should walk in newness of life." (Rom 6:4-5 NKJV)

거룩케 하심 - **신성**(神聖)케 함, 정결케 함.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 2:13)

부활(復活) -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 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5)

영혼(靈魂) - 숨을 쉬는 것, 존재, 인생, 피조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LIVING) 된지라"(창 2:7)

불멸(不滅) **영생** - 죽지 않음, 영원함.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딤후 6:16)

거룩(聖) - 구별하여 따로 놓다, 거룩하다, 분리(分離)하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 19:2)

호산나 -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요한복음 12:13)

복음(福音) - 좋은 소식.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 4:23)

비유 - 어떤 진리나 또는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짧은 이야기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마가복음 4:33)

아포칼립스(啓示) - 성서의 마지막 책의 헬라어 이름. 그 의미는 나타내다, 또는 계시(啓示)하다. 계시록(啓示錄)이라고 번역되었다. 형용사형인 아포칼립틱은 세상 끝에 있을 일을 묘사하는 예언에 사용되었다.

연대기(年代的) - 시간에 따라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

은유(隱喩) - 비유의 말, 비슷한 것으로 시사(示唆)하는 말이나 또는 구절(句節). 그렇게 하므로써 독자가 이해하기 쉽다.

상징(象徵) - 성서의 가르침이나 의미에 관하여, 상징(象徵)은 은유와 같이 말로 나타내거나, 또는 희생제물이 될 동물과 같이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상징들은 이해를 돕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개념들을 짧게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Sanctification - consecration, make separate or holy

"Elect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in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for obedience and sprinkling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1 Peter 1:2 NKJV)

Resurrection - a rising from the dead

"For if we have been united together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certainly we also shall be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Rom 6:5 NKJV)

Soul - that which breathes, being, life, creature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being." (Gen 2:7 NKJV)

Immortality - undying, not subject to death, everlasting

"GOD who alone has immortality, dwelling in unapproachable light, whom no man has seen or can see, to whom be honor and everlasting power. Amen." (1 Tim 6:16 NKJV)

Holy - set apart, sacred, separate

"Speak to all the congreg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say to them: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Lev 19:2 NKJV)

Hosanna - meaning "save now"

"And they took branches of palm trees and went out to meet Him, and cried out: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The King of Israel!'" (John 12:13 NKJV)

Gospel - meaning "Glad Tidings" or "Good news"

"And Jesus went about all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healing all kinds of sickness and all kinds of disease among the people." (Matt 4:23 NKJV)

Parable - a short story designed to teach a truth or a moral lesson.

"And with many such parables He spoke the word to them as they were able to hear it." (Mark 4:33 NKJV)

Apocalypse - Greek name for the last book of the Bible, the word is translated as "Revelation". The adjective "apocalyptic" is used to describe prophecies relating to the end of the world.

Chronological - the order in which events occurred; according to time.

Metaphor - A figure of speech, a word or phrase suggesting a resemblance, thereby aiding in understanding

Symbol - with respect to Bible teaching or meaning, a symbol can be verbal and is then the same as a metaphor or it can be an object such as a sacrificial animal. Symbols are used both to aid understanding and encourage thoughtful consideration, and they are used as shorthand for various concepts.

9 과 - 예언의 역할

예언의 이중적 목적

1. 타이름 - 격려

고전 14장에 의하면,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안위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3,4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한다” (24,25절). 또한 “권면을 받게 한다” (31절). (벧후 3:1-3을 보라.)

2. 예고 - 경고

예언은 또한 범죄하는 자에게 경고하여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구원받게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한다(히 11:7).

예언은 미래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소망을 굳건히 가지게 하는 것이다.

성서의 예언을 이해하는 원칙

- 예언의 역사적 상황과 그 문맥상의 뜻을 대조하여 문자 그대로 분석할 것.
- 그 예언이 다른 어떤 구절이나 다른 어떤 사람과 사건에 적용되는지 살펴 볼 것.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지 관찰할 것.
- 실제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표현을 구별할 것.
-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궁극적으로 이전에 주신 계시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 계시록의 상징들은 비록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지만, 상징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계속 해석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 상징들은 독자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줄 것이다.

성서 예언의 실례 - 단 2장

느부갓네살 왕이 본 동상

정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 제국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	메대 바사제국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헬라 제국
철로 된 종아리와 발들	로마 제국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딤후 4:3,4).

또한 다음의 구절들도 읽어보라.

신명기 13:1-5, 18:20-22

예레미야 14:14

디모데전서 4:1-3; 베드로후서 2:1-3



Section 9 - The Role of Prophecy

Two-fold purpose of Prophecy

1. Speaking out (forth telling) - Encouragement

Prophecy, according to *1 Corinthians 14*, involves building up, exhortation, and comfort (14:3), edification (14:4), conviction and conversion (14:24,25), and instruction (14:31). See also *2 Peter 3:1-3*, "to stir up your pure minds by way of remembrance."

2. Foretelling - Warning

Prophecy also served to warn man regarding his failure and need of repentance and salvation at the hand of God, while at the same time confirming the certainty of God's plan. (Example: *Hebrews. 11:7*)

Note: Prophecy is not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idle curiosity about future events, but to assist believers to act in faith, to be moved with fear, and to make preparations that will save their families.

Principles in understanding Prophecy

- Analyse the passage in terms of history, context, and its literal meaning.
- Note exactly to whom or to what the passage refers. Observe whether the prophecy is forth telling or foretelling. Is it directed at comfort, exhortation, or edification, or is it speaking about what will happen?
- Distinguish between literal and symbolic predictions.
- Remember that God's ultimate revelation in Christ illuminates all earlier revelations.
- Keep in mind that apocalyptic imagery, as in the book of Revelation, is difficult to interpret but we must be careful when interpreting this figurative language. The imagery would have made sense to the original readers.

Example of fulfilled Prophecy - Daniel 2

Prophecy of Nebuchadnezzar's Image

Head of Gold	Babylon
Breast & Arms of Silver	Medo-Persia
Belly & Thighs of Brass	Greece
Legs of Iron	Rome

Warning against false Prophets

It is recorded for us in *2 Tim 4:3*: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after their own lusts shall they heap to themselves teachers, having itching ears; And they sha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shall be turned unto fables."

See also:

Deuteronomy 13:1-5, 18:20-22

Jeremiah 14:14

1 Timothy 4:1-3; 2 Peter 2:1-3



위대한 선지자들

- 모세
- 엘리야
- 나단
- 이사야
- 예레미야
- 에스겔
- 다니엘
- 그리스도

Some Famous Prophets:

- Moses
- Elijah
- Nathan
-
- Isaiah
- Jeremiah
- Ezekiel
- Daniel
- Christ

10 과- 성서의 개관 3

이스라엘의 역사 (1 부) :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시기는 대략 1000 년 정도에 걸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그는 아랍 국가의 아버지가 되었다.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갖게 된다.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고 후에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뀐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다. 아버란 뜻을 가진 아브람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이다.

애굽에서의 요셉과 이스라엘

야곱은 열 두 아들이 있었고 이들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되었다.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요셉은 그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에 팔렸고, 여러 사건들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기근 때에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다.

요셉을 모르는 새 바로가 왕권으로 통치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번창하였고, 이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사람의 수보다 더 많아질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그 곳에 거하였다. 이 구출은 "출애굽"이라고 알려져 있고 모든 사건은 이 이름으로 된 책에 기록되었다.

광야생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였다. 시내 에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과 경배에 관한 완전한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다. 그는 또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시와 설계를 받았다. 모세가 산에 있을 때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대한 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광야의 생활에서 사람들은 자주 애굽에서의 음식을 그리워했다. 그 곳엔 음식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세에게 불평하고 배반하였다. 이 사건 역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의 성서

욥기

저자: 모세인 것으로 추측함

시기: 대략 BC 1600 년경

요약: 욥기는 구약에서 첫번째 시적인 책이다. 이 책은 한 의로운 사람의 고통을 나타내는데, 부와 가족, 건강을 빼앗긴 욥의 고통을 그와 그 친구들이 설명하고자 애쓴 내용이다.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계속 되고 각각 그 문제 뒤에 숨은 이유에 대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다.

Section 10 – Overview of the Bible 3

The History of Israel (Part I): Abraham to Moses

Abraham Isaac and Jacob

This period covers around 1,000 years.

Abraham had a son by his wife's maid Hagar. The son was called Ishmael and he is the father of the Arab nations.

Later Abraham and his wife Sarah had a son, promised by God – Isaac. He had a son called Jacob whose name was changed to Israel. Thus Abraham was the father of the nation of Israel. Abram's name, which means father, was changed by God to Abraham, father of a multitude.

Joseph and Israel in Egypt

Jacob had twelve sons whose descendants became the twelve Tribes of Israel. One of the sons, Joseph, was sold by his jealous brothers into Egypt, and by a turn of events became a ruler in Egypt. At a time of famine, Joseph arranged for his father and the family to come into Egypt.

The Israelites multiplied in Egypt until a new Pharaoh arose who did not know Joseph, and worried that the Israelites would outnumber the Egyptians, made them slaves. They were in Egypt until God called them out by Moses His servant. Moses led them from slavery and brought them through the Red Sea into the wilderness. This deliverance is known as *The Exodus* and the events are recorded in the book of that name.

In the Wilderness

Moses led the Children of Israel through the wilderness on their way to the Promised Land. At Sinai Moses went up the mountain to receive from God the Ten Commandments, a complete code of laws, which directed their worship and life in every way. He also received instructions and the specifications for building the Tabernacle or tent. Whilst Moses was on the mountain the people made a golden calf, which they worshipped. This idolatry was condemned and God told Moses that He would destroy the people, but Moses pleaded for Israel and God relented. During the time spent in the wilderness the people often longed for the fleshpots of Egypt. However they received Manna and Quails from God as there was no other food for them, but they still murmured, grumbled, and rebelled against Moses. These events are also recorded in the *Book of Exodus*.

Books in this time period

Job

Author: Possibly Moses

Time: around 1600 BC

Summary: Job is the first poetic book of the OT. It relates the anguish of a righteous man as he and his friends struggle to explain the affliction which has befallen Job and which had stripped him of his wealth, his family, and his health. The dialogue continues between Job and his friends as each presents his opinion on the reasons behind such troubles.

옴기의 목적은 “엄정한 처벌”의 믿음을 반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이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벌하신다는 생각이다.

옴의 고통: 1:1-2:13

옴의 설명 1:1-5

옴의 고통 1:6-2:10

옴의 세 친구의 등장 2:11-13

옴과 그 세 친구들 간의 논쟁 3:1-31:40

첫번째 논쟁 3:1-14:22

두 번째 논쟁 15:1-21:34

세 번째 논쟁 22:1-31:40

엘리후의 말 32:1-37:24

옴의 회복 38:1-42:17

옴에 대한 하나님의 첫번째 힐난 38:1-40:5

옴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힐난 40:6-41:34

옴의 순종과 회복 42

출애굽기

저자: 모세

시기: 1650-1500BC

요약: “출애굽”의 제목의 뜻은 “밖으로 나가다” 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엄청난 수적 증가를 기록하였다. 출애굽기는 모세에 대한 소개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노예생활로부터 풀어주시려고 애굽에 보낸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의 율법에 대한 약속을 선포 받는다. 이 성서는 장막을 둘러싸고 경배를 드리는 순서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설명으로 끝을 맺는다. 출애굽기는 모세 5 경중 두 번째 책이다.

이스라엘의 해방 1:1-18:27

소개 1:1-7

애굽에서의 노예생활 1:8-22

구원자를 예비함 2:1-4:31

바로에 대한 모세의 역할수행 5:1-7:7

애굽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기적 7:8-11:10

유월절과 이스라엘의 출발 12:1-15:21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15:22-18:27

시내 산에서의 이스라엘 19:1- 40:38

시내 산에서 계명의 확립 19:1-24:11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지시 24:12-31:18

부서진 십계명과 이의 회복 32:1-34:35

성막을 지음 35:1-39:43

성막의 설립과 봉헌 40:1-38

The purpose of the book of Job is to counter the belief in “Exact Retribution” i.e. that God punishes individuals in varying degrees according to the extent of the sin committed.

Affliction of Job: Ch 1:1 - 2:13

Description of Job: Ch 1:1-5

Affliction of Job: Ch 1:6 - 2:10

Arrival of Job’s Three Friends: Ch 2:11-13

Debates between Job and his three Friends: Ch 3:1 - 31:40

First Cycle of Debate: Ch 3:1 - 14:22

Second Cycle of Debate: Ch 15:1 - 21:34

Third Cycle of Debate: Ch 22:1 - 31:40

The Speeches of Elihu: Ch 32:1 - 37:24

Restoration of Job: Ch 38:1 - 42:17

God’s First Challenge to Job: Ch 38:1 - 40:5

God’s Second Challenge to Job: Ch 40:6 - 41:34

Job’s Submission and Restoration: Ch 42

Exodus

Author: Moses

Time: 1650-1500 BC

Summary: The title “Exodus” means “a going out”. It records the great numerical growth of the Israelites during their enslavement in Egypt. It introduces Moses and records the plagues God brought upon Egypt to secure His peoples release from the bondage of slavery. From this point, the people are given the proclamations of the covenant of the Law at Mt. Sinai. The book concludes with a description of the order of worship centred around the Tabernacle and the Law of Moses. Exodus is the second of the five books of the Pentateuch.

The Liberation of Israel: Ch 1:1 - 18:27

Introduction Ch 1:1-7

Bondage in Egypt Ch 1:8-22

Preparation of the Deliverer Ch 2:1 - 4:31

The Mission of Moses to Pharaoh Ch 5:1 - 7:7

God’s Wonders in the land of Egypt Ch 7:8 - 11:10

The Passover and the departure of Israel Ch 12:1 - 15:21

Israel in the Wilderness Ch 15:22 - 18:27

Israel at Sinai: Ch 19:1 - 40:38

Establishment of the covenant at Sinai Ch 19:1 - 24:11

Directions for the Tabernacle and the Priesthood Ch 24:12 - 31:18

The Covenant broken and restored Ch 32:1 - 34:35

Building of the Tabernacle Ch 35:1 - 39:43

Erection and Consecration of the Tabernacle Ch 40:1-38

레위기

저자: 모세

시기: 1500BC

요약: 모세오경중 세 번째 책은 야곱의 열 두 아들 중 하나인 레위에게서 이름을 땄고, 이 지파는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임명 받았다. 레위기는 유대인의 경배와 종교적 활동에 관련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담고 있다.

접근: 교제에 바탕을 둔 희생 1:1- 17:16

제물 (죄를 가리움) 1:1-6:7

제사장 직분 (중재) 6:8- 10:20

백성 (정화) 11:1- 16:34

제단 (화해) 17:1-16

나아감: 교제의 의무(분리) 18:1-27:34

백성을 위한 규칙 18:1-20:27

제사장을 위한 규칙 21:1- 22:33

국가를 위한 규칙 23:1-24:23

땅을 위한 규칙 25:1-27:34

Leviticus

Author: Moses

Time: 1500 BC

Summary: The third book of the Pentateuch takes its name from Levi, who was one of the 12 sons of Jacob, and whose family was ordained by God to minister to Him as priests. It contains laws which pertained to the everyday life of the Jews regarding worship and religious activities.

Access: Sacrifice as the Basis of Fellowship: Ch 1:1 -17:16

The Offerings (Sin covering) Ch 1:1 - 6:7

The Priesthood (Mediation) Ch 6:8 - 10:20

The People (Purification) Ch 11:1 - 16:34

The Altar (Reconciliation) Ch 17:1-16

Walk: The Obligations of Fellowship (Separation): Ch 18:1 - 27:34

Regulations for the People Ch 18:1 - 20:27

Regulations for the Priests Ch 21:1 - 22:33

Regulations for the Nation Ch 23:1 - 24:23

Regulations for the Land Ch 25:1 - 27:34

11 과 - 성서의 개관 4

이스라엘의 역사 (2 부): 모세부터 다윗까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열 두 정탐꾼을 보내어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그 땅에 40 일간 있었고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였다.

두 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나머지는 자신들이 정복할 수 없는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에 분노하셨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 총 40 년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서 보낸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을 방황하게 하셨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지도자로써 임명되었다. 그는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고 여리고 성을 포위하였다. 여리고의 함락에 대한 내용은 지극히 놀라운 이야기이다. (여호수아 5 & 6)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

여호수아가 생을 마칠 때쯤 그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겟으로 불러모았다. 그의 생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좇았지만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지시와 명령을 주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상기시켰다. 또한 그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업적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경고하였다. (여호수아 23 & 24) 그는 백성들에게 빠른 결정을 재촉하였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수 24:15)

사사의 때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땅에 설립되었고 이 시기는 사사라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지도되었다.- 사사 중에는 잘 알려진 삼손과 기드온이 있다.

사사 중 몇몇은 신실했고 몇몇은 악했다. 또 다른 사사들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적을 패배시키려는 시도는 했지만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진 않았다.

사사기는 그 국가의 노력과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사의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덕적 부패가 많이 나타났다. 결국 백성들은 다른 국가들처럼 그들을 다스릴 왕을 원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의 후계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사울 왕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는 처음에는 분별 있는 왕이었지만 점점 은혜에서 멀어져 갔다.

Section 11 – Overview of the Bible 4

The History of Israel (Part II): Moses to David

Approaching the Promised Land

When they came near to the land of Canaan they sent out twelve spies to check out the situation. They were in the land for 40 days, and returned with huge bunches of grapes, and a report that the *“land was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wo spies said they could take the land, but the others said there were giants there who were too great for them to conquer. God was angry at this disbelief and sent them back to the wilderness where they were condemned to wander for a total of 40 years (one year for every day the spies were in the land).

Joshua was appointed to succeed Moses as the leader who would conquer the inhabitants of the land. He led the people across the River Jordan and besieged the city of Jericho. The account of the siege and fall of Jericho is most remarkable (*Joshua 5 & 6*).

The Last Days of Joshua

Towards the end of his life Joshua summoned all the tribes of Israel to Shechem. During his lifetime the people had followed God, but before he died, Joshua wanted to give them final directions and commands. He reminded them of God's love and of all that He had done for them in the past, and warned them that they could never do without God's help. *Joshua 23 & 24*. He urged them to make a decision: *“choose you this day whom ye will serve” (Joshua 24:15)*

The Period of the Judges

The Israelites were eventually established in the land, and at this time were directed by a group of men known as the Judges – one famous example is Samson, another is Gideon.

Some of these judges were faithful, some were evil, and others were good and bad on different occasions. When Joshua died the conquest of the land was by no means complete, but although attempts were made to defeat their enemies.

The *Book of Judges* is a record of the nation's efforts and failures. The whole period of the Judges is marked by a turning away from God, and a decline in the moral behaviour of the people. Eventually the people wanted a king to rule over them like the other nations. The last Judge was Samuel, who anointed the first King of Israel, Saul, and also Saul's successor David.

King Saul

Saul, the son of Kish of the tribe of Benjamin was chosen, and Samuel the prophet anointed him as king. He did start out as a reasonable monarch, but rapidly fell from grace.

다른 왕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복잡했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몇 번이고 그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해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유명한 사건은 다윗과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윗의 통치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내전이 끝났다. 다윗의 정책은 이제 분열된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이 수도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여부스족속에 가서 빼앗았다.

예루살렘을 정치적 수도로 만든 후 그는 그 곳을 종교적 수도로 만들기 위해 그 도시에 언약궐을 가져왔다.

왕국이 통합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집을 짓길 원하였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은 그 집을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신 그의 아들이 그 집을 지을 것이고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었다. (삼하 7)

다윗은 헷사람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빼앗음으로 그는 은혜에서 멀어졌다. 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였고 왕은 곧 회개를 하였다. 다윗의 시 가운데 그가 죄에 휩싸여서 기록한 시편 32& 51 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행 13:22) 이라 불리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삼하 1-24 를 보자)

그가 죽기 직전,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와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새.....” 라고 말하였다.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대상 28:4-10)

Another king, David son of Jesse, was selected by God and anointed by Samuel. Relations between Saul and David were precarious, and Saul was jealous and made several attempts to kill David. However there were occasions when David had the chance to take Saul's life, but he resisted these temptations. During this period the Philistines were at war with Israel and their defeat when David killed Goliath was a notable incident, which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lives of David, Saul, and Saul's son Jonathan (See *1 Samuel 8–31*)

The reign of David

After Saul's death there was civil war in Israel which ended when Saul's son Ish-Bosheth was killed. David's policy now was to restore the divided kingdom. He decided that Jerusalem was a suitable site for a capital and captured it from the Jebusites.

Having made Jerusalem the political capital he now proceeded to make it the religious capital by bringing the Ark of the Covenant into the city.

The kingdom was now consolidated and David wanted to build a house for the ark of the Lord, but Nathan the prophet told the king that he would not build the house – his son would be the builder and the kingdom would last for ever (*2 Samuel 7*)

David fell from grace when he committed adultery with Bathsheba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Nathan forced David to acknowledge this sin and the king repented. *Psalms 32 & 51* written by David when he was guilt-stricken indicates how he was called 'a man after God's own heart' *Acts 13:22* (See *2 Samuel 1–24*)

Shortly before he died, David said: "...the Lord...hath chosen my son Solomon to sit upon the throne of the kingdom of the Lord over Israel". And David commanded Solomon to erect the temple that he had wanted to build (*1 Chronicles 28:4–10*).

이 시기의 성서

민수기

저자: 모세

시기: 1500-1460 BC

요약: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번째 책이며, 백성을 세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수를 센다는 뜻을 가진 “Arithmathai”란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따온 역사 기록이다. 그러나 민수기는 유대인들에게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와 광야에서 벌인 반역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반역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당시 20살 이상이었던 자들 중 단지 두 명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책은 38년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광야에서의 준비 1:1- 10:10

싸울만한 자들의 인구조사 1:1-54

군대 진행의 순서 2:1-34

직분 맡은 자들의 봉사 3:1-4:49

진 안이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됨 5:1-31

하나님께로 구별됨 6:1-27

하나님과 화목함 7:1-88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7:89-10:10

광야에서의 진노 10:11- 19:22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행함 10:11-36

불평과 불만 11:1-12:16

믿음의 부족과 거절 13:1-14:45

다음 세대를 위한 가르침 15:1-41

하나님의 임명에 대한 반역 16:1- 19:22

광야에서의 옹호 20:1-36:13

40년째: 가데스에서 호르까지 20:1-21:3

에시온게벨을 거쳐 모압까지 감 21:4-22:1

발람의 저주가 축복이 됨 22:2-25:18

약속의 땅에 들어 갈 준비 26:1-36:13

Books in this time period

Numbers

Author: Moses

Summary: 1500-1460 BC

Time: Numbers is the fourth book of the Pentateuch. It is a historical book taking its Greek name from the word “Arithmathai”, meaning numbering, because two censuses were taken to number the people. However, it was known to the Jewish people as “In the Wilderness”, because it tells of the rebellion of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after the exodus from their bondage in Egypt. Because of this rebellion, only two men of those over 20 years old when they left Egypt were allowed to enter into the promised land of Canaan. The book covers a 38 year period.

Preparation in the Wilderness: Ch 1:1 - 10:10

Census of Warriors Ch 1:1-54

Order of Worshippers Ch 2:1-34

Service of Workers Ch 3:1 - 4:49

The Camp Cleansed from Defilement Ch 5:1-31

Separated to God Ch 6:1-27

Co-operating with God Ch 7:1-88

God with His People Ch 7:89 - 10:10

Provocation in the Wilderness: Ch 10:11 - 19:22

Journeying at God's Command Ch 10:11-36

Murmuring and Discontent Ch 11:1 - 12:16

Lack of Faith and Rejection Ch 13:1 - 14:45

Instruc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Ch 15:1-41

Revolt Against God's Appointments Ch 16:1 - 19:22

Vindication in the Wilderness Ch 20:1 - 36:13

The Fortieth Year: From Kadesh to Hor Ch 20:1 - 21:3

To Moab via Ezion-Geber Ch 21:4 - 22:1

Balaam's Curse Turned into a Blessing Ch 22:2 - 25:18

Preparations to Enter the Land Ch 26:1 - 36:13

신명기

저자: 모세

시기: 1460 BC

요약: 이 책은 모세오경 중 마지막 책이다. 이 책의 그리스 이름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고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의 반복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받은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죽기 전 그 국가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었다. 이 시기에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 중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므로 율법의 반복은 새 세대에게 지극히 중요한 이익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권고: 회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돌보심 1:1-4:43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좌절 1:1-46

38 년간의 방황 2:1-3:29

새 세대에게 준 과거 세대의 교훈 4:1-40

도피할 성을 약속 4:41-43

두 번째 권고: 재음미- 현 세대가 주의해야 할 것들 4:44- 26:19

거룩한 약속의 재음미 4:44- 5:33

약속이 요구하는 것 6:1- 26:19

세 번째 권고: 경고- 국가의 중대한 책임 27:1-8:68

그 땅에서의 기념식 27:1-26

율법의 축복 28:1-14

율법의 저주 28:15-68

네 번째 권고: 언약-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조건 29:1 30:20

약속을 받은 백성 29:1-15

약속의 불이행에 대한 벌 29:16-29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 30:1-20

다섯 번째 권고: 조언- 모세의 마지막 충고 31:1-23

여섯 번째 권고: 지시- 증거로써 보존된 기록된 율법 31:24-29

일곱 번째 권고: 노래: 이스라엘을 대향한 증인들의 시 31:30-32:52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어리석음이 반복됨 31:30-32:43

노래의 속편 32:44-52 (출 15 과 비교)

여덟 번째 권고: 지파들의 축복과 미래의 영광 33:1-29

소개- 33:1-5

축복- 33:6-25

축복의 원천과 요약 33:26-29

아홉 번째: 비문 – 죽음 -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심 34:1-12

Deuteronomy

Author: Moses

Time: 1460 BC

Summary: This book is the last of the Pentateuch. Its Greek name means “second law” and was the repetition of the law recorded in Leviticus. It was given on the plains of Moab just before the Nation of Israel entered into the promised land of Canaan under the command of Joshua. This was Moses’ last address to the whole Nation before he died. At this time only two men were left of the generation which escaped from Egypt. Therefore, the repetition of the law was extremely important to the welfare of the new generation.

First discourse: Retrospect - Israel’s faithlessness and God’s care: Ch 1:1 - 4:43

Failure at Kadesh-Barnea Ch 1:1-46

Thirty-eight Years of Wandering Ch 2:1 - 3:29

Lessons of the Past Impressed Upon the New Generation Ch 4:1-40

Appointment of Cities of Refuge Ch 4:41-43

Second discourse: Review - What the present generation should heed Ch 4:44 - 26:19

Review of the Divine Covenant Ch 4:44- 5:33

What the Covenant Demands Ch 6:1 - 26:19

Third discourse: Warning - the Nation’s solemn responsibility: Ch 27:1 - 8:68

A Ceremony of Remembrance in the Land Ch 27:1-26

The Blessings of the Law Ch 28:1-14

The Cursings of the Law Ch 28:15-68

Fourth discourse: Covenant - terms that would ensure Israel’s continued occupancy of the Land: Ch 29:1 - 30:20

With Whom the Covenant was Made Ch 29:1-15

Punishment Resulting from Breaking the Covenant Ch 29:16-29

Divine Mercy in Spite of Failure Ch 30:1-20

Fifth discourse: Counsel - Moses’ final words of advice Ch 31:1-23

Sixth discourse: Instruction - the written Law preserved as a witness: Ch 31:24 -29

Seventh discourse: Song: a Psalm of witness against Israel - Ch 31:30 - 32:52

Repetition of Divine Goodness and Human Folly Ch 31:30 - 32:43

Sequel to the Song - Ch 32:44-52 (compare Ex. 15)

Eighth discourse: Blessing and Future Glory of the Tribes - Ch 33: 1-29

Introduction - Ch 33:1-5

The Blessings - Ch 33:6-25

The Source and Summary of the Blessings - Ch 33:26-29

Ninth section: An epitaph - death - God buries Moses: Ch 34:1-12

여호수아

저자: 여호수아

시기: 1460-1420BC

요약: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다. 이 책은 여호수아의 군대지휘 아래 그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복과 차지를 설명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깨끗함과 그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위해 그 땅의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거나 멸망 시킬 것을 명백히 선언하셨다.

약속의 땅에 들어감 1:1- 5:12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수아의 임무 1:1-9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군사동원 1:1-18

정탐꾼들의 임무 2:1-24

요단강을 건넌 3:1- 5:1

할례와 유월절 관례의 재개 5:2-12

약속의 땅의 정복 5:13-12:24

여호와와의 군대장관의 출현 5:13-6:5

중앙 전쟁 6:6-8:29

그 땅의 율법으로써의 이스라엘의 언약의 확립 8:30-35

서쪽 군사행동 9:1-10:43

북쪽 군사행동 11:1-15

정복의 요약 11:16-23

부록: 정복한 왕의 목록 12:1-24

약속의 땅의 분배 13:1-22:34

땅을 분배하라는 여호와와의 명 13:1-7

요단 강 서쪽의 지파들의 구역 13:8-33

가나안 땅의 분배의 시작 14:1-15

유다 지파의 구역 15:1-63

요셉 지파의 구역 16:1-17:18

나머지 일곱 지파의 구역 18:1-19:51

레위 지파의 기업 20:1-21:42

점령과 분배의 요약 21:43-45

부록: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이탈 22:1-34

여호수아의 유언 23:1-24:33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23:1-16

세겔에서의 언약의 갱신 24:1-28

부록: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후의 이스라엘의 행위 24:29-33

Joshua

Author: Joshua

Time: 1460-1420 BC

Summary: Joshua was selected by God to succeed Moses and lead the nation into the Promised land. The book outlines the conquest and occupation of the land by Israel under his military leadership. God explicitly states that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were to be utterly driven out or destroyed in order to assure spiritual purity and complete devotion to God.

Entrance into the Promised Land: Ch 1:1 - 5:12

God's Commission to Joshua Ch 1:1-9

Joshua's Mobilisation for crossing the Jordan Ch 1:10-18

Mission of the spies Ch 2:1-24

Crossing of the Jordan Ch 3:1 - 5:1

Renewal of Circumcision and Passover observance Ch 5:2-12

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Ch 5:13 - 12:24

Appearance of the Captain of the Lord's Host Ch 5:13 - 6:5

The Central Campaign Ch 6:6 - 8:29

Establishment of Israel's covenant as the Law of the Land Ch 8:30-35

The Southern Campaign Ch 9:1 - 10:43

The Northern Campaign Ch 11:1-15

Summary of the Conquest Ch 11:16-23

Appendix: Catalogue of the defeated kings Ch 12:1-24

Division of the Promised Land: Ch 13:1 - 22:34

God's command to divide the land Ch 13:1-7

Territory of the tribes west of the Jordan river Ch 13:8-33

Beginning of the division of Canaan Ch 14:1-15

Territory of the tribe of Judah Ch 15:1-63

Territory of the Joseph tribes Ch 16:1 - 17:18

Territories of the seven remaining tribes Ch 18:1 - 19:51

Inheritance of Levi Ch 20:1 - 21:42

Summary of the conquest and apportionment Ch 21:43-45

Appendix: Departure of the tribes east of the Jordan river Ch 22:1-34

Joshua's Final Speeches: Ch 23:1 - 24:33

Joshua's Farewell address to the leaders of Israel Ch 23:1-16

Renewal of the Covenant commitment at Shechem Ch 24:1-28

Appendix: Death of Joshua and subsequent conduct of Israel Ch 24:29-33

사사기

저자: 사무엘로 추정함

시기: 1420-1140BC

요약: 사사기는 “우승자 또는 구원자” 라는 뜻으로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사울의 군주정치가 확립된 시기까지를 포함한다. 이 시기는 그 땅의 모든 거민 들을 내쫓는데 실패한 결과로써 이스라엘의 극한 부도덕이 성행한 때이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지시하고 심판할 “사사”들을 세우셨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단계로 끝맺는다.

소개 1:1-2:5

사사 때의 정치적 환경 1:1-36

사사 때의 종교적 환경 2:1-5

사사기의 역사 2:6-16:31

이스라엘이 적대국가의 정복에 실패함 2:6-3:6

이스라엘의 압제자와 구원자 3:7-16:31

사사기 때의 무법적 상태 17:1-21:25

부록 1: 교리의 부패 17:1-18:31

부록 2: 관례의 부패 19:1-21:25

룻기

저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시기: BC 1250 년

요약: 룻기의 연대는 사사의 때이다. 룻기는, 국가의 쇠약과 부도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다시 회복이 될 때에 중심 역할을 할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룻의 자손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다. 저자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룻기는 사사의 때 후에 기록되어 그 시기의 관습 등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룻의 고귀한 결정 1:1-22

룻의 신실한 수고 2:1-23

룻의 덕행의 나타남 3:1-18

룻의 축복받은 보상 4:1-22

Judges

Author: Possibly Samuel

Time: 1420-1140 BC

Summary: The book of Judges, which means “Champions or Rescuers”, covers the period between the death of Joshu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onarchy under Saul. This was a time of great immorality as the result of the failure of the Israelites to drive out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There were “judges” set up by God who were to direct and judge the affairs and people of Israel. The book of Judges closes by setting the stage for the people’s desire for a king.

Introduction: Ch 1:1 - 2:5

Political background of the period of the Judges Ch 1:1-36

Religious background of the period of the Judges Ch 2:1-5

History of the Judges: Ch 2:6 - 16:31

Israel’s failure to subdue the enemy nations Ch 2:6 - 3:6

The oppressors and the deliverers of Israel Ch 3:7 - 16:31

Lawless conditions during the period of the Judges: Ch 17:1 - 21:25

Appendix 1: Corruption of Doctrine Ch 17:1 - 18:31

Appendix 2: Corruption of Practice Ch 19:1 - 21:25

Ruth

Author: Not known for certain

Time: 1250 BC

Summary: The book of Ruth is dated during the period of the Judges. It shows that in a time of national decline and immorality, God preserved a remnant who could serve as the core for a future revival. This would be accomplished in Ruth’s descendant, David, from whom the Messiah would come. No indication of the author is given. It is thought that the book was written after the period of the Judges and describes customs of that time period.

Ruth’s Noble Choice Ch 1:1-22

Ruth’s Faithful Service Ch 2:1-23

Ruth’s Virtuous Appeal Ch 3:1-18

Ruth’s Blessed Reward Ch 4:1-22

사무엘 상하

저자: 사무엘, 나단, 갓

시기: 1150-1000BC

요약: 사무엘상은 역사를 기록한 책의 첫 번째 부분이고 이스라엘이 허술한 지파들의 동맹으로부터 강하고 결합된 국가로 변모함을 그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것을 묘사한다. 또한 사울의 지배가 퇴화되고 그의 왕위가 하나님께 합한 자 다윗에게 넘어가는 장면을 설명한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사무엘서가 히브리 필기사에 의해 한 권의 책으로 쓰여졌다. 두 번째 책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다윗의 통치, 이웃 나라들의 점령, 그리고 다윗 자신의 가족 안에서 일어난 배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리는 다윗의 축복으로 끝맺는다.

사무엘의 삶 1:1-7:17

사무엘의 탄생과 유년기 1:1-4:1a

언약 궤를 획득하여 다시 가져옴 4:1b- 7:1

블레셋에게 승리함 7:2- 17

사울의 삶 8:1- 14:52

이스라엘의 왕 요구 8:1-22

사울의 정치적 삶 9:1-12:25

독립 전쟁 13:1- 14:52

다윗의 초기의 삶 15:1- 삼하 20:26

사울이 사무엘에게 버려짐 15:1- 35

다윗이 왕으로 임명됨 16:1- 13

사울의 궁정에서의 다윗 16:14- 19:17

다윗의 추방 19:18- 31:13

헤브론에서의 왕 다윗 삼하 1:1- 4:12

예루살렘에서의 왕 다윗 5:1- 8:18

왕으로써의 다윗의 삶 9:1-20:26

다윗의 여생 21:1- 24:25

기근 21:1- 14

영웅적인 업적 21:15-22

다윗의 시 22:1-51

다윗의 유언 23:1-7

영웅적인 업적 23:8-39

인구조사와 재앙 24:1- 25

1 & 2 Samuel

Author: Samuel, Nathan and Gad

Time: 1150-1000 BC

Summary: 1 Samuel is the first of the two historical books which illustrate Israel's transition from a loose confederation of tribes to a strong and united nation. It portrays the anointing of the first king of Israel, Saul, by a great prophet, Samuel. It recounts the degenerating reign of Saul and the succession to his throne by David, a man after God's own heart. In the original Hebrew text, the books of Samuel were considered one book by the Hebrew scribes. The second book begins with the death of Saul and the ascension of David to the throne. The rest of the book records the reign of David, his conquest of neighbouring lands, and the political rebellions from within his own family. It concludes with his blessing upon his son Solomon.

The Life of Samuel: Ch 1:1 - 7:17

The birth and childhood of Samuel Ch 1:1 - 4:1a

The capture and return of the ark - Ch 4:1b - 7:1

The victory over the Philistines - Ch 7:2-17

The Life of Saul: Ch 8:1 - 14:52

Israel's request for a king Ch 8:1-22

Political life of Saul Ch 9:1 - 12:25

War of independence Ch 13:1 - 14:52

The early Life of David: Ch 15:1 - 2 Sam. 20:26

Saul rejected by Samuel Ch 15:1-35

David anointed to be king Ch 16:1-13

David in the court of Saul Ch 16:14 - 19:17

David in exile Ch 19:18 - 31:13

David, king at Hebron 2 Sam. 1:1 - 4:12

David, king at Jerusalem Ch 5:1 - 8:18

David's life as King Ch 9:1 - 20:26

The Last Days of David: Ch 21:1 - 24:25

The famine Ch 21:1-14

Heroic exploits Ch 21:15-22

David's psalm Ch 22:1-51

David's testament Ch 23:1-7

Heroic exploits Ch 23:8-39

Census and plague Ch 24:1-25

시편

저자: 다윗 외

시기: 1000-700BC

요약: 시편은 다섯 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책은 그 분류대로 나뉘어져 있다. 시편은 히브리 시의 형식이고 대다수가 노래로 불려졌다. 시편의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리고 미래 왕국과 그 영광에 대한 장면을 담고 있다. 다윗은 시편의 절반 정도를 쓴 작가로 기록되었다. 다른 몇 사람들이 15 편 정도를 기록하였고, 나머지는 미상이다.

1 권	시편 1- 41	사람에 대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권고
2 권	시편 42-72	이스라엘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
3 권	시편 73- 89	성소와 율법에 대해
4 권	시편 90-106	이스라엘과 이 땅의 국가들에 대해
5 권	시편 107-150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

Psalms

Author: David and others

Time: 1000 - 700 BC

Summary: The Psalms are divided into five books, each according to a specific classification. The Psalms are a form of Hebrew poetry and many of them were accompanied by music. The content of the Psalms includes Messianic prophecy, praise to God and visions of the future Kingdom and its Glory. David is named as author of approximately half of the Psalms. A handful of other men are responsible for approximately 15, while the remaining are unnamed.

Book 1	Psalms 1-41	Concerns Man - Gives the Counsel of God to Man
Book 2	Psalms 42-72	Concerns Israel - The Counsel of God to Israel
Book 3	Psalms 73-89	Concerns the Sanctuary and the Law
Book 4	Psalms 90-106	Concerns Israel and the Nations of the Earth
Book 5	Psalms 107-150	Concerns God and His Word

12 과 - 학습 도구 I

콘코단스와 원어 렉시콘들

콘코단스 - 성서상의 기본 단어들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고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나열한 것이다.

렉시콘 - 사전과 유사함. 용어와 그 의미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콘코단스 사용법

어떤 구절 또는 단어가 떠오를 때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할 때 유용하다..

어떤 단어와 관련되는 다른 구절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할 때 유용하다.

추천할 만한 콘코단스: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Young's Analytical Concordance

Englishman's Hebrew -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Englishm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Cruden's

디렉스 바이블 www.misoft.co.kr (Software for Computers)

렉시콘 사용법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어진 용어가 사용되는 다른 용례를 보여준다.

추천할 만한 렉시콘

Strong's

Young's

Gesenius' Hebrew-Chaldee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은 번역본과 다른 곳이 있다

1. 창 6:14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3722]그 안팎에 **칠하라** [3724]

역청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Strong's 콘코단스에 따르면, 처음 나타난 것은 #3722이며, 두번째 나타난 것은 #3724이다. 이를 Strong's 렉시콘으로 보면,

#3722 - 카파르 ; (특히 역청으로) '덮다'; 상징적으로 '속죄하다', 또는 '용서하다', '달래다', 또는 '지워버리다':- 가라앉히다,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 취소하다, 용서하다, 자비롭다, 진정시키다, 칠하다, 정하게하다, 제거하다, 화목하다(화목을 이루다), 화목
#3724 - 코페르 3722에서 유래; 본래 의미는 '덮개', 즉(문자적으로) 마을(안으로 '둘린' 것으로서); (특히) '역청'('칠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과 '헤나' 식물(염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속전':- 뇌물, 역청, 몸값, 속전, 만족, 총액, 마을

Section 12 - Study Tools I

Concordances and Lexicons:

Concordance - an alphabetical index of all the principal words in the Bible listed with their immediate contexts

Lexicon - is like a dictionary; it is an alphabetical arrangement of the words in a language with their definitions

Using a Concordance:

Useful when trying to locate a verse when you just remember a word or phrase of that verse.

Useful in performing word studies by looking at other passages which might relate.

Recommendations: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includes lexicons)

Young's Analytical Concordance

Englishman's Hebrew -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Englishm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Cruden's

On-Line Bible (Software for Computers)

Using a Lexicon:

Its principal use is for looking up definitions

It provides insight into how else the given word is used

Recommendations:

Strong's

Young's

Gesenius' Hebrew - Chaldee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hayer's Greek -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When Hebrew and Greek make a difference:

1. Genesis 6:14

"Make thee an ark of gopher wood; rooms shalt thou make in the ark, and shalt **pitch** [3722] it within and without with **pitch** [3724]."

There are two different words for "pitch." According to Strong's concordance, the first occurrence is 3722 and the second one is 3724. Looking it up in Strong's Lexicon:

3722 - rpk kaphar, kaw-far'; a primary root; to cover (spec. with bitumen); fig. to expiate or condone, to placate or cancel, appease, make (an) atonement, cleanse, disannul, forgive, be merciful, pacify, pardon, purge (away), put off, (make) reconcile (-liation).

3724 - rpk kopher, ko'-fer; from 3722; prop. a cover, i.e. (lit.) a village (as covered in); (spec.) bitumen (as used for coating), and the henna plant (as used for dyeing); fig. a redemption price:- bribe, camphire, pitch, ransom, satisfaction, sum of money, village.

2. 요한복음 21:15-17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25]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5368]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25]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5368]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5368]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 [5368]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두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 하나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다. 그리스도는 #25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5368을 사용하셨다. 이를 스트롱 콘코단스를 통해 찾아보자.

#25 - 아가파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 의미로) '사랑한다', 사랑받는; 5368과 비교

#5368 - 필레오 - 5384에서 유래 - 친구가 되다(【개인이나 물질】을 좋아하는), 즉 '애정을 가지다(감정이나 느낌이라는 문제와 같은 개인의 애착을 표시:반면 25는 원리, 존경과 예절 같은 문제에서 다루는 판단과 사려 깊은 동의를 더 폭넓게 포함; 두 단어는 각각 2309와 1014, 혹은 2372와 3563과 관련됨, 전자는 마음으로 후자는 이성으로 하는 것) 입맞추다. (상냥함의 표시로)

2. John 21:15-17

*“So when they had dined, Jesus saith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nas, **lovest** [25] thou me more than these? He saith unto him, Yea, Lord; thou knowest that I **love** [5368] thee. He saith unto him, Feed my lambs.*

*He saith to him again the second time, Simon, son of Jonas, **lovest** [25] thou me? He saith unto him, Yea, Lord; thou knowest that I **love** [5368] thee. He saith unto him, Feed my sheep.*

*He saith unto him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nas, **lovest** [5368] thou me?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said unto him the third time, **Lovest** [5368] thou me? And he said unto him, Lord, thou knowest all things; thou knowest that I **love** [5368] thee. Jesus saith unto him, Feed my sheep.”*

Two different words are used for “love” in this passage. Christ uses one and Peter another. Christ uses 25 and Peter 5368. Looking it up in Strong’s Concordance we have:

25 - agapaw agapao, ag-ap-ah’-o; perh. from agan (much) [or comp. 5689]; to love (in a social or moral sense):- (be-) love (ed). Comp. 5368

5368 - filew phileo, fil’-eh’-o; from 5384; to be a friend to (fond of [an individual or an object]), i.e. have affection for (denoting personal attachment, as a matter of sentiment or feeling; while 25 is under, embracing espec. the judgement and the deliberate assent of the will as a matter of principle, duty and propriety: the two thus stand related very much as 2309 and 1014, or as 2372 and 3563 respectively; the former being chiefly of the heart and the latter of the head); spec. to kiss (as a mark of tenderness):- kiss, love.

13 과 – 성서의 개관 5

이스라엘의 역사(3 부): 솔로몬에서 북방 추방까지

솔로몬의 통치

다윗 왕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 가장 현명했다고 여겨지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기에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갖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위대한 성전을 건립했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은 위대한 왕이었으나 모든 부귀와 세상적인 경험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넓은 길을 찾았다.

성서는 솔로몬이 병거, 마부와, 말을 애굽으로부터 모아 들였고 그 자신 역시 열방의 왕들을 닮아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것은 비극적인 이야기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솔로몬은 지혜와 변하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신에 늙고 어리석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왕국의 분열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왕으로써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면서, 그가 솔로몬이 부과시켰던 몇몇 법칙과 조례를 완화하기를 바랐다. 르호보암은 이를 거부하였고 아버지보다 더욱 가혹한 통치자가 될 것을 암시했다. 다윗 집안에서 분리되어 나온 여로보암의 주도로 10 지파의 반역이 일어나 세겜을 중심으로 분열된 왕국이 수립되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북방왕국의 백성을 막기 위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각각 우상을 세웠다. 새로운 제사장 제도와 제사가 만들어졌으므로 북방과 남방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겨났다. 국가는 분열되었다. 북방의 10 지파가 이스라엘(때로는 에브라임)로 불리고 남방의 2 지파는 보통 유다로 불렸다. 북방과 남방은 외부세력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는 갈등 속에 있었다.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대단했던 왕은, 아마도 바알신 이교도의 대 제사장이며 시도니아의 왕이었던 에스-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던 아합일 것이다. 아합은 바알숭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에게 드리는 제사를 일치시키려고 하였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정죄함과 동시에 아합과 그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한다.

Section 13 – Overview of the Bible 5

The History of Israel (Part III): Solomon to Northern Exile

The Reign of Solomon

King David had a son who was called Solomon who was noted for being the wisest man to live upon the earth. Solomon was granted riches and glory - the kingdom of Israel was at its height. Solomon built the great temple that was filled by God's glory.

He was a great king for a period of time, but all the wealth and worldly experience began to have its effect. He looked for other avenues to fulfil his natural desires.

The Bible tells us that Solomon gathered together chariots, horsemen and horses from Egypt, and became like the kings of the nations about him. In effect, he turned his back on God.

It is a tragic story and carries an important lesson for us today. Instead of showing wisdom, stability and leadership, Solomon became an old and foolish king and did not keep God's covenants.

The Divided Kingdom

After the death of Solomon, his son Rehoboam was the rightful successor and Israel were prepared to accept him as king, provided that he relaxed some of the rules and conditions imposed by Solomon. Rehoboam refused and indicated that he would be a harsher ruler than his father. There was a revolt of ten tribes, led by Jeroboam, who separated them from the House of David and set up a separate kingdom based at Shechem.

In order to prevent members of the Northern Kingdom from going to Jerusalem to worship, Jeroboam set up two idols, one at Bethel and the other in Dan. A new priesthood was established and new feasts were devised so that the gulf between North and South was complete. The nation was divided. The Northern ten tribes were known as Israel (sometimes Ephraim) whilst the Southern two tribes were usually referred to as Judah. There were continual conflict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s well as wars with foreign powers.

The Times of Ahab and Elijah

Perhaps the greatest of all of the kings of Israel was Ahab who married Jezebel daughter of Eth-Baal, King of the Zidonians and high priest of the heathen god Baal. Ahab tried to reconcile the worship of Yahweh - the God of Israel, with that of Baal. The prophet Elijah came on to the scene and condemned the worship of Baal and issued a challenge to Ahab and the people: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왕상 18:21

바알 선지자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헛되이 돌아갔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의 능력을 보여 주셨다. (왕상 18 장을 보라)

엘리사와 시리아인들

아합이 시리아인들과의 전투에서 죽자 아하시야가 뒤를 이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의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던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다. 그가 이루어낸 중요한 일중에 하나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친 것이었다. 그는 요단강에 일곱번 몸을 담그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왕하 5 장을 보라)

북방왕국의 멸망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교도 국가들을 사용하셨다. 그 당시의 가장 크고 무서운 나라는 앗시리아였다. 하나님은 앗시리아를 통해 북방 왕국을 멸망시키셨고 고대 세계 도처에 유대인이 흩어지게 만드셨다. 앗시리아인들은 정복당한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앗시리아에게 멸망 당한 후에 이스라엘로 강제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방 지역 지파들의 제사 형태는 매우 난잡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사마리아가 북방 왕국의 수도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북방 왕국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사마리아인

열왕기하 17 장에 이들의 부패를 염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 왕하 17:32 -33

이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의 이해를 돕는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 요 4 : 22

끝맺는 말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황금기는 분열, 부도덕, 거짓 신을 숭배하는 시기로 이어졌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 처참하게 전복되었고 유다 역시 나은 점은 없었지만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다

"Elijah went before the people and said,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inions?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Baal is God, follow him.'" But the people said nothing." 1 Kings 18:21

The priests of Baal called in vain for their god to perform a miracle, but the God of Israel demonstrated His power in a miraculous way. (See *1 Kings 18*)

Elisha and the Syrians

Ahab was killed in battle by the Syrians and was succeeded by Ahaziah. Elijah was succeeded by Elisha who ministered at the time of various troubles between Israel and Syria. One of the important events of his reign was the healing from leprosy of the Syrian Captain – Naaman, who was required to dip himself seven times in the River Jordan. (See *2 Kings 5*)

The Destruction of the Northern Kingdom

God used heathen nations to bring punishment upon Israel and Judah. The greatest and most feared nation during this period was Assyria. God used the Assyrians to destroy the Northern Kingdom and to disperse the Jews throughout the ancient world. The Assyrians had a practice of settling their conquered victims in other lands. So many peoples from different lands were deported to Israel after its defeat by Assyria. The result was a very confused and corrupt form of worship in the region of the Northern Tribes that were now referred to as Samaria since Samaria was the capital of the Northern Kingdom.

The Samaritans

It says in *2 Kings 17* concerning this corruption that these people:

"...worshipped the LORD, but they also appointed all sorts of their own people to officiate for them as priests in the shrines at the high places. They worshipped the LORD, but they also served their own gods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of the nations from which they had been brought." 2 Kings 17:32-33

This helps us to understand the words of Jesus to the Samaritan woman when He said of the Samaritans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do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John 4:22

Conclusion

The age of golden glory under David and Solomon had descended to an age of division, immorality and the worship of false gods. The kings of Israel were violently overthrown by foreign nations and Judah was not much better, but lasted longer.

그 시대의 성서

열왕기상,하

저자: 불확실함

시/가: 1000 - 586 BC

요약: 본래의 유대문서에서 이 책들은 한 권으로 간주되었다. 두 권의 책은 다윗의 죽음부터 (BC 970) 바벨론에 의한 추방 (BC 586) 까지의 유대 군주국에 관한 역사를 담고 있다. 그것은 유대 나라가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두 책은 민간 사회의 관점을 다루기 보다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국가의 종교적 과정을 기록하며 그 나라의 도덕적 흥망성쇠의 다양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영화로 시작되고 열왕기하에 와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을 맺는다. 열왕기상,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의 삶과 성품을 기록하여 언약을 간직한 모든 후대의 세대가 경고와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연합 왕국: 솔로몬부터 르호보암까지: 왕상 1:1 - 11:43

솔로몬이 보좌에 오름 1:1 - 2:46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3:1 - 4:34

솔로몬의 성전 건축 5:1 - 9:28

솔로몬의 황금기 10:1 - 29

솔로몬의 변절, 쇠퇴, 죽음 11:1 - 43

왕국의 분열: 르호보암부터 북방 이스라엘 왕국 몰락까지: 왕상 12:1 - 왕하 17:41

여로보암부터 오프리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목의 초기 12:1 - 16:28

아합부터 예후의 등극까지 왕상 16:29 - 왕하 9:10

예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왕하 9:11 - 17:41

유대 지역의 왕국과 남방왕국 최후의 멸망까지: 왕하 18:1 - 25:30

히스기야 치하의 왕국 18:1 - 20:21

므낫세와 암몬의 통치 21:1 - 26

요시아의 통치 아래 개혁된 유다와 이스라엘 22:1 - 23:30

유다 최후의 날 23: 31 - 25:26

끝맺는 말 --- 여호야긴의 석방 25:27 - 30

Books in this time period

1 & 2 Kings

Author: Not known for certain

Time: 1000 - 586 BC

Summary: In the original Jewish texts, these books were regarded as one book. The two books contain the history of the Jewish monarchy from the death of David (around 970 BC) to the Babylonian exile (586 BC). They trace the division of the Jewish nation into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outh and the Kingdom of Israel in the north. 1 & 2 Kings record Israel's history from a religious, rather than a civil, viewpoint. As such, it records the religious progress of the nation and sets forth the various steps in the moral growth and decay of the kingdom. 1 Kings opens with Israel in its glory, and 2 Kings closes with Israel in ruins. The purpose of the Book of Kings is to record the lives and characters of the nation's leaders as a warning and exhortation to all subsequent generations of covenant bearers.

The United Kingdom: From Solomon to Rehoboam: 1 Kings 1:1 - 11:43

Solomon's ascension to the throne Ch 1:1 - 2:46

The wisdom and wealth of Solomon Ch 3:1 - 4:34

Solomon's building activity Ch 5:1 - 9:28

The Golden Age of Solomon Ch 10:1-29

Solomon's apostasy, decline, and death Ch 11:1-43

The Divided Kingdom: From Rehoboam to the Fall of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1 Kings 12:1 - 2 Kings 17:41

Early antagonism between Israel and Judah, from Jeroboam to Omri

Ch 12:1 - 16:28

From Ahab to the ascension of Jehu 1 Kings 16:29 - 2 Kings 9:10

From Jehu to the destruction of Israel Ch 9:11 - 17:41

The Kingdom in Judah to the Final Destruction of the Southern Kingdom: 2 Kings 18:1 - 25:30

The kingdom under Hezekiah Ch 18:1 - 20:21

The reigns of Manasseh and Amon Ch 21:1-26

Reform in Judah and Israel under Josiah Ch 22:1-23:30

The last days of Judah Ch 23:31 - 25:26

Epilogue - The release of Jehoiachin Ch 25:27-30

역대상과 역대하

저자: 에스라

시/기: 1050-536 BC

요약: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역대상. 하 역시 열왕기상. 하와 같이 본래 한 권의 책이었다. 하지만 역대기가 이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대기는 그들 나라의 전체 역사와 다른 나라 사이의 위치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쓰여졌고 사울의 죽음부터 바벨론 유배의 결말까지, 곧 제사장에게 의한 제사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역대기는 열왕기서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 제사드림에 있어서 공적인 제사의 조직, 종교의식,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 왕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북방 왕국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개요: 대상 1:1 – 9:44

족장 1:1 – 54

유다 2:1 – 4:23

시므온 4:24 – 43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 5:1 – 26

레위 6:1 – 81

다른 6 지파 7:1 – 8:40 :9:35 – 44

예루살렘의 거주자들 9:1 – 34

다윗의 통치: 대상 10:1 – 29:30

배경 : 사울의 죽음 10:1 – 14

다윗의 등극 11:1 – 20:8

다윗의 말년 21:1 – 29:30

솔로몬의 통치: 대하 1:1 – 9:31

솔로몬의 취임 1:1 – 17

솔로몬의 성전 2:1 – 7:22

솔로몬의 왕국 8:1 – 9:31

유다 왕국: 대하 10:1 – 36:23

왕국의 분열 10:1 – 11:23

유다의 통치자들 12:1 – 36:16

- 르호보암 12:1 – 16
- 아비야 13:1 – 22
- 아사 14:1 – 16:14
- 여호사밧 17:1 – 20:37
- 여호람 21:1 – 20
- 아하시야 22:1 – 9
- 아달랴 22:10 – 23:21
- 요아스 24:1 – 27
- 아마샤 25:1 – 28
- 웃시야 26:1 – 23
- 요담 27:1 – 9
- 아하스 28:1 – 27
- 히스기야 29:1 – 32:33
- 므낫세 33:1 – 20
- 아몬 33:21 – 25
- 요시야 34:1 – 35:27
-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36:1 – 16

추방 36:17 – 23

1 & 2 Chronicles

Author: Ezra

Time: 1050-536 BC

Summary: Like the Book of Kings, 1 & 2 Chronicles were originally one book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However, the Chronicles are not simply a repeat of the history already recorded in the books of Samuel and Kings. The Book of Chronicles was written to remind the nation of their entire history, and of their position among other nations, emphasising the history of priestly worship from the death of Saul to the end of the Babylonian captivity. The Chronicles contain more detail on the organisation of public worship, of religious ceremonies, of Levites and singers, and of the relationship of Kings to the worship of God, than does the Book of Kings. The history of the Northern Kingdom is omitted from the Chronicles because the Northern Kingdom had no bearing on the development of True Worship of God in Jerusalem.

Genealogies: 1 Chronicles 1:1 - 9:44

Patriarchs Ch 1:1-54

Judah Ch 2:1 - 4:23

Simeon Ch 4:24-43

Tribes east of the Jordan River Ch 5:1-26

Levi Ch 6:1-81

Six other tribes Ch 7:1 - 8:40; 9:35-44

Jerusalem's inhabitants Ch 9:1-34

The Reign of David: 1 Chronicles 10:1 - 29:30

Background: the death of Saul Ch 10:1-14

David's rise Ch 11:1 - 20:8

David's latter days Ch 21:1 - 29:30

The Reign of Solomon: 2 Chronicles 1:1 - 9:31

Solomon's inauguration Ch 1:1-17

Solomon's Temple Ch 2:1 - 7:22

Solomon's kingdom Ch 8:1 - 9:31

The Kingdom of Judah: 2 Chronicles 10:1 - 36:23

The division of the kingdom Ch 10:1 - 11:23

The rulers of Judah Ch 12:1 - 36:16

- Rehoboam Ch 12:1-16
- Abijah Ch 13:1-22
- Asa Ch 14:1-16:14
- Jehoshaphat Ch 17:1-20:37
- Jehoram Ch 21:1-20
- Ahaziah Ch 22:1-9
- Athaliah Ch 22:10-23:21
- Joash Ch 24:1-27
- Amaziah Ch 25:1-28
- Uzziah Ch 26:1-23
- Jotham Ch 27:1-9
- Ahaz Ch 28:1-27
- Hezekiah Ch 29:1-32:33
- Manasseh Ch 33:1-20
- Amon Ch 33:21-25
- Josiah Ch 34:1-35:27
- Jehoahaz, Jehoiakim, Jehoiachin, and Zedekiah Ch 36:1-16

The Exile Ch 36:17-23

잠언

저자: 솔로몬 외

시기: 1000-700 BC

요약: 잠언의 지혜는 사람의 올바른 길잡이와 스승으로써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태도를 말한다. 이 책은 선과 악, 그리고 상급과 벌을 관련 짓는 것에 대하여 망설임이 없다. 잠언에 기록된 긍정적, 부정적인 기준과 경고에 개인의 행위를 견주어 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한다. 책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람은 두 부류에 속하게 된다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두 부류란 그들의 습관, 행실, 삶의 열매, 일생 동안 선택했던 방법과 그들의 정해진 결말 등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인 편과 아닌 편, 선한 편과 악한 편, 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뉜다. 두 부류, 즉 인생에 관한 모든 모습을 보여 주는 삶의 두 가지 방법 사이에는 상호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지혜의 길의 우월성 1:1 – 9:18

서문 1:1 – 7

의로운 여인, 지혜 대 악한 여인 1:8 – 9:18

솔로몬의 잠언의 주요내용 10:1 – 22:16

대조를 사용한 잠언 10:1 – 15:33

주로 유사점을 보여주는 잠언 16:1 – 22:16

지혜의 말씀과 30 가지 격언 22:17 24:22

애굽인의 지혜와 유사한 격언 22:17 – 23:12

애굽인의 지혜와 유사하지 않은 격언 23:13 – 24:22

지혜의 말씀, 부록: 24:23 – 24:22

히스기야의 사람들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 25:1 – 29:27

최종 부록: 30:1 – 31:31

아굴의 잠언 30:1 – 33

르무엘의 잠언 31:1 – 9

덕행있는 여인에 관해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쓴 시 31:10 - 31

Proverbs

Author: Solomon and others

Time: 1000-700 BC

Summary: In the book of Proverbs, wisdom is the attitude which puts God first as man's rightful guide and master. The book does not hesitate to link good and bad with reward and penalty. Much can be learned by testing personal conduct against the positive and negative standards and warnings as recorded in the Proverbs. Throughout the book, the view is set forth that all men fall into two basic classes. Both are known by their habits, their deeds, their "fruits", their chosen "ways" in life, and their fitting ends. They are either with God or without Him, good or evil, or wise or foolish. There is even a mutual tension between the two classes, the two ways of life, which shows up in every aspect of life.

Superiority of the Way of Wisdom: Ch 1:1 - 9:18

Introduction Ch 1:1-7

The righteous woman, Wisdom, versus the evil woman Ch 1:8 - 9:18

Main Collection of Solomon's Proverbs: Ch 10:1-22:16

Contrasting proverbs Ch 10:1 - 15:33

Proverbs largely parallel Ch 16:1 - 22:16

The Words of the Wise, Thirty Sayings: Ch 22:17-24:22

Sayings paralleled in Egyptian Wisdom Ch 22:17 - 23:12

Sayings with no parallel in Egyptian Wisdom Ch 23:13 - 24:22

The Words of the Wise, Appendix: Ch 24:23-34

Proverbs of Solomon, compiled by Hezekiah's Men: Ch 25:1 - 29:27

Final Appendices: Ch 30:1-31:31

The Words of Agur Ch 30:1-33

The Words of Lemuel Ch 31:1-9

Alphabetical poem on the virtuous woman Ch 31:10-31

전도서

저자: 솔로몬

시기: BC 960

요약: 전도서는 “지혜의 글” 중의 마지막 책이다. 전도서라는 이름은 “함께 모이다”라는 어원에서 왔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은 솔로몬의 많은 지혜의 말씀과 잠언이 수집된 형태이다. 이 책은 주로 인생의 관찰로 구성되어 있다. 솔로몬이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삶 전체를 살아왔다 해도 ‘결국 삶은 헛된 것이다’라는 결론을 짓는다.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녔던 이 사람보다 인생에 대해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그의 모든 세상적인 소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결론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의 헛됨 1:1-11

실제 경험에 관한 시험 1:12-2:26

시간으로 제한된 인간의 기회 3:1-22

억압으로 증폭되는 인간의 무상함 4:1-16

거짓된 예배의 헛됨 5:1-9

부의 헛됨 5:10-6:2

인간 욕망의 헛됨 6:3-11:6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와 경고 11:7-12:8

결론 12:9-12:8

아가

저자: 솔로몬

시기: BC 960

요약: 아가서는 히브리 시에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한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움과 순수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보다 깊은 의미의 상징기법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즉 예수의 재림시 완성될 신자의 몸을 표현한다. 기본적인 내용은 사랑의 순결과 신성함으로 구성된다.

1 부 -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신부 1:1-5:1

노래 1: 열렬한 사랑과 겸손한 신부 1:1-8

노래 2: 사랑의 사귄과 자기희생의 헌신 1:9-2:7

노래 3: 신랑의 오실 것에 대한 표적 2:8-17

노래 4: 갑작스런 신랑의 출현 3:1-5

노래 5: 결혼의 찬란함 3:6-4:7

노래 6: 기업을 받음 4:8-5:1

2 부 - 이방인 중에서 선택된 신부 5:2-8:14

노래 7: 초림[初臨] 때 신부의 부르심과 정혼 5:2-6:10

노래 8: 신랑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 6:11-13

노래 9: 넘쳐 흘러나는 신부의 아름다움 7:1-9

노래 10: 신랑의 오심을 바라는 신부의 깊은 그리움과 열망 7:10-8:4

노래 11: 진실한 결혼의 기쁨과 사귄 8:5-7

노래 12: 장래의 사랑의 수고 8:8-14

Ecclesiastes

Author: Solomon

Time: 960 BC

Summary: Ecclesiastes is the final book in the “wisdom literature”. The name Ecclesiastes comes from the root meaning “to assemble together.” As such, the book forms a collection of many wise sayings and proverbs of Solomon. The book is mainly comprised of observations of life. Solomon, having lived a full life with all its pleasures, concludes that life is vanity. What better man to speak about life than a man who was given all it had to offer. Without God, life would be meaningless. All his worldly possessions would amount to nothing. Therefore, the conclusion of his studies states that man should love and fear God and obey his commandments.

The Futility of All Human Endeavours Ch 1:1-11

The Test of Practical Experience Ch 1:12 - 2:26

Men's Opportunity Limited by Time Ch 3:1-22

Human Vanity Greatly Increased by Oppression Ch 4:1-16

Vanity in Insincere Worship Ch 5:1-9

Vanity of Riches Ch 5:10 - 6:2

Vanity of Human Desires Ch 6:3 - 11:6

Advice and Warning to Youth Ch 11:7 - 12:8

Conclusion Ch 12:9-14

Song of Solomon

Author: Solomon

Time: about 960 BC

Summary: Its content includes speeches in Hebrew poetry. It depicts the beauty and pure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which develops into a mature undying relationship. More in-depth symbolism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 and his bride, the body of believers, which will be consummated at his return. The basic message is the purity and sacredness of love.

Part One - The Bride Selected from Israel: Ch 1:1 - 5:1

Song 1: The ardent love and becoming humility of the bride Ch 1:1-8

Song 2: Love's communion and self-sacrificing devotion Ch 1:9 - 2:7

Song 3: Signs of his coming Ch 2:8-17

Song 4: His sudden appearance Ch 3:1-5

Song 5: The splendour of the marriage Ch 3:6 - 4:7

Song 6: Entering the inheritance Ch 4:8 - 5:1

Part Two - The Bride Selected From The Gentiles: Ch 5:2 - 8:14

Song 7: The first advent call and espousal of the bride Ch 5:2 - 6:10

Song 8: Anticipating his coming Ch 6:11-13

Song 9: The flowing beauty of the bride Ch 7:1-9

Song 10: The bride's deep longing and ardent desire for the groom's return Ch 7:10 - 8:4

Song 11: The joy and communion of true marriage Ch 8:5-7

Song 12: Love's labour in the future Ch 8:8-14

14 과 - 성서 읽기 요령

성서 읽기의 중요성이 딤후 3:15-17 에 요약되었다.

모든 성서는...

-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한다.
 - a. 교훈과
 - b. 책망과
 - c. 바르게 함과
 - d. 의로 교육하기에유익하다.

“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필수적인 원칙:

우리가 매일 일정하게 식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

매일 15 분에서 20 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권면 한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서를 상고 하였다” (행 17:11)고 베뢰아 사람의 신앙 태도에 관해 묘사되었다.

여러가지 성서 읽기 방법이 고안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매일 세 부분씩 1 년간 읽어가도록 작성된 성서 읽기표이다. 이 읽기표는 매일 구약성서의 두 곳과 신약성서의 한곳을 읽도록 되어 있다. 이 표에 따라서 매일 1 년간 읽어가면, 구약성서는 한 번 신약성서는 두 번 읽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저녁 예배를 드린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들은 기도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하루를 끝마친다.

요령 1. 준비할 것

시간을 할애하라
성서역본을 선택하라
편하게 하라

성서 읽기를 어떻게 착수해야 하는가?

성서 학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터득하려면, 성서에 대하여 바른 자세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만일 “굳게 닫힌 마음”, 또는 선입관을 가지고 학습한다면, 성서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성장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성서는 그 역사상 온갖 공격을 받고도 이겨낸 강력한 능력을 가진 책이다. 다른 분야의 학문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이 일찌기 세운 학설을 다시 해설하고 재평가하고 있다. 성서의 모든 가르침을 주의 깊게 고찰하여 얻는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받아들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Section 14 - Tips on Reading

The importance of reading is summed up in 2 *Timothy* 3:15-17.

All scripture . . .

- Makes one wise unto salvation.
- Is profitable for:
 - a. doctrine
 - b. reproof
 - c. correction
 - d.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oroughly furnished for every good work.”

Fundamental principle:

Steady consistent diet of the Word of God.

We recommend regular daily intake of God's Word. The Bereans are described in Acts as being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in that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readiness of mind, and searched the scriptures daily, whether those things were so.”* (Acts 17:11)

There are many different reading plans available. One such plan is structured to take a person through the Bible in a year, reading three portions daily. This is outlined by the Daily Bible Reading Plan included in this book. By doing two readings from the Old Testament and one from the New Testament daily, at the end of the year, a person has read the Old Testament once and the New Testament twice.

A good example to show the importance of Bible reading is to be seen in the custom Israel had when they offered their morning and evening sacrifices. It showed that they were to begin and end the day with prayer and meditation to God.

TIP 1: Preparation

Allow Time
Select Translation
Be Comfortable

How should we approach reading the bible?

If we are to gain what we can from Bible study, we need to approach it with the right attitudes. We need openness to new ideas. If we approach all ideas with a “fortress mentality” --thinking that our main job is to defend the walls that make up the fortress of Christianity--we have very little space for growth.

The Bible is a book of strength that has withstood all kinds of attacks during its history. As in all other areas of study, scholars build upon and re-evaluate the work of earlier scholars. We need not fear examining new ideas and evaluating them carefully in the light of all the teachings of the Bible.

우리는 자신이 배우고 고찰한 것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며, 그것들을 생활에 적용할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각자의 생각과 해석을 다른 성서 학자들과 토론하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성서 학습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며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이다. 성서 학습은 그 어떤 학습보다도 더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 당신은 변함 없는 진리에 기초한 판단을 배우게 되어 활기찬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성서는 더욱 더 당신의 생활에 능력과 활기가 될 것이다. 당신은 이 놀라운 책을 터득하게 되며, 그 각 페이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라.

요령 2. 읽는 법

큰소리로 읽는다
메아리 치는 것을 들으라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
(신.11:18-19; 수.1:8)

성서 읽기의 기본 원칙들

각 구절을 문장의 문맥대로 해석하라. 문맥대로의 해석은 그 문장(앞뒤의 구절들)뿐 아니라, 성서 전체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포함한다.

성서 시대의 사회, 역사, 문화적 환경은 오늘날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역본에는 역자의 사상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성서 학습에는 여러 역본을 참고하고,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의미를 찾아내도록 하라.
어느 구절을 해석할 때도 다른 곳에 쓰여진 구절을 대조하여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라.

성서를 부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도록 하라. 즉 성서는 성서 자체가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요령 3. 이해할 수 없을 때

인내하라
사.55:9; 잠.25:2
다른 역본을 사용해보라
학습 사전들을 사용하라
교사를 찾으라(행.8:26-40)

We need an attitude of willingness to meditate on what we are learning and to think through for ourselves how our learning can and should be applied in our own lives. To do this, it is usually helpful to share our ideas and interpretations with other Bible students for discussion and evaluation.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Bible study is trying work. It is also exhilarating and life –changing. Study of the Bible can enrich us as no other study can. You will experience a new exhilaration as you learn to make your own judgments based on firm principles, and the Bible will become more alive and powerful in your life. Remember, you are intended to understand this remarkable book and to meet God in its pages.

TIP 2: How to Read

Read Aloud
Listen for Echoes
Ask Yourself Questions
Deuteronomy 11:18-19; Joshua 1:8

Basic principles for reading the Bible

Study every passage within its literary context. Literary context includes both a text's immediate setting (the verses around it) and its relationship to the entire book.

Remember that the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a biblical passage relates to the life of those days.

Translations often reflect the translator's understanding. Therefore, when studying a passage, compare several translations, or versions, to try and discover the most likely meaning of a word or phrase by seeing where else it is used in the Bible.

Interpret any single passage with the help of what the author has written elsewhere about it.

Interpret the Bible as a single message.

TIP 3: When you do not understand

Be Patient
(Isaiah 55:9; Proverbs 25:2)
Use Other Translations
Use Study Tools
Seek Qualified Teachers (Acts 8:26-40)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주제가 무엇인가?

주된 인물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는가?

해석의 열쇠가 되는 구절은 어느 구절인가?

중심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주된 약속은 무엇인가?

주된 명령/지시는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할 잘못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할 본보기는 무엇인가?

이 장에서 배운 교훈 중 내 생활에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장의 주제를 찾거나, 또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찾아 볼 관주가 있는가?

해석의 열쇠가 되는 단어 또는 구절이 있는가? 그 부분이 그 책 또는 다른 책에 나타나 있는가?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할 낱말이 있는가?

Questions to consider when reading:

What is the main subject?

Who are the main people?

What does it say about God?

What does it say about Christ?

What is the key or main verse?

What is the central lesson?

What are the main promises?

What are the main commandments/instructions?

What error should I avoid?

What example is there to follow?

What do I need most in this chapter to apply to my life today?

Are there cross references that can be used to develop the theme of the passage or add clarity of understanding?

Are there any key words or phrases? Do they appear in other sections of the same book as well as in other books?

Are there any words I should look up to clarify a definition?

15 과 - 성서 용어 II

할례(割禮) -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는 난지 팔일(八日)에 그 포피(包皮)를 자르는 의식(儀式)이 있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창세기 17:10)

바리새파(派) -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의 일파(一派). 그 바리새(Pharisee)라는 낱말은 “분리(分離)한다”는 뜻이다. 그 바리새파의 근본적 원칙은 기록된 모세의 율법 外에, 그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 있었던 구전법(口傳法)이었다. 탈무드(Talmud)의 첫 부분은 미쉬나(Mishna) 또는 둘째 법이라고 하는데 이 구전법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유대의 전통(傳統)과 의식(儀式)을 요약한 것인데, 기록된 율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그들은 평가하였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마태 23:13)

사두개파(派) - 그 사두개파 역시 그리스도 예수 당시에 유대에 있었던 그 유대교의 일파이며, 그 의미는 “의롭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구전법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고否定하고, 오직 기록된 모세의 율법만 그 나라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느님의 권위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3:8)

서기관(書記官) - 그 서기관은 공기관의 서기(書記) 또는 개인 비서등으로, 또는 그들의 임무와 영향력은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어떤 때는 유대교 교사였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예레미야 36:32)

제사장 (祭司長) - 레위기에 기록된 바대로, 레위 족속의 아론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었다. 넓은 의미에서, 제사장은 교사, 재판관,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다.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레위기 1:9)

제물(祭物) -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잡아서 준비한 것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1)

Section 15 - Bible Terminology II

Circumcision - cutting off the fold of skin (foreskin) of all Jewish males.

"And ye shall circumcise the flesh of your foreskin; and it shall be a token of the covenant betwixt me and you." (Genesis 17:11)

Pharisee - The Pharisees were a religious party or school among the Jews at the time of Christ. The word means "separate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Pharisees is that besides the written law, there was an oral law to complete and to explain the written law. The first portion of the Talmud, called the Mishna or "second law", contains this oral law. It is a digest of the Jewish traditions and rituals and was esteemed by them far above the written law.

"But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because you shut off the kingdom of heaven from men; for you do not enter in yourselves, nor do you allow those who are entering to go in." (Matt. 23:13)

Sadducee - The Sadducees, meaning "the righteous", were a religious party among the Jews at the time of Christ. They denied that the oral law was a revelation of God to the Israelites, and deemed the written law of Moses alone to be obligatory on the nation, as the divine authority.

"For the Sadducees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neither angel, nor spirit: but the Pharisees confess both." (Acts 23:8)

Scribe - The Scribes were clerks, especially public servants or secretaries, whose office and influence differed in different time periods. A religious teacher.

"Then took Jeremiah another roll, and gave it to Baruch the scribe, the son of Neriah; who wrote therein from the mouth of Jeremiah all the words of the book which Jehoiakim king of Judah had burned in the fire: and there were added besides unto them many like words." (Jeremiah 36:32)

Priest - Male descendant of Aaron of the tribe of Levi, who performed the necessary duties within the tabernacle as laid out in the Levitical Law. In a wider sense, a priest is one who performs the role of a teacher, judge and mediator.

"But his inwards and his legs shall he wash in water: and the priest shall burn all on the altar, to be a burnt sacrifice, an offering made by fire, of a sweet savour unto the LORD." (Leviticus 1:9)

Sacrifice - to slaughter, kill; metaphorically anything offered to God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Romans 12:1)

성막/장막(聖幕/帳幕) –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막, 운반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
 “열 쪽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그물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출애굽기 26:1)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3)

성전(聖殿) – 거룩한 장소(場所), 하느님을 경배하는 곳.

“한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사무엘상 1:9)

죄(罪)를 짓다 – 길을 그릇 가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요한 1 서 3:4)

사도(使徒) – 보내심을 받은 자.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딤후 2:7)

제자(弟子) – 배우는 자, 학생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눅 6:40)

회개(悔改) – 새로운 마음을 갖다, 뉘우치다, (죄)로부터 돌이키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찌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겔 18:30)

의(義) – 영적(靈的)으로 옳은 것, 흠이나, 잘못이 없는 것.

“깨어 의(義)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전서 15:34a)

Tabernacle - dwelling place, tent, portable temple of worship

"Moreover thou shalt make the tabernacle with ten curtains of fine twined linen, and blue, and purple, and scarlet: with cherubims of cunning work shalt thou make them." (Exodus 26:1)

"And I heard a great voice out of heaven saying, Behold, the tabernacle of God is with men, and he will dwell with them, and they sha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shall be with them, and be their God." (Revelation 21:3)

Temple - sanctuary, place of worship

"So Hannah rose up after they had eaten in Shiloh, and after they had drunk. Now Eli the priest sat upon a seat by a post of the temple of the LORD." (1 Samuel 1:9)

Sin - to miss the mark. Disobedience to God's commandments

"Whosoever committeth sin transgresseth the law: for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1 John 3:4)

Apostle - messenger, one sent

"Whereunto I am ordained a preacher, and an apostle, (I speak the Truth in Christ, and lie not;) a teacher of the Gentiles in faith and verity." (1 Timothy 2: 7)

Disciple - a learner, pupil, student

"The disciple is not above his master: but every one that is perfect shall be as his master." (Luke 6:40)

Repent - to have a new mind, to be sorry, to turn away from (sin)

"therefore I will judge you, O house of Israel, every one according to his ways, saith the Lord GOD. Repent, and turn yourselves from all your transgressions; so iniquity shall not be your ruin." (Ezekiel 18:30)

Righteousness - to be spiritually correct, faultless, without blame

"Awake to righteousness and sin not..." (1 Corinthians. 15:34a)

16 과 – 성서의 개관 6

이스라엘의 역사 (4 부): 선지자

선지자의 출현

왕국의 분열 후 얼마 동안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모두 팔복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 역대하 36 장을 보라.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였고 미가, 이사야는 남방 유다에게 예언했다. 요나와 나훔을 비롯한 몇몇 선지자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했다. 엘리아나 엘리사 같은 유명한 선지자는 직접 성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행적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예언의 내용을 불쾌하게 느꼈고 참된 선지자를 냉담한 시선으로 보았다.

이 시기의 성서

요나

저자: 요나

시기: BC 775 – 760

요약: 이 책은 요나의 임무 즉 니느웨(앗시리아의 수도)로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여 멸망을 모면하라는 경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나는 이 명령을 전하기 싫어하여 큰 물고기에게 삼키워 3 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 그곳에서 풀려난 후 요나의 전하는 말을 믿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다.

도망침: 1:1-17

여호와와의 명령 1:1-2

다시스로 가는 배 1:3

바다의 폭풍 1:4-14

배에서 물 속으로 던져짐 1:15-17

간구: 2:1-10

버려짐 2:1-4

깨달음 2:5-6

서약의 이행 2:7-9

구원됨 2:10

전파 3:1-10

여호와와의 두 번 째 명령 3:1-2

메시지의 선포 3:3-4

니느웨의 회개 3:5-9

심판의 보류 3:10

교훈 4:1-11

불평 4:1-3

박 넝쿨과 벌레 4:4-7

바람과 태양 4:8

교훈 4:9-11

Section 16 – Overview of the Bible 6

The History of Israel (Part IV): The Prophets

The Rise of the Prophets

During the period after the division of the kingdom there was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phets - both true and false prophets. See *2 Chronicles 36*. There were men, such as Hosea and Amos, who prophesied to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Micah and Isaiah spoke to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Some prophets like Jonah and Nahum preached to other nations. There are other prophets who did not write books, the most famous of which were Elijah and Elisha but their activities are recorded in the Books of Kings and Chronicles. The people found the prophetic messages unpalatable and usually saw the true prophets as 'distant'.

Books in this time period

Jonah

Author: Jonah

Time: 775-760 BC

Summary: The book is concerned with the commission of Jonah to warn the city of Nineveh (capital of Assyria) to repent and obey God's commandments to avoid assured destruction. Jonah is reluctant to preach this message and is therefore swallowed by a great fish and remains in the belly of the fish for three days. Upon his release, he preaches the message to the people of Nineveh who believe his message and repent of their sins.

Fleeing: Ch 1:1-17

The Lord's Command Ch 1:1-2

A ship to Tarshish Ch 1:3

A storm at sea Ch 1:4-14

Cast overboard Ch 1:15-17

Praying: Ch 2:1-10

Cast out Ch 2:1-4

Brought up Ch 2:5-6

Paying vows Ch 2:7-9

Delivered Ch 2:10

Preaching: Ch 3:1-10

The Lord's second command Ch 3:1-2

Declaring the message Ch 3:3-4

Nineveh's repentance Ch 3:5-9

Judgement withheld Ch 3:10

Learning: Ch 4:1-11

Complaint Ch 4:1-3

The gourd and the worm Ch 4:4-7

The wind and the sun Ch 4:8

The lesson Ch 4:9-11

아모스

저자: 아모스

시기: BC 765-750

요약: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태평성대의 시기에 쓰였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였던 이 북방왕국은 정치적, 물질적으로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 필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치스러운 생활, 우상 숭배, 도덕적 부패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북방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알리게 하시려고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셨다. 아모스는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회개할 것을 강력히 권했다. “하나님을 구하면 살리라”는 말이 그 민족을 향한 아모스의 탄원이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분산될 것도 예언 했지만 하나님께서 옛 조상의 땅으로 다시 모아들이실 날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 임할 심판 1:1-2:16

머리말과 선언 1:1-2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소 1:3-2:3

유대에 대한 기소 2:4-5

이스라엘에 대한 기소 2:6-16

이스라엘을 행한 세가지 권고 3:1-6:14

심판의 선포 3:1-15

이스라엘의 부패함 4:1-13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슬픔 5:1-6:14

이스라엘의 상태에 관한 5 가지 환상 7:1-9:10

황충(메뚜기)이 먹어 치움 7:1-3

타오르는 불꽃 7:4-6

다림 줄 7:7-17

잘 익은 과일 광주리 8:1-14

여호와의 심판 9:1-10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9:11-15

Amos

Author: Amos

Time: 765-750 BC

Summary: The book of Amos was written during a period of national optimism in Israel. King Jeroboam II was ruler, and politically and materially the northern kingdom rivalled the age of Solomon and David. Amos, a shepherd by trade, was called by God to pronounce judgement on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by denouncing Israel's luxurious living, idolatry, and moral depravity. Amos urges the people to repent before the judgements of God come upon them. "Seek God and live" was Amos' plea to the nation. He also foretells of the dispersion of the Israelites, but points to a day when God would regather them in the land of their forefathers.

Judgements against the Nations: Ch 1:1 - 2:16

Superscription and proclamation Ch 1:1-2

Indictment of neighbouring nations Ch 1:3 - 2:3

Indictment of Judah Ch 2:4-5

Indictment of Israel Ch 2:6-16

Three Discourses against Israel: Ch 3:1 - 6:14

A declaration of judgement Ch 3:1-15

The depravity of Israel Ch 4:1-13

A lamentation for Israel's sin and doom Ch 5:1 - 6:14

Five Visions of Israel's Condition: Ch 7:1 - 9:10

The devouring locusts Ch 7:1-3

The flaming fire Ch 7:4-6

The plumb line Ch 7:7-17

The basket of ripe fruit Ch 8:1-14

The judgement of the Lord Ch 9:1-10

The Promise of Israel's Restoration: Ch 9:11-15

호세아

저자: 호세아

시기: BC 755-710

요약: 호세아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고의로 배반을 일삼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에 처해질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호세아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부정한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이다.

선지자의 결혼생활: 1:1-3:5

고멜과 결혼함 1:1-9

소망의 메시지 1:10-11

경건치 못한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 2:1-13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 2:14-23

믿음 없는 아내를 구원하는 호세아 3:1-5

이스라엘의 불신과 당연한 결과인 심판 4:1-13:16

백성들의 범죄 4:1-3

제사장들의 범죄 4:4-8

모든 이에게 내리는 벌 4:9-10

부도덕한 예배의식을 실행함 4:11-19

잘못된 길로 백성을 이끈 왕과 제사장에게 임하는 심판 5:1-7

큰 손실을 가져온 에브라임과 유다의 외교 정책 5:8-15

이스라엘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하심 6:1-6

이스라엘의 범죄 6:7-7:7

파괴적인 이스라엘의 외교정책 7:8-8:3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악한 동맹국들 8:4-14

예언대로 추방된 이스라엘 9:1-9

옛적의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몸을 드려 배교함 9:10-14

길갈에서 배교함 9:15-17

바알 제단의 멸하실 것을 예언함 10:1-8

기브아에서 행한 죄 10:9-10

이스라엘의 몰락 10:11-15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배은망덕 11:1-7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측은지심 11:8-11

야곱의 죄 11:12-12:14

사악한 우상 송아지에게 예배드림 13:1-3

멸망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은혜로운 하나님 13:4-11

불가피한 몰락 13:12-16

이스라엘의 전환과 회복 14:1-9

회개하도록 부르심 14:1-3

용서의 약속 14:4-8

마지막 훈계 14:9

Hosea

Author: Hosea

Time: 755-710 BC

Summary: The book of Hosea describes the patient long-suffering of God towards the rebellious and unfaithful northern kingdom of Israel. However, it is made clear to the Israelites that punishment will engulf anyone who remains wilfully rebellious. A key theme is Hosea's marriage to the unfaithful Gomer, who is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Israel.

The Prophet's Married Life: Ch 1:1 - 3:5

His marriage to Gomer Ch 1:1-9

A message of hope Ch 1:10-11

Judgement on faithless Israel Ch 2:1-13

The restoration of faithless Israel Ch 2:14-23

Hosea's redemption of his faithless wife Ch 3:1-5

Israel's Unfaithfulness and consequent Judgement: Ch 4:1 - 13:16

The guilt of the people Ch 4:1-3

The guilt of the priests Ch 4:4-8

Punishment for all Ch 4:9-10

Immoral cult practices Ch 4:11-19

Judgement on kings and priests for leading the people astray Ch 5:1-7

Disastrous foreign policies of Ephraim and Judah Ch 5:8-15

Israel's plea and God's rejoinder Ch 6:1-6

The crimes of Israel Ch 6:7 - 7:7

Israel's disastrous foreign policy Ch 7:8 - 8:3

Israel's idolatry and wicked alliances Ch 8:4-14

The exile of Israel foretold Ch 9:1-9

Israel's ancient apostasy at Baal-peor Ch 9:10-14

Israel's apostasy at Gilgal Ch 9:15-17

Destruction of the Baal cult prophesied Ch 10:1-8

The sin at Gibeah Ch 10:9-10

The ruin of Israel Ch 10:11-15

God's love; Israel's ingratitude Ch 11:1-7

God's pity for his people Ch 11:8-11

The sins of Jacob Ch 11:12 - 12:14

The wicked bull worship Ch 13:1-3

The gracious God to bring destruction Ch 13:4-11

Inescapable ruin Ch 13:12-16

Israel's Conversion and Renewal: Ch 14:1-9

The call to repentance Ch 14:1-3

The promise of pardon Ch 14:4-8

A parting admonition Ch 14:9

이사야

저자: 이사야

시기: BC 740-690

요약: 이사야는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남방 유다 왕국의 극도로 사악함을 인하여 받게 될 심판을 다루는 것이었다. 이사야는 유다의 문제의 근원이 우상 숭배와 배교임을 확인했다. 그는 왕과 백성들에게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동맹국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강권하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실 미래의 메시아를 전하였다.

구짚고 약속함: 1:1-6:13

심판과 은혜에 직면한 배교 1:1-31

죄에 따른 벌 뿐만 아니라 영광 받을 것도 예비하심 2:1-4:6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과 추방 5:1-30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정결케 하시고 사명을 주심 6:1-13

임마누엘 7:1-12:6

세상의 지혜로부터 거절 당하는 임마누엘 7:1-25

메시아의 구원이 예시됨 8:1-9:7

교만한 사마리아가 당하는 운명 -추방 9:8-10:4

세상 나라의 멸망 ; 영화로운 나라의 수립 10:5-12:6

각 나라에 임한 심판의 무거운 짐 13:1-23:18

바벨론의 몰락 ; 음부로 떨어진 왕 13:1-14:27

블레셋의 몰락 14:28-32

모압의 몰락 15:1-16:14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몰락 17:1-14

구스의 몰락과 변화 18:1-7

애굽의 당할 재해 19:1-20:6

정복당하고 우상이 멸함을 당할 바벨론 21:1-10

에돔의 패배 ; 이스라엘의 승리 21:11-12

드단과 게달 자 손의 완패 당함 21:13-17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견됨 ; 엘리아김이 켈나를 대신함 22:1-25

몰락하여 노예국이 되는 두로 23:1-18

열국에 대한 책망과 약속 1 : 24:1-27:13

온 세상의 죄에 임하는 심판 24:1-23

시온의 구원자와 위로자로서 찬양 받으신 여호와 25:1-12

유다를 위로하심에 대한 기쁨의 찬양 26:1-21

압제자는 벌을 받게 되나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음 27:1-21

이스라엘의 불신자에게 임할 화: 28:1-33:24

에브라임의 취한 자와 냉소적인 유대인이 당할 심판 28:1-29

위선자가 당할 재앙 29:1-24

애굽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신뢰함을 대조 30:1-33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예루살렘을 지키심 31:1-9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과 영적 소생 32:1-20

배신자가 당할 응징과 그리스도의 승리 33:1-24

열국에 대한 책망과 약속 2 : 34:1-35:10

이방 세상 능력의 완전한 멸망 34:1-17

거룩한 길의 축복 35:1-10

Isaiah

Author: Isaiah

Time: 740-690 BC

Summary: Isaiah ministered during the rule of Uzziah, Jotham, Ahaz and Hezekiah. His primary focus dealt with the coming judgement on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due to its great wickedness. Isaiah identified the root of Judah's trouble in its idolatry and apostasy. Although he spoke of judgements on other nations as well, the prophet Isaiah urged the kings and the people to put their trust in God rather than in alliances with earthly powers. He comforted his people with the realisation that God loves those who are faithful to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He spoke of the future Messiah who would come to redeem the nation and restore the Kingdom.

Rebuke and Promise: Ch 1:1 - 6:13

Rebellion confronted with judgement and grace Ch 1:1-31

Punishment for sin as preparation for glory Ch 2:1 - 4:6

Judgement and exile in store for Israel Ch 5:1-30

The prophet cleansed and commissioned by God Ch 6:1-13

Immanuel: Ch 7:1 - 12:6

Immanuel rejected by worldly wisdom Ch 7:1-25

Messianic deliverance foreshadowed Ch 8:1 - 9:7

Boastful Samaria doomed to exile Ch 9:8 - 10:4

World empire crushed; glorious empire to come Ch 10:5 - 12:6

Burdens of Judgement upon the Nations: Ch 13:1 - 23:18

Fall of Babylon; her king's descent into Hades Ch 13:1 - 14:27

Downfall of Philistia Ch 14:28-32

Downfall of Moab Ch 15:1 - 16:14

Downfall of Damascus and Samaria Ch 17:1-14

Downfall and conversion of Ethiopia Ch 18:1-7

Afflictions of Egypt Ch 19:1 - 20:6

Babylon to be conquered and her idols destroyed Ch 21:1-10

Defeat for Edom; victory for Israel Ch 21:11-12

Dedan and Kedar to be routed Ch 21:13-17

Fall of Jerusalem foreseen; Eliakim to replace Shebna Ch 22:1-25

Downfall and enslavement of Tyre Ch 23:1-18

General Rebuke and Promise I: Ch 24:1 - 27:13

Universal judgement upon universal sin Ch 24:1-23

God praised as deliverer and comforter of Zion Ch 25:1-12

Song of joy over Judah's consolation Ch 26:1-21

Oppressors to be punished but God's people preserved Ch 27:1-13

Woes upon the Unbelievers of Israel: Ch 28:1 - 33:24

Judgement of Ephraimite drunkards and Jewish scoffers Ch 28:1-29

Disaster ahead for hypocrites Ch 29:1-24

Confidence in Egypt versus confidence in God Ch 30:1-33

God, not Egypt, to be Jerusalem's defence Ch 31:1-9

Israel's final deliverance, and her spiritual renewal Ch 32:1-20

Punishment of the Treacherous, and Triumph of Christ Ch 33:1-24

General Rebuke and Promise II: Ch 34:1 - 35:10

Utter destruction of Gentile world powers Ch 34:1-17

Blessing on the way of holiness Ch 35:1-10

히스기야에 대하여: 36:1-39:8

유다가 멸망됨을 피함 36:1-37:38

유다왕이 멸망됨을 피함 38:1-39:8

위로에 대하여: 40:1-66:24

화평의 목적 40:1-48:22

화평의 왕자 49:1-57:21

화평의 계획 58:1-66:24

미가

저자: 미가

시기: BC 735-700

요약: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는데, 아모스는 북방왕국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였고 미가는 남방 왕국 유다에게 예언하였다.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부유하고 권세 있던 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미가의 예언들은 특히 유다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온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었다. 미가의 주요한 생각은 심판을 거치고 남은 이스라엘의 재건, 다윗 계보의 하나님의 왕국 건립, 하나님의 왕국을 통한 다른 민족의 개종이다. 그의 예언의 결론은 물질주의적 배경과 아하스의 통치의 부패에 반하는 참된 가치를 보여 주는 믿음의 승리에 찬 표현이다.

표제 1:1

이스라엘과 유다의 끊임없는 죄로 인해 다가오는 심판: 1:2-16

주의를 기울여 듣도록 부르심 1:2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선언하고 묘사함 1:3-4

수도의 죄악은 온 나라의 죄악을 대표함 1:5

심판의 끔찍한 결과 1:6-7

선지자의 반응과 심판에 관한 환상 1:8-16

부패한 압제자와 거짓 선지자의 최후 : 2:1-3:12

땅을 독점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 2:1-5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예언 2:6-13

지배 계급에 대한 비난 3:1-7

미가는 하나님의 영에서 비릇되는 능력을 자각함 3:8

범죄가 만연하여 예루살렘에 멸망이 임함 3:9-12

재림하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환상 4:1-5:15

예루살렘의 최후 승리 4:1-5:1

능력 있는 인도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하심 5:2-15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술: 6:1-7:20

하나님의 첫 번째 책망 6:1-5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응답 6:6-8

하나님의 두 번째 책망 6:9-16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응답- 죄의 고백 7:1-10

심판 이후의 축복된 구원 약속 7:11-13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간구 – 열국으로부터 다시 모임 7:14-17

영광의 찬가: 은혜의 승리 7:18-20

The Volume of Hezekiah: Ch 36:1 - 39:8

Destruction of Judah averted Ch 36:1 - 37:38

Destruction of Judah's king averted Ch 38:1 - 39:8

The Volume of Comfort: Ch 40:1 - 66:24

The Purpose of Peace Ch 40:1 - 48:22

The Prince of Peace Ch 49:1 - 57:21

The Program of Peace Ch 58:1 - 66:24

Micah

Author: Micah

Time: 735-700 BC

Summary: Micah, who was contemporary with Isaiah, was to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what Amos was previously to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Both were fierce critics of the rich and powerful who exploited the poor. Though Micah's prophecies refer especially to Judah, they concerned all of Israel. Micah's leading ideas are the regeneration of Israel's remnant through judge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line of David, and the conversion of the nations through that kingdom. The conclusion of his prophecy is a triumphant expression of faith, which is seen in its true quality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materialism and the corruption of the reign of Ahaz.

Superscription Ch 1:1

Approaching judgement of Israel & Judah because of persistent sin: Ch 1:2-16

The call to attention Ch 1:2

Terrible coming of God announced and described Ch 1:3-4

Sins of the capital city representative of those of the nation Ch 1:5

Fearful consequences of this judgement Ch 1:6-7

The prophet's reaction and his vision of this judgement Ch 1:8-16

Doom of corrupt oppressors and false prophets: Ch 2:1 - 3:12

Woe upon the land monopolisers Ch 2:1-5

False preaching of lying prophets Ch 2:6-13

Denunciation of the leaders of the people Ch 3:1-7

Micah's consciousness of power from the Spirit of God Ch 3:8

Gross sin and crime to bring destruction upon Jerusalem Ch 3:9-12

Vision of Hope from the Coming One: Ch 4:1 - 5:15

Final triumph of Jerusalem Ch 4:1 - 5:1

Coming mighty leader to be born in Bethlehem and to restore the remnant of Jacob Ch 5:2-15

The Lord's Case against Israel: Ch 6:1 - 7:20

First complaint of God Ch 6:1-5

Israel's first reply Ch 6:6-8

Second complaint of God Ch 6:9-16

Israel's second reply- a confession of sin Ch 7:1-10

Israel's promised blessing to follow judgement Ch 7:11-13

Final plea for Israel - gathered from many nations Ch 7:14-17

Doxology: The triumph of grace Ch 7:18-20

나훔

저자: 나훔

시기: BC 620

요약: 나훔서는 요나서에 기록된 사건들 약 140 년 후에 기록되었다. 그 시기의 나느웨는 전에 가졌던 회개의 태도를 저버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다. 요나는 자비와 회개의 내용을 공포한 반면 나훔은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닥칠 최후의 심판을 공포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써 사용됐던 앗시리아는 이제 자기의 커다란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심판받을 니느웨에 대한 선언: 1:1-15

니느웨가 받을 심판의 성격 1:1-8

니느웨의 파멸을 선고 1:9-11

니느웨에 억압받은 자를 위로함 1:12-15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 2:1-13

공격 당하는 니느웨 2:1-5

정복 당하는 니느웨 2:6-10

황폐해진 니느웨 2:11-13

마땅히 멸망박은 니느웨 : 3:1-19

멸망 당한 이유 3:1-5

멸망으로 얻는 교훈 3:6-13

확실한 멸망 3:14-19

스바냐

저자: 스바냐

시기: BC 635-615

요약: 스바냐는 요시아 왕의 재임 당시의 예언자였다. 그는 종교를 크게 개혁하는 역할을 하였다 . 이 개혁은 나라를 우상숭배로 이끌었던 므낫세와 암몬 왕의 타락한 통치 시기후에 이루어졌다. 스바냐는 심한 죄악을 범한 예루살렘에 닥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예언 하면서 전 국가적으로 회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서실 “ 여호와의 날” 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

서문: 1:1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 1:2-18

심판의 선언 1:2-6

심판의 정의 1:7-13

심판의 구체적인 묘사 1:14-18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권고: 2:1-3:8

회개하도록 부르심 2:1-3

심판에 대한 세세한 묘사와 경고 2:4-3:8

장래에 받을 축복에 대한 약속: 3:9-20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대한 약속 3:9-13

회복에 대한 약속 3:14-20

Nahum

Author: Nahum

Time: 620 BC

Summary: The book of Nahum was written approximately 140 years after the recorded events in the book of Jonah. During that period of time, Nineveh had turned from its repentant attitude and had taken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into captivity. Whereas Jonah proclaimed a message of mercy and repentance, Nahum proclaimed an indictment of doom upon Nineveh, the capital of Assyria. They who were once used as God's tool against the people of Israel and Jerusalem, would now be destroyed because of their great wickedness.

Nineveh's Doom Declared: Ch 1:1-15

Character of Nineveh's Judge Ch 1:1-8

Declaration of Nineveh's Doom Ch 1:9-11

Comfort to Nineveh's Oppressed Ch 1:12-15

Nineveh's Doom Described: Ch 2:1-13

City Besieged Ch 2:1-5

City Overwhelmed Ch 2:6-10

City Made Desolate Ch 2:11-13

Nineveh's Doom Deserved: Ch 3:1-19

Cause of the Overthrow Ch 3:1-5

Lesson of the Overthrow Ch 3:6-13

Certainty of the Overthrow Ch 3:14-19

Zephaniah

Author: Zephaniah

Time: 635- 615 BC

Summary: Zephaniah prophesied during King Josiah's reign. He was responsible for a great religious reform. This reform followed the wicked reigns of Kings Manasseh and Amon, who led the nation into idolatry. Zephaniah pronounces inescapable judgements on Jerusalem for their sins and exhorts national repentance. He further speaks of the "*day of the LORD*", when God will intervene to judge sin.

Introduction: Ch 1:1

A Warning of Impending Judgement: Ch 1:2-18

The judgement announced Ch 1:2-6

The judgement defined Ch 1:7-13

The judgement described Ch 1:14-18

An Exhortation to Immediate Repentance: Ch 2:1 - 3:8

An invitation to repentance Ch 2:1-3

A detailed warning of judgement Ch 2:4-3:8

A Promise of Future Blessing: Ch 3:9-20

The promise of conversion Ch 3:9-13

The promise of restoration Ch 3:14-20

17 과 – 전후 참조 사용법

성서 해설에서 성서 그 자체를 참고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설은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 해설에서 하느님 그 자신보다 더 적절하신 분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 해설에는 이 전후 참조(前後 參照) 사용법이 매우 유용할 때가 있다.

이 전후 참조 사용법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서 번역자들이 성서의 다른 책, 또는 다른 부분들을 지시한 “참조 구절들이”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과 동일한 말씀, 또는 동일한 내용, 또는 동일한 사건들의 구절들을 찾아낼 수 있다.

전후 참조 양식들:

중심부, 중앙 참조

절후주(節後註)/각주(脚註)

별책(別冊) – (Treasury of Scripture Knowledge)

전후 참조 사용법들:

1. 구.신약서 간에 교리(敎理)들/예언들의 연결

누가 1:31 - 33	마리아에게 한 천사 가브리엘의 말 “다윗의 보좌”	사무엘 하. 7:11
요한 1:19 - 28	침례자 요한에게 한 유대인의 질문 “네가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15-18
누가 4:16-21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서를 읽으셨다.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	이사야 書. 61:1,2 레위기 25:9-10 (禧年-禧年-Jubilee)
행전 13:16-37	바울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를 성서에서 인용하여 말하였다..	시편 2:7 이사야서 55:3 시편 16:10

2. 인물들, 장소들, 주제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충분히 해설하였다.

히브리인서. 5:6	멜기세덱 – 그는 누구인가? (히브리서 7 장과 창세기 14:18-20)	시편. 110:4 히브리서 7:17,21
마태복음.12:38 - 42	남방의 여왕 – 그녀는 누구인가?	열왕기 상. 10:1
행전. 1:1	먼저 쓴 글 – 그 글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3
에스겔서. 21:25-27	“누구의 권세인가?”	창세기 49:10

3. 일치하는 기록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가득 채워 놓았다

a.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에 관한 역사

왕상. 15:34	바아사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왕상. 12:28-29 왕상. 13:33; 14:16 왕상. 16:2,19,26
왕상. 15 :23 – 24	아사 왕 발에 병이 걸렸다.	대하.16:12
왕상. 22:41-45	여호사밧왕이 이스라엘왕과 더불어 평화하니라.	대하.18:1 대하.21:6 대하. 22:2 왕하. 8:18

Section 17 - Using Cross References

There is no better commentary on the Bible than itself. No source is more appropriate for interpreting God's Word than God Himself. It is in this area that the use of Cross References can be so valuable.

What is a Cross Reference?

They are verse "references" supplied by the translators which direct the reader to other locations in the Bible where the where the same word or the same or similar event or phrase may be found.

Types of cross references include:

Centre References

End of Verse/Footnotes

Separate books (Treasury of Scripture Knowledge)

Uses of cross references:

1. Link teachings/prophecies between OT and NT

<i>Luke 1:31 - 33</i>	Gabriel's words to Mary "throne of David"	<i>2 Samuel 7:11</i>
<i>John 1:19 - 28</i>	Jew's question to John the Baptist "Art thou that prophet?"	<i>Deuteronomy 18:15-18</i>
<i>Luke 4:16-21</i>	Christ reading from Isaiah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	<i>Isaiah 61:1,2</i> <i>Leviticus 25:9-10</i> <i>(Jubilee)</i>
<i>Acts 13:16-37</i>	Paul speaks to the Jews in Antioch numerous quotes.	<i>Psalms 2:7</i> <i>Isaiah 55:3</i> <i>Psalms 16:10</i>

2. Fill in details on persons, places, subjects, etc.

<i>Hebrews 5:6</i>	Melchizedek - who is he? (Passage in Hebrews 7 also references: <i>Genesis 14:18-20</i>)	<i>Psalms 110:4</i> <i>Hebrews 7:17,21</i>
<i>Matthew 12:38 - 42</i>	Queen of the South - who is she?	<i>1 Kings 10:1</i>
<i>Acts 1:1</i>	The former Treatise - what was it?	<i>Luke 1:3</i>
<i>Ezekiel 21:25-27</i>	"whose right it is"	<i>Genesis 49:10</i>

3. Filling in of details of parallel accounts

a. History of Kings of Israel and Judah

<i>1 Kings 15:34</i>	King Baasha walked in the ways of Jeroboam	<i>1 Kings 12:28-29</i> <i>1 Kings 13:33; 14:16</i> <i>1 Kings 16:2,19,26</i>
<i>1 Kings 15:23 - 24</i>	King Asa diseased in his feet	<i>2 Chronicles 16:12</i>
<i>1 Kings 22:41-45</i>	King Jehoshaphat made peace with the king of Israel	<i>2 Chronicles 18:1</i> <i>2 Chronicles 21:6</i> <i>2 Chronicles 22:2</i> <i>2 Kings 8:18</i>

b. 복음서의 기록들

누가 21:5 - 36	감람산 예언- 7 절에 “저희가 예수께 물었다”고 하였는데 그 “저희는” 누구인가?	마태 복음 24:1-51 (제자들이, 사사로이) 마가 13:1-37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사사로이)
누가 복음 9:7-9	침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하였다. 왜?	마태 복음. 14:1-3 마가복음. 6:14-16
누가 23:39 - 43	십자가에서 행악자의 회개	마태복음. 27:44 마가복음. 15:29-30

4. 구절/내용의 분류

마태복음. 9:10 -13	“나는 제사가 아니고 공흘을 원한다”.	마태복음. 23:23 미가 서. 6:8 사무엘 상. 15:22 호세아 서. 6:6
사도행전. 8:27 -40	빌립과 그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이사야 서. 53: 7, 8
요한복음. 4:3 - 42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5 절)	창세기 33:19 여호수아. 24:32 (이 24 장의 문맥 상의 주석)

b. Gospel Accounts

<i>Luke 21:5 - 36</i>	Mt. Olivet Prophecy - who are the "they" that asked him in v.7?	<i>Matthew 24:1-51</i> (disciples, privately) <i>Mark 13:1-37</i> (in particular, Peter, James, John, and Andrew, privately)
<i>Luke 9:7 - 9</i>	John the Baptist was beheaded by Herod, why?	<i>Matthew 14:1-3</i> <i>Mark 6:14-16</i>
<i>Luke 23:39 - 43</i>	Thief repents on cross	<i>Matthew 27:44</i> <i>Mark 15:29-30</i>

4. Clarification of passage/meaning

<i>Matthew 9:10 - 13</i>	Mercy, and not sacrifice "I will have mercy ..."	<i>Matthew 23:23</i> <i>Micah 6:8</i> <i>1 Samuel 15:22</i> <i>Hosea 6:6</i>
<i>Acts 8:27 - 40</i>	Philip and the Eunuch - Reading from Isaiah	<i>Isaiah 53: 7, 8</i>
<i>John 4:3 - 42</i>	Preaching to Samaritans Location (v. 5)	<i>Genesis 33:19</i> <i>Joshua 24:32</i> (note context of ch 24)

18 과 -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창조하신 동기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그곳에 거주하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21 에서 모세에게 그의 목적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계시록 4:11 에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그의 존귀를 나타내기 위하여 만물이 지음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사야 45:18 에 의하면 지구는 사람으로 거하게 만들어졌다.

"여호와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러한 구절들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알 수 있다:

-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사람이 살도록 지으셨다.
- 그 안의 거주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 그 기쁨은 이 지구를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

"영광"의 정의는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게 그러나 아마도 가장 복잡한 언어로 표현하면:

- 하나님 = 영광 = 의로우심, 사랑, 진리, 지혜

그러므로 이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의 성품과 방법 또는 사상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그의 영광을 반사 (reflect) 하는 것이다.

나타냄 (manifestation)은 "나타내다, 알리게 하다"라는 뜻으로 정의된다.

Section 18 - The Purpose of God Revealed

Why did God Create Man?

We often ask the question, "What was the divine motive? Why did God create the earth and its inhabitants?"

God revealed his purpose to Moses in Numbers 14:21

"But as truly as I live, all 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glory of the Lord."

Creation was for God's glory and honour.

"You are worthy,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ur and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by your will they existed and were created." (Rev. 4:11 NRSV)

The earth was created to be inhabited according to Isaiah 45:18:

"For thus saith the LORD that created the heavens; God himself that formed the earth and made it; he hath established it, he created it not in vain, he formed it to be inhabited: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ne else."

From these few verses we learn:

- God created the earth to be inhabited
- Those inhabitants are created for the glory of God.
- His purpose involves filling the earth with His glory

What is God's Glory?

How does one define glory?

In the simplest but perhaps most complete terms:

- God = glory = righteousness, love, truth, wisdom

To fill the earth with his glory is to fill it with his character, ways and thoughts. To manifest God is to show His glory.

Manifestation is defined as "to reveal or make known".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의 목적

이사야 45:18: "나는 여호와라"

이것은 킹 제임스 번역판이나 개정 번역판에는 야웨 (Yahweh)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뜻은 나는 앞으로 나타날 자("I will be who I will be")이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 3:13-14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의 자질을 나타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취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

여러분이 성서를 읽을 때 얼마나 자주 "이름"이 언급되었는지 살펴 보라. 주의 기도를 생각해 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9)

성서에서 이름은 중요한 뜻을 나타낸다. "그 이름을 ..라 하라." (Matt. 1:21) 이름은 그 사람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다.

요약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되었다. 그가 바라시는 바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나타내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피조물을 보고 만족하시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이것이 그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완전히 가득차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필히 이루어질 것이다.

Purpose of God revealed in his Memorial Name

As in *"I am the LORD"*. Note context in Isaiah: 45:18 (previous page)

LORD, when in capital letters is actually the Hebrew word *Yahweh*, meaning, *"I will be who I will be."*

The name of God was revealed to Moses in the incident of the burning bush:

"Then Moses said to God, 'Indeed, when I come 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say to them, 'The God of your fathers has sent me to you,' and they say to me, 'What is His name?' what shall I say to them?' And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And He said, 'Thus you shall say to the children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Exodus 3:13-14 NKJV)

As children reflect the qualities of their parents, so we must learn to reflect the glory of God by assuming His character. This was the case with Christ which is why he could say, *"He who hath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John 14:9)

As you read the Scriptures, pay attention to how many times the "Name" is referred to. Consider the Lord's Prayer, *"Our Father, Hallowed be thy Name."* (Matthew 6:9)

Names are given great importance in scripture. *"Thou shalt call his name..." (Matt. 1:21)* They are to reveal the purpose of the person. So it is true with God.

Summary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and for His glory (Genesis 1:26). His desire is satisfied in men who willingly choose to manifest His own thoughts and ways. As of yet, this has only been perfectly accomplished in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but God's purpose to completely fill the earth with his glory is certain.

19 과 – 성서의 비평가들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영감을 주장하는 책을 공격하는 비평가들의 모든 형태를 알아야 한다. 이 수업의 범위는 그 비평가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으나, 우리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성서에 대한 비평 중 몇 가지를 요약하고 간단한 대답을 해보았다)

비평 1: “성서는 그것이 하늘에 기원을 둔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려한 원시인들에 의해 쓰여진 고대 문서이다. 이는 성서를 단순히 조잡한 사실과, 허구, 민속, 신화를 모아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

이 비평은 다음에 의해 그릇된 것으로 증명된다:

- 고고학
- 지질학
- 역사

비평 2: “성서가 영감에 의해 쓰여진 계시라는 주장은 “과학적” 진보에 비추어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다. 성서 속에 예견된 것은 우연이나 자연현상 때문에 발생했다.”

이 비평은 다음에 의해 그릇된 것으로 증명된다:

- 예언
- 과학적 방법과 원리의 올바른 적용

비평 3: “만일 성서가 원래 영감으로 쓰여진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언어나 계속적인 개정 등이 본래의 구조를 점차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 비평은 다음에 의해 그릇된 것으로 증명된다:

- 도서목록 테스트
- 사해 문서

잔존하는 신약 원고			
헬라어(그리스어)		그 외	
언설 사본	267	라틴 별가타	10,000+
소문자체	2,764	에디오피아어	2,000+
성구집	2,143	슬라브어	4,101
파피루스사본	88	아르메니아어	2,587
최근 발견물	47	시리아 파세타	350
보하이어	100		
아랍어	75		
고대 라틴어	50		
합계			24,000+

Section 19 - Critics of the Bible

We cannot be students of the Bible without recognising that all types of critics attack such a book, which claims Divine inspiration. The scope of this class is not aimed at proving the critics wrong, but we have attempted to summarise a few of the most often cited criticisms of the Bible, and provide a brief response.

Criticism 1: “The Bible is an ancient document written by primitive men who were trying to force their will on others by claiming the book to be of divine origin. This makes the Bible nothing more than a compilation of crude facts, fiction, folklore and legend”.

This criticism is disproved by:

- Archaeology
- Geology
- History

Criticism 2: “The claim of the Bible to be an inspired revelation is an out of date concept in the light of “scientific” progress. The predictions made in the Bible may have occurred due to coincidence or natural phenomena”.

This criticism is disproved by:

- Prophecy
- Fair application of scientific methods and principles

Criticism 3: “If the Bible were originally the inspired Word of God, languages or constant revision, etc., would gradually change its original design”.

This criticism is disproved by:

- Bibliographical Test
- Dead Sea Scrolls

Surviving New Testament Manuscripts			
Greek		Other	
Uncials	267	Latin Vulgate	10,000+
Minuscules	2,764	Ethiopic	2,000+
Lectionaries	2,143	Slavic	4,101
Papyri	88	Armenian	2,587
Recent Finds	47	Syriac Pashetta	350
Bohairic	100		
Arabic	75		
Old Latin	50		
Total			24,000+

고대 문서 비교	
저자	사본의 수
시저	10
타키투스	20
플리니	7
투기디데스	8
수에토니우스	8
헤로도투스	8
데모스테네스	200
소포클레스	193
아리스토텔레스	49
호머 (일리아드)	643

비평 4: 만일 성서를 쓴 사람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면, 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설명들이 있는가? 기록된 그 설명들은 일치해야 하고, 모순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이 비평은 다음에 의해 그릇된 것으로 증명된다:

- 사실들의 조화
- 일관된 메시지
- 여러 가지 설명들은 실제로 신빙성을 제공한다.
- 사건들의 근접성

문서와 알려진 사본간의 시간차이			
저자	쓰여진 때	최초사본	시간 차이
시저	100 - 44 BC	900 AD	1000 년
타키투스	100 AD	1100 AD	1000 년
플리니	61 - 113 AD	850 AD	750 년
투기디데스	460 - 400 BC	900 AD	1300 년
헤로도투스	480 - 425 BC	900 AD	1300 년
데모스테네스	383 - 322 BC	1100 AD	1300 년
소포클레스	496 - 406 BC	1100 AD	1400 년
아리스토텔레스	384 - 322 BC	1100 AD	1400 년
호머 (일리아드)	900 BC	400 BC	500 년
신약	40 - 100 AD	130 AD	30 년

A Comparison of Ancient Documents	
Author	No. of copies
Caesar	10
Tacitus	20
Pliny	7
Thucydides	8
Suetonius	8
Herodotus	8
Demosthenes	200
Sophocles	193
Aristotle	49
Homer (Iliad)	643

Criticism 4: If the men who wrote the Bible were inspired by God, why are there different accounts of the same event? Should not the accounts recorded be identical and not in seeming contradiction?

This criticism is disproved by:

- Harmony of Facts
- Consistent Message
- Different Accounts actually give credibility
- Proximity to Events

The time between the document and known copies			
Author	Written	Earliest copy	Time span
Caesar	100 - 44 BC	900 AD	1000 years
Tacitus	100 AD	1100 AD	1000 years
Pliny	61 - 113 AD	850 AD	750 years
Thucydides	460 - 400 BC	900 AD	1300 years
Herodotus	480 - 425 BC	900 AD	1300 years
Demosthenes	383 - 322 BC	1100 AD	1300 years
Sophocles	496 - 406 BC	1100 AD	1400 years
Aristotle	384 - 322 BC	1100 AD	1400 years
Homer (Iliad)	900 BC	400 BC	500 years
New Testament	40 - 100 AD	130 AD	30 years

20 과 – 성서의 개관 7

이스라엘의 역사 (5 부): 히스기야에서 시드기야까지

앗수르의 힘

13 편에서 우리는 앗수르 왕국이 하느님께 의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는 데에 이용되었음을 보았다.

앗수르 인들은 남쪽의 유다왕국 또한 침략했으며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일어난다.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할 것을 요구한다. 앗수르인들은 다른 나라의 신들을 정복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유다는 그토록 위대한 군대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히스기야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답은 이사야서 37:33-36 에서 찾을 수 있다:

"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흥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 이사야서 37:33-36

특히 이사야의 예언에서 중요한 주제는 남은 자들에 관한 주제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남은 자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사야서 1:9, 10:20-23, & 37:31-32* 를 보시오.

심판의 기간

두명의 아주 악한 자들, 므낫세와 암몬은 히스기야의 통치에 뒤를 이었다 바알 숭배를 비롯하여 우상숭배가 재정착 되었다. 므낫세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70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자신들의 악함에 대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은 이사야에 의해 처음 예언되고 후에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된다.

므낫세는 앗수르인들에 의해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그는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왕국에 복권시킨다.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간 므낫세는 과거에 한 짓을 돌이키기 위해 힘쓴다. 그는 성전의 예식을 재정립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다. 므낫세는 변했지만 백성들은 그 악한 방식을 계속해 나간다.

암몬은 므낫세의 왕위를 계승한다. 그는 겨우 2 년간 다스렸으나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부추긴다. 암몬의 아들 요시야는 여덟살에 왕위에 올라 31 년간을 통치한다.

Section 20 – Overview of the Bible 7

The History of Israel (Part V): Hezekiah to Zedekiah

The Might of Assyria

In Section 13 we noted that the nation of Assyria was used by God to bring judgement upon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The Assyrians also invaded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conquering almost everywhere, except the city of Jerusalem. This occurred during the time when Hezekiah was King of Judah. Sennacherib's army surrounded Jerusalem and called for its surrender. The Assyrians had overcome all the gods of the other nations, so how would Judah be delivered from such a great army? Hezekiah prayed to God and the answer is found in *Isaiah 37:33-36*: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concerning the king of Assyria: 'He will not enter this city or shoot an arrow here. He will not come before it with shield or build a siege ramp against it. By the way that he came he will return; he will not enter this city,' declares the LORD. 'I will defend this city and save it, for my sake and for the sake of David my servant!'" Then the angel of the LORD went out and put to death a hundred and eighty-five thousand men in the Assyrian camp. When the people got up the next morning - there were all the dead bodies!" *Isaiah 37:33-36**

An important theme, particularly in the prophecy of Isaiah, is that of the remnant. God promised that He would preserve a remnant. See *Isaiah 1:9, 10:20-23, & 37:31-32*

A Period of Judgement

Two very wicked men, Manasseh and Amon, followed Hezekiah's reign. Idolatry was re-established including the worship of Baal. It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Manasseh that God tells the Jews that their nation would be taken into captivity for a period of seventy years. It was first foretold by Isaiah and then prophesied by Jeremiah that the people would be judged for their wickedness.

Manasseh was carried off to Babylon by the Assyrians where he repented of his wickedness, and prayed to the God of his father who re-instated him in his kingdom. Once he was back in his own land Manasseh did what he could to counteract his past deeds. He re-established the temple services and rebuilt the walls of Jerusalem. Although Manasseh changed, the people continued in their wicked ways.

Amon succeeded Manasseh, and though he only reigned for two years he encouraged the people in their evil behaviour. Amon's son Josiah came to the throne at the age of eight and reigned for thirty-one years.

선한 왕

요시야는 그의 개혁으로 주목받는 훌륭한 왕이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는 그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과 숲들을 제거한다. 성전 안은 많이 퇴폐하였으며 요시야가 성전을 치우는 동안 사람들은 율법책을 발견한다. 요시야는 그 책을 읽게 하고는 나라 전체가 자신들에게 요구된 높은 기준들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에게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 없으며, 따라서 그가 행한 개혁이 강화되었다. 선지자 스바냐도 또한 요시야의 재위 기간에 봉사했었다. 불행히도 요시야는 에굽과의 전투에서 때아닌 죽음을 맞이한다.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며 이후 네 명의 왕들은 악을 행하였다.

바빌론의 통치

하느님께서 바빌론 왕국을 일으키셔서 앗수르 왕국과 유다 왕국에 심판을 내리신다. 이 시기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 이야기 함과 동시에 그것의 궁극적인 복구를 손꼽아 기다린다.(예레미야서 23:5-5; 32:31-34 을 보시오.) 선지자 에스겔은 바빌론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죽음을 예언한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에스겔 21:25-27

예루살렘은 약탈당하고 성전은 파괴된다. 이후 70 년간의 포로 생활이 뒤따른다.

포로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후에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상기하여 해석하여 유명해 진다. (다니엘서 2 장을 보시오.)

다니엘서 의 주된 주제는 유대인의 메시야의 출현과 사명에 대한 것이다.

에스더서 또한 이 시기의 기록이다. 유대 여인인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과 결혼해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던 때에 자기 민족들을 구하는 데에 중재역할을 한다. 유대인들의 부림절 만찬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고 발전되었다.

이 시기의 끝무렵 바빌론이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당했을 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복원하도록 왕명을 내린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시기의 지도자들이었다. 그 지역에 살던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면서 성전 재건에 몇 차례의 방해가 있게 된다. 이러한 방해는 사람들을 낙담케 함으로써 무관심하게 만들고 일을 중단하게 만든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을 설득하여 복원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A Good King

Josiah was a great king most noted for his reforms, for at a very young age he cleansed the nation of the idols and groves that his ancestors had established. Much

of the corruption existed in the Temple, and while Josiah was having the Temple cleansed, they found a Book of the Law. Josiah had the book read, then rent his clothes and mourned, for clearly the nation had slipped from the high standards that were required of them.

The prophet Jeremiah must have influenced Josiah, and so the reforms were reinforced. The prophet Zephaniah also ministered during the reign of Josiah. Unfortunately Josiah falls to a premature death in a battle against Egypt. His sons came to power and the next four kings were wicked.

The Rule of the Babylonians

God raised up the kingdom of Babylon to bring judgement upon the nation of Assyria and upon Judah. There were many prophecies during this time of Jewish history. Jeremiah spoke of the coming judgement on Jerusalem but also looked forward to the ultimate restoration. (See Jeremiah 23:5-5; 32:31-34) The prophet Ezekiel was in exile at Babylon and he foretold the demise of Zedekiah – the last king:

"O profane and wicked prince of Israel, whose day has come, whose time of punishment has reached its climax,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ake off the turban, remove the crown. It will not be as it was: The lowly will be exalted and the exalted will be brought low. A ruin! A ruin! I will make it a ruin! It will not be restored until he comes to whom it rightfully belongs; to him I will give it".
Ezekiel 21:25-27

Jerusalem was sacked and the Temple destroyed. There then follows the seventy years captivity.

Amongst those who had been taken into captivity was the prophet Daniel who became famous because of his divinely given ability to recall and interpret the dreams of King Nebuchadnezzar. (See Daniel 2)

A dominant theme in the Book of Daniel is that of advent and mission of the Jewish Messiah.

The Book of Esther is also a record of this time period. Esther, a Jewess, was married to a king of Persia and she interceded to save her people when Haman's plot threatened to destroy the Jews. The Jewish feast of Purim was initiated and developed in celebration of the event.

At the end of this period when Babylon had been overtaken by the Medes and Persians, a decree was issued by Cyrus King of Persia, which allowed the Jews to commence the restoration of the Temple. Zerubbabel and Joshua were leaders during this time. There were several interruptions to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as the other nations living in the land interfered with the work. This opposition discouraged the people who became apathetic and ceased working for a time, before the words of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urged them to re-commence the restoration work.

결론

에스라라는 서기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의 의식들이 '율법'에 따라 복원되게끔 정비한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임명되어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수행한다. 결국, 여러 차례의 왕명을 통해 성전과 도시 성벽이 재건된다.(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시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노인들은 (기뻐서가 아닌) 눈물을 흘린다. 그것은 재건된 새 성전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가를 알아차린 데에 대한 슬픔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이 새 성전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든 개선점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다시 악한 생활로 돌아간다. 구약 최후의 선지자인 말라기는 이러한 악함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결과를 경고한다. 그는 또한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3:1-2, & 4:2

말라기 이후 그리스도 탄생 이전까지 400 년 간 침묵의 시대가 있게 된다.

Conclusion

A scribe named Ezra arrived in Jerusalem and arranged for the services of the Temple to be restored according to the 'Law'. Nehemiah was appointed governor and in association with Ezra carried out a religious reformation. Eventually, through a series of decrees, the Temple and the city walls were re-built. (See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When the Temple was complete, we are told that the old men wept, but not for joy. In sadness they recognised how this new Temple paled in comparison with the glory of the former Temple. In fact, the Glory of God never did fill this new Temple.

However the improvements made by Ezra and Nehemiah did not last long for the priesthood and the people returned to their evil ways. Malachi, the last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 raised his voice against this wickedness and warned the people of the consequences. He also presented a message of comfort and of hope:

"See, I will send my messenger, who will prepare the way before me. Then suddenly the Lord you are seeking will come to his temple;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whom you desire, will come," says the LORD Almighty. But who can endure the day of his coming? Who can stand when he appears?...But for you who revere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out and leap like calves released from the stall". Malachi 3:1-2, & 4:2

There was now a period of silence lasting four hundred years until the birth of Christ.

이 시기의 책들

예레미야서

저자: 예레미야와 바룩

시대: 630-575 BC

요약: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갈 바빌론의 임박한 군사력에 대해 경고한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악한 삶에서 돌아키라고 하나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한다. 그는 거짓교리와 거짓말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 경고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심판의 수단인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의 경고에 귀기울이지 않고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그는 이 포로들이 70 년 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올 것을 예언한다.

개요: 선지자의 부름: 1 장 1-19 절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예언적 계사: 2 장 1 절-45 장 5 절

요시아와 여호야김의 재위 2 장 1 절 – 20 장 18 절

예루살렘 몰락 전까지의 여러 시대 21 장 1 절- 39 장 18 절

예루살렘의 몰락 이후 40 장 1 – 45 장 5 절

각 나라들에 대한 예언: 46 장 1 절 – 51 장 64 절

에굽에 관하여 46 장 1-28 절

블레셋에 관하여 47 장 1-7 절

모압에 관하여 48 장 1-47 절

암몬에 관하여 49 장 1-6 절

에돔에 관하여 49 장 7-22 절

다메섹에 관하여 49 장 23-27 절

아라비아에 관하여 49 장 28-33 절

엘람에 관하여 49 장 34-39 절

바빌론에 관하여 50 장 1 절- 51 장 64 절

역사적 부록: 52 장 1-34 절

유다의 몰락과 사로잡힘 52 장 1-30 절

여호야긴의 해방운동 52 장 31-34 절

Books in this time period

Jeremiah

Author: Jeremiah and Baruch

Time: 630-575 BC

Summary: Jeremiah warns of the impending military force of Babylon that would destroy Jerusalem and enslave the Jews. He urges Jerusalem to turn from its wicked ways, but there is no response. He further warns of the false prophets who are leading the people astray with deceptive doctrines and falsehoods. He urges the Israelites to submit to the Babylonian authority as the instrument of God's judgement. They do not heed his warnings and the people are carried away to Babylon. He predicts that the captives will return after 70 years to rebuild Jerusalem and the Temple.

Introduction: the Prophet's Call: Ch 1:1-19

Prophetic Oracles against Jerusalem and Judah: Ch 2:1-45:5

In the reign of Josiah and Jehoiakim Ch 2:1 - 20:18

Various Periods until Jerusalem's Destruction Ch 21:1- 39:18

After the Fall of Jerusalem Ch 40:1 - 45:5

Prophecies against the Nations: Ch 46:1 - 51:64

Against Egypt Ch 46:1-28

Against Philistia Ch 47:1-7

Against Moab Ch 48:1-47

Against Ammon Ch 49:1-6

Against Edom Ch 49:7-22

Against Damascus Ch 49:23-27

Against Arabia Ch 49:28-33

Against Elam Ch 49:34-39

Against Babylon Ch 50:1 - 51:64

Historical Appendix: Ch 52:1-34

Judah's Fall and Captivity Ch 52:1-30

Jehoiachin's liberation Ch 52:31-34

하박국서

저자: 하박국

시대: 620-605 BC

요약: 이 책은 하박국이 유다의 불의와 하느님께서 악하고 부도덕한 바빌론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을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한다. 하박국은 하느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상관 없이 계속해서 그분의 은총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함을 보게 된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겪을 때 오히려 번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복종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의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비교: 시편 73)

개요: 1: 1

선지자는 유다의 억제되지 않은 폭력에 대해 불평함: 1:2 - 4

야훼의 대답 - 갈대아인들은 징벌의 수단이다: 1:5-11

두번째 문제 - 갈대아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악함: 1:12 - 2:1

야훼의 두번째 대답 - 목적은 분명하며 믿음은 보상 받을 것이다: 2:2-4

유대인 또는 갈대아인을 막론하고 불의에 대해 내려지는 다섯가지 화: 2:5-20

하느님의 심판에 관한 환상: 3:1-16

믿음의 승려: 3:17-19

예레미야 애가

저자: 예레미야

시대: 580 BC

요약: 애가(또는 한탄, 비통)의 의미는 “고통을 표현하다”이다. 이 책에서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몰락하고 나라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슬픔을 나타낸다. 이 책은 예루살렘성과 예루살렘의 고통을 비웃는 주변 국가들에게 내려지는 고통들을 기술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예루살렘이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강조한다.

고난 당하는, 몰락한 시온 성: 1:1-22

황폐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 1:1-11

예루살렘의 딸들의 한탄 1:12-22

고난 당하는 몰락한 시온의 성소: 2:1-22

성벽과 성소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 2:1-10

이 심판을 목격한 자의 한탄 2:11-19

하느님의 진노의 날에 대한 두려움 2:20-22

고난 당하고 고통 받는 시온의 대표자: 3:1-66

하느님께서 그의 종에게 보내신 슬픔 3:1-18

종의 확신의 기도 3:19-42

종의 변호에 대한 기도 3:43-66

고난 당하는 시온의 사람들: 4:1-22

사로잡혀감의 공포와 시온의 높은 자들의 슬픈 운명 4:1-11

시온의 파국의 원인과 절정 - 4:12-20

거만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에돔에 대한 예언 4:21-22

회개하는 시온의 간구: 5:1-22

하느님께 자신의 고난과 치욕을 고려해달라는 시온의 간청 5:1-18

영원한 군주에 대한 마지막 청원 5:19-22

Habakkuk

Author: Habakkuk

Time: 620-605 BC

Summary: The book begins with Habakkuk complaining of injustice in Judah and his inability to understand God's failure to judge the wicked and immoral nation of Babylon. Habakkuk is shown that God's people must continue to trust in His mercy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around them. The wicked appear to prosper while the righteous suffer. However this prosperity of the wicked is temporary. God will not abandon those who obey and follow His commandments: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Cp. Psalm 73)

Introduction: Ch 1: 1

The Prophet's complaint of unchecked violence in Judah: Ch 1:2 - 4

The Lord's Answer - The Chaldean is His instrument of Punishment: Ch1:5-11

Second Problem - The Chaldeans are more wicked than Judaeans: Ch1:12 - 2:1

The Lord's Second Answer - The Purpose is certain, and Faith will be Rewarded: Ch 2:2-4

Five Woes upon Iniquity, whether Jewish or Chaldean: Ch 2:5-20

A Vision of Divine Judgement: Ch 3:1-16

The Triumph of Faith: Ch 3:17-19

Lamentations

Author: Jeremiah

Time: 580 BC

Summary: Lamentation means "to express suffering". In this book, Jeremiah expresses his sorrow regarding the fall of Jerusalem and the captivity of the nation by Nebuchadnezzar's army. The book describes the afflictions brought against the city of Jerusalem and against the surrounding nations who scoff at Jerusalem's affliction. He shows that this is the result of divine judgement for the sins of the people. The book underlines lessons that Jerusalem should learn from its afflictions.

The Suffering, Ruined City of Zion: Ch 1:1-22

Wretched condition of devastated Jerusalem Ch 1:1-11

Lament of the daughter of Jerusalem Ch 1:12-22

The Suffering, Ruined Holy Place of Zion: Ch 2:1-22

God's judgements upon the ramparts and upon his sanctuary Ch 2:1-10

Lament of the eyewitness of this judgement Ch 2:11-19

Terrors of this day of God's anger Ch 2:20-22

The Suffering Representative of Smitten Zion: Ch 3:1-66

The sorrows God sent his servant Ch 3:1-18

The servant's prayer of reassurance Ch 3:19-42

The servant's prayer for vindication Ch 3:43-66

The Suffering People of Zion: Ch 4:1-22

Horrors of the siege, and the sad fate of Zion's nobility Ch 4:1-11

Causes and climax of Zion's catastrophe - Ch 4:12-20

A prophecy against haughty and gloating Edom Ch 4:21-22

Supplications of penitent Zion: Ch 5:1-22

Zion's plea to God to regard her affliction and disgrace Ch 5:1-18

A final address to the eternal Sovereign Ch 5:19-22

요엘서

저자: 요엘

시대: 618-608 BC

요약: 요엘서는 이스라엘 농업에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지독한 메뚜기 떼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요엘은 유다 왕국에 하느님의 심판으로 인한 회개의 날을 환기시킨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야훼의 날”에 관한 사건들에 관련된다. 묘사된 메시지는, 유다가 회개하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그러이 축복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다.

야훼의 날의 징조로서의 메뚜기 떼의 저주: 1:2 - 2:17

3 중의 재앙: 메뚜기 떼, 가뭄, 화재 1:2-20

심판의 날의 징조로서의 재앙 2:1-17

심판을 돌이키고 축복을 주심: 2:18 - 3:21

근접한 미래의 축복 2:18-27

성령의 분출 2:28-32

나라들에게 내려진 심판 3:1-16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축복 3:17-21

다니엘

저자: 다니엘

시대: 605-535 BC

요약: 다니엘서는 두개의 대적하는 힘들: 인간의 왕국과 하느님의 왕국-의 운명을 예언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의 왕국을 지배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니엘의 예언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들에 대해 다루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시대에서부터 앞으로 올 왕국 시대까지 이르는 예언을 포함한다.

개인적 경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1:1- 6:28

인간의 학문이 심판됨 1:1-21

인간의 철학이 심판됨 2:1-49

인간의 숭배가 심판됨 3:1-30

인간의 자만이 심판됨 4:1-37

인간의 불경함이 심판됨 5:1-31

인간의 압제가 심판됨 6:1-28

예언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7:1- 12:13

서쪽 지배권에 내려진 심판 7:1-28

동쪽 지배권에 내려진 심판 8:1-27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 9:1-27

영을 따르는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 10:1-21

땅의 압제자들에게 내려진 심판 11:1-45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자들에게 내려진 심판 12:1-13

Joel

Author: Joel

Time: 618-608 BC

Summary: The book of Joel begins by describing a devastating swarm of locusts which causes national disaster to the agriculture of Israel. Joel calls the nation of Judah to a day of repentance because of this Divine Judgement. The last portion of the book is concerned with events associated with the "Day of the Lord". The message illustrated is that if Judah repents, God will richly bless them and forgive them.

The Locust Plague as the omen of the Day of the Lord: Ch 1:2 - 2:17

A threefold calamity: locusts, drought, and fires Ch 1:2-20

The scourge as the forerunner of the judgement day Ch 2:1-17

The Averting of judgement and giving of blessings: Ch 2:18 - 3:21

The blessings in the immediate future Ch 2:18-27

The outpouring of the divine Spirit Ch 2:28-32

Judgement upon the nations Ch 3:1-16

The blessings on God's people Ch 3:17-21

Daniel

Author: Daniel

Time: 605-535 BC

Summary: The book of Daniel predicts the destiny of two opposing powers: The Kingdom of Men and The Kingdom of God, stressing that "*The most high rules in the kingdom of men*". Daniel's prophecies generally do not deal with Israel as much as with the nations that control Israel. The book of Daniel contains prophecies that span the time from Daniel's day to the coming Kingdom Age.

The Universal Sovereignty of God - as revealed through personal experience:

Ch 1:1- 6:28

Human Learning Judged Ch 1:1-21

Human Philosophy Judged Ch 2:1-49

Human Worship Judged Ch 3:1-30

Human Pride Judged Ch 4:1-37

Human Impiety Judged Ch 5:1-31

Human Oppression Judged Ch 6:1-28

The Universal Sovereignty of God - as revealed by the prophecies: Ch 7:1- 12:13

Judgement on the Western Dominion Ch 7:1-28

Judgement on the Eastern Dominion Ch 8:1-27

Judgement on Israel After the Flesh Ch 9:1-27

Judgement on Israel After the Spirit Ch 10:1-21

Judgement on the Oppressors of the Land Ch 11:1-45

Judgement on the Oppressors of the People Ch 12:1-13

에스겔서

저자: 에스겔

시대: 593-560 BC

요약: 이 책은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 동안 선지자 에스겔의 행적을 기록한다. 그의 메시지는 그와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 및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다. 이 두 집단들은 귀기울여 듣기를 거부하고 바빌론의 법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에스겔은 포로들에게 이스라엘이 벌을 받은 후에 복원이 될 것이고 하느님의 왕국이 일어설 것이라는 복음을 선언했다. 이 미래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되고 하느님의 백성들은 결코 다시는 추방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1:1 - 24:27

개요: 에스겔의 부름 1:1 - 3:27

도시와 나라의 멸망이 예언됨 4:1 - 7:27

예루살렘의 죄와 운명 8:1 - 11:25

포로들의 도덕적 필요성 12:1 - 19:14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이스라엘의 멸망 20:1 - 24:27

외국에 대한 예언-하느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25:1 - 32:32

암몬 25:1-7

모압 25:8-11

에돔 25:12-14

블레셋 25:15-17

두로 26:1 - 28:19

시돈 28:20-26

애굽 29:1 - 32:32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 33:1 - 39:29

선지자: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의 역할 33:1-33

왕실: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목자들과 선한 목자 34:1-31

땅: 이스라엘이 복원되고 결실을 맺게 됨 35:1 - 36:38

민족: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의 부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37:1-28

화평: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곡의 침략에서부터 보호하심 38:1 - 39:29

복원된 공동체의 환상-새로운 성전과 새 율법: 40:1 - 48:35

새 성전의 묘사 40:1 - 43:27

이상적인 봉사와 번제물 체제를 갖춘 새로운 예배 의식 44:1 - 46:24

족속분할에 따라 이스라엘이 재정비 됨 47:1 - 48:35

오바다서

저자: 오바다

시대: 585-565 BC

요약: “야훼의 종”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오바다는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나라 에돔에게 내려질 심판을 선언하였다. 에돔은 야곱(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이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당시 그들이 저지른 폭력 때문에 벌을 받는다.

제목과 개요: 1 절

심판과 에돔: 2-14 절

야훼의 날: 15-21 절

Ezekiel

Author: Ezekiel

Time: 593-560 BC

Summary: This book records the activity of the prophet Ezekiel during the exile in Babylon. His message was directed to fellow captives and to Jews still present in Israel. Both groups refuse to listen and remain unwilling to accept the rule of Babylon. Ezekiel proclaimed good news to the exiles that Israel, after being chastened, would be restored and God's Kingdom would rise. This yet future Kingdom will last forever and God's people will never again be cast out.

Prophecies against Judah and Jerusalem: Ch 1:1 - 24:27

Introduction: The call of Ezekiel Ch 1:1 - 3:27

Overthrow of city and state predicted Ch 4:1 - 7:27

The sin and fate of Jerusalem Ch 8:1 - 11:25

Moral necessity of the captivity Ch 12:1 - 19:14

Israel's coming downfall inevitable and necessary Ch 20:1 - 24:27

Oracles against foreign nations - The Universal Sovereignty of God: Ch 25:1 - 32:32

Ammon Ch 25:1-7

Moab Ch 25:8-11

Edom Ch 25:12-14

Philistines Ch 25:15-17

Tyre Ch 26:1 - 28:19

Sidon Ch 28:20-26

Egypt Ch 29:1 - 32:32

Prophecies of the restitution of Israel: Ch 33:1 - 39:29

The prophet: His function in preparation for the new age Ch 33:1-33

The royal house: The selfish shepherds of Israel and the Good Shepherd Ch 34:1-31

The land: Israel to be restored and made fruitful Ch 35:1 - 36:38

The people: Resurrection of the dry bones of Israel; reunion of Judah and Israel Ch 37:1-28

Peace: The Lord to defend Israel against Gog's invasion Ch 38:1 - 39:29

Vision of the restored community - The New Temple and the new Law: Ch 40:1 - 48:35

Description of the new Temple Ch 40:1 - 43:27

A new service of worship with an ideal ministry and sacrificial system Ch 44:1 - 46:24

Israel reorganised according to tribal divisions Ch 47:1 - 48:35

Obadiah

Author: Obadiah

Time: 585-565 BC

Summary: Obadiah, whose name means "servant of Yahweh", was a prophet who pronounced judgement upon the nation of Edom for its antagonism against Israel. Edom is the nation that is descended from Esau, the twin brother of Jacob (Israel). Edom was to be punished for the violence committed against Israel when they invaded the land.

Title and introductions: Verse 1

Judgement and Edom: Verses 2-14

The Day of the Lord: Verses 15-21

에스라서

저자: 에스라

시대: 538-516 BC

요약: 일반적으로 에스라서는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들과 바빌론이 몰락해서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대인들의 수를 세고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끔 허용된다. 사마리아인들의 대적함으로 성전 건설이 지체된다. 늦어졌으나 성전은 이 시기에 완성이 되고 봉헌된다.

바빌론에서 귀향: 1:1 - 2:70

고레스 왕의 조서 1:1-4

여정의 준비 1:5-11

귀향한 사람들 2:1-70

성전 건설의 시작: 3:1 - 4:24

제단과 토대 3:1-13

작업의 방해 4:1-24

건설 완성: 5:1- 6:22

작업이 계속됨 5:1-5

다리오왕에게 보낸 닷드내의 편지 5:6-17

고레스와 다리오의 왕명 6:1-12

성전이 완공됨 6:13-22

에스라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7:1 - 8:36

에스라의 소개 7:1-10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보낸 편지 7:11-28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8:1-36

대 개척: 9:1 -10:44

비극적인 보고와 에스라의 기도 9:1-15

이방인과의 혼인을 포기함 10:1-17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 10:18-44

Ezra

Author: Ezra

Time: 538-516 BC

Summary: In general, Ezra covers the events of the Jews returning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the decline of Babylon and its eventual overthrow by the Persians. The Jews are numbered and allowed to return to Judah to rebuild the Temple. Samaritan opposition contributes to the slow progress of Temple construction. Despite the delays, the Temple is completed and dedicated during this period.

The Exiles' Return from Babylon: Ch 1:1 - 2:70

The decree of Cyrus Ch 1:1-4

Preparations for the journey Ch 1:5-11

Those who returned Ch 2:1-70

Temple building begins: Ch 3:1 - 4:24

The altar and the foundation Ch 3:1-13

Opposition to the work Ch 4:1-24

The building completed: Ch 5:1- 6:22

Work resumed Ch 5:1-5

Tatnai's letter to Darius Ch 5:6-17

Decrees of Cyrus and Darius Ch 6:1-12

The Temple finished Ch 6:13-22

Ezra's Journey to Jerusalem: Ch 7:1 - 8:36

Ezra introduced Ch 7:1-10

Letter of Artaxerxes to Ezra Ch 7:11-28

The journey to Jerusalem Ch 8:1-36

The Great Reformation: Ch 9:1 -10:44

The tragic report and Ezra's prayer Ch 9:1-15

The abandonment of mixed marriages Ch 10:1-17

List of those with foreign wives Ch 10:18-44

느헤미야서

저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500-460 BC

요약: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유대인 간의 불화와 낙담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성벽이 완성되고 더 많은 포로들이 귀향하여 유대 국민으로 등록을 한다. 느헤미야의 하느님을 향한 헌신은 그로 하여금 다수의 종교 개혁을 이루도록 이끈다. 율법의 공개 낭독과 예배의식의 정비는 이러한 개혁의 일부이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도착: 1:1 - 2:20

예루살렘의 비극적 소식과 느헤미야의 기도 1:1-11

느헤미야의 간구의 허락 2:1-8

느헤미야의 성벽 조사 및 보고서 2:9-20

성벽 건축: 3:1 - 7:4

직공들과 그들의 임무 3:1-32

적들의 대적 4:1-23

지도자로서 느헤미야의 개혁들 5:1-19

음모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성됨 6:1- 7:4

예루살렘의 내정 및 종교 개혁: 7:5 -10:39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의 명단 7:5-73

하느님의 율법의 낭독 및 준수 8:1-18

공개 고백과 약속 9:1-10:39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의 명단: 11:1 - 12:26

성벽의 봉헌과 성전 의식의 조작: 12:27-47

느헤미야의 최종 개혁: 13:1-31

에스더서

저자: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

시대: 510 BC

요약: 에스더서는 역사책으로 간주되며 포로 기간 동안에 쓰여졌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멸절 시키려던 총독인 하만의 계략을 기록하고 있다. 이 계략은 유대인이었던 페르시아의 여왕 에스더에 의해 실패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 부림절의 기원을 알려준다.

와스디가 이혼당함: 1:1-22

에스더가 왕비가 됨: 2:1-23

유대인에게 대한 하만의 계략: 3:1-15

에스더의 결정: 4:1-17

에스더의 첫 번째 연화: 5:1-14

하만이 모르드개 앞에서 굴욕을 당함: 6:1-14

에스더의 두 번째 연화: 7:1-10

모르드개의 반대 법령: 8:1-17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부림절이 제정됨: 9:1 -10:3

Nehemiah

Author: Ezra and Nehemiah

Time: 500-460 BC

Summary: The book of Nehemiah begins with Nehemiah returning from Babylon as Governor of Jerusalem. He plans and manages the rebuilding of the city wall despite discouraging opposition and disunity within the Jewish population. The wall is completed and more exiles return and register as Jewish citizens. Nehemiah's dedication to God drives him to make several religious reforms. A public reading of the Law and arrangements for worship are among these reforms.

Nehemiah's arrival in Jerusalem: Ch 1:1 - 2:20

Tragic news from Jerusalem, and Nehemiah's prayer Ch 1:1-11

The granting of Nehemiah's request Ch 2:1-8

Nehemiah's survey of the walls, and his report Ch 2:9-20

The building of the Wall: Ch 3:1 - 7:4

The workmen and their tasks Ch 3:1-32

The opposition of enemies Ch 4:1-23

Reforms of Nehemiah as governor Ch 5:1-19

The wall finished despite intrigues Ch 6:1- 7:4

Civil and Religious Reforms in Jerusalem: Ch 7:5 -10:39

List of Jews who returned with Zerubbabel Ch 7:5-73

The reading and observance of God's Law Ch 8:1-18

A public confession and covenant Ch 9:1-10:39

Lists of inhabitants of Judah and Jerusalem: Ch 11:1 - 12:26

Dedication of Walls and organisation of Temple Services: Ch 12:27-47

Nehemiah's Final Reforms: Ch 13:1-31

Esther

Author: Not known for certain

Time: 510 BC

Summary: Esther is regarded as a historical book, written during the period of the Captivity. It records the plot of Haman, the Prime Minister, to exterminate the Jews. This plot is foiled by Esther the Queen of Persia who was a Jew. This book gives us the origin of the Feast of Purim.

Vashti divorced: Ch 1:1-22

Esther made Queen: Ch 2:1-23

Haman's plot against the Jews: Ch 3:1-15

Esther's Decision: Ch 4:1-17

Esther's First Banquet: Ch 5:1-14

Haman humiliated before Mordecai: Ch 6:1-14

Esther's Second Banquet: Ch 7:1-10

Mordecai's Counter Decree: Ch 8:1-17

The Jews Victorious, and Purim Instituted: Ch 9:1 -10:3

학개서

저자: 학개

시대: 520-505 BC

요약: 학개가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유다로 귀향한 몇몇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방식을 고려하라”라고 하며 18 년 전에 놓여진 성전의 기초를 완성하라고 권고한다. 사람들이 거기에 답하고 성전이 완공된다(516 BC). 학개는 하느님께서 이교도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유다가 존중 받을 것임을 선언한다.

일깨우는 메시지: 1:1-11

칭찬의 메시지: 1:12-15

격려의 메시지: 2:1-9

확인의 메시지: 2:10-19

확신의 메시지: 2:20-23

스가랴서

저자: 스가랴

시대: 520-490 BC

요약: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살았던 젊은 선지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였다.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는 계시적인 비전을 포함한다. 이 책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체적인 언급을 나타내며 예루살렘의 적들에 대한 심판과 하느님의 왕국의 미래의 영광을 서술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개요: 회개하라는 부르심: 1:1-6

스가랴가 밤에 본 환상: 1:7 - 6:15

말과 말탄자들의 환상 1:7-17

뿔과 대장장이들의 환상 1:18-21

측량자들의 환상 2:1-13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3:1-10

금 촛대의 환상 4:1-14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5:1-4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5:5-11

병거의 환상 6:1-8

여호수아의 대관: 6:9-15

금식에 관한 질문: 7:1 - 8:23

질문 7:1-3

역사의 교훈 7:4-14

이스라엘 축복에 대한 하느님의 목적 8:1-23

국가들과 이스라엘, 메시아의 왕국의 미래: 9:1 -14:21

첫번째 짐 9:1-11:17

두 번째 짐 12:1-14:21

Haggai

Author: Haggai

Time: 520-505 BC

Summary: Haggai writes to the few Jews who return to Judah from the captivity in Babylon. He exhorts them to “*consider their ways*” and to complete the Temple foundation which had been laid 18 years before. The people respond and the Temple is completed (516 BC). Haggai pronounces that pagan empires will be overthrown by God and Judah will be esteemed.

A Message to Arouse: Ch 1:1-11

A Message to Commend: Ch 1:12-15

A Message to Encourage: Ch 2:1-9

A Message to Confirm: Ch 2:10-19

A Message to Assure: Ch 2:20-23

Zechariah

Author: Zechariah

Time: 520-490 BC

Summary: Zechariah was a young contemporary of Haggai. He encouraged the people to rebuild the Temple. Like Daniel and Revelation, this book contains apocalyptic visions. It contains detailed references to the coming Messiah. The book concludes with descriptions of the enemies of Jerusalem being judged and the future glory of God’s kingdom.

Introduction: The Call to Repent: Ch 1:1-6

The Night Visions of Zechariah: Ch 1:7 - 6:15

Vision of the horses and riders Ch 1:7-17

Vision of the horns and artisans Ch 1:18-21

Vision of the surveyor Ch 2:1-13

Vision of Joshua the high priest Ch 3:1-10

Vision of the golden lamp stand Ch 4:1-14

Vision of the flying roll Ch 5:1-4

Vision of the woman in the ephah Ch 5:5-11

Vision of the chariots Ch 6:1-8

The Crowning of Joshua: Ch 6:9-15

Questions concerning Fasting: Ch 7:1 - 8:23

The question Ch 7:1-3

The lesson from history Ch 7:4-14

God’s purpose of blessing for Israel Ch 8:1-23

The Future of the Nations, Israel, and Messiah’s Kingdom: Ch 9:1 -14:21

The first burden Ch 9:1-11:17

The second burden Ch 12:1-14:21

말라기서

저자: 말라기

시대: 500-475 BC

요약: 말라기의 메시지는 영적 쇠퇴기에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그것은 아마도 성전 재건 후 80 년이 지난 뒤였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야의 약속들이 실현되지 않은 때였다. 그 결과 제사장들은 하느님의 언약을 등한시켰으며 사람들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태도가 방종해지고 나태해졌다

거룩하지 않은 나라: 1:1-14

믿음이 없는 제사장들: 2:1-10

불성실한 사람들: 2:11-16

강도들의 나라: 2:17 - 3:15

믿음을 가진 남은 자가 의로움을 입증 받을 것임: 3:16 - 4:6

Malachi

Author: Malachi

Time: 500-475 BC

Summary: Malachi's message came to the people in a time of great spiritual decline. It was approximately 80 years after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and the promises of the coming Messiah had not yet been realised. As a result the priests had neglected God's covenants and the people had become lax and casual in their attitude toward God and worship.

An Unholy Nation: Ch 1:1-14

A Faithless Priesthood: Ch 2:1-10

A Treacherous People: Ch 2:11-16

A Nation of Robbers: Ch 2:17 - 3:15

A Faithful Remnant to be Vindicated: Ch 3:16 - 4:6

21 과 – 하나님의 나라

“왕국(王國)이란 무슨 뜻인가?

왕국(Kingdom)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1. King 왕이
2. Dominion 다스리는 영토이다

두 낱말을 결합하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다스리는 땅은 이 세상이다 - (이사야 9:7)

왕국(Kingdom)의 구성 요소

통치자 왕

- 그 왕은 하느님이시다 (누가 복음. 8:1; 스가랴 14:1-4, 9),
-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를 대표하여 왕이 될 것이다(마태복음 2:2; 요한복음 18:37; 계시록 19:16)

공동 통치자들

- 왕은 혼자 통치하지 아니하고, 여러 조력자(助力者)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조력자들은 그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며 영생을 받을 자들이다 (로마서. 8:17; 디모데 후서. 2:12; 계시록 5:10; 20:6).
- 이 조력자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거룩하게 된 자들”)

신민(臣民)

- 하느님 나라에는 현재의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 (이사야 65:17-25; Zech 14:16-19)

영토

- 하느님 나라의 영토는 이 지구 전체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2:35, 44; 마태복음. 5:5, 6:10; Rev. 5:10)

수도(首都)

-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사야서 2:2-3; 스가랴서 14:16, 20-21; 마태복음. 5:35)

통치 법률

- 통치 법률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될 것이다 (이사야서. 2:2-4)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존재하였다

성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다(대상 28:5; 29:23; 행 1:5). 그 나라는 멸망하였으나(겔 21:25-27),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주시어 의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눅 1:32-33; 사 11:1-11).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실 때 이 단어들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9-10)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지으신 대로 이 땅이 매우 좋기를 바라신다. 이 땅이 받은 저주가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풍족한 양식을 거둘 수 있기 원하시고 죽음이 떠나기를 원하신다.

Section 21 – The Kingdom of God

What does a “Kingdom” mean?

The word “Kingdom” is made up of two words:

1. King
2. Dominion (“dom” for short)

If we put these two words together, we have “the dominion of the King”

The King is the Lord Jesus Christ, the dominion is the world (Isa. 9:7)

What makes up a Kingdom?

A King

- The King is God (Luke 8:1; Zech 14:1-4, 9),
- But the Lord Jesus Christ will be the King who represents his Father (Matt 2:2; John 18:37; Rev 19:16)

Co-Rulers

- The King does not do all the work himself, but has helpers. The helpers to Christ will be those found worthy to enter the Kingdom and given everlasting life (Rom 8:17; 2 Tim 2:12; Rev 5:10; 20:6).
- These helpers are called the Saints (“sanctified ones”)

Subjects

- There will be people who are mortal in the Kingdom of God (Isa. 65:17-25; Zech 14:16-19)

Land (Dominion)

- The Kingdom of God will cover the whole earth/world (Dan 2:35, 44; Matt 5:5, 6:10; Rev. 5:10)

Capital City

- Jerusalem. A temple will be built in Jerusalem (Isa 2:2-3; Zech 14:16, 20-21; Matt 5:35)

Laws

- Laws will go forth from Jerusalem (Isa. 2:2-4)

The Kingdom of God existed in the Past

The bible calls the nation of Israel, the Kingdom of God (1 Chron 28:5; 29:3; Acts 1:6). The Kingdom was overturned (Ezekiel 21:25-27) and will be given to the Lord Jesus Christ (Luke 1:32-33) when he returns to the earth and he will rule in righteousness (Isa. 11:1-11).

What will the future Kingdom on earth be like?

When Jesus taught his disciples how to pray to God he used these words.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Matt 6:9-10)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really about. God wants the earth to be very good, as it was when he first made it. He wants the curse on the earth to be removed, so that food is plentiful for all people. He wants death to be removed.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높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들은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이 일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72 편은 성서에서 장차 세상에 세워질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한 부분이다. 이것들을 모두 시편 72 편에서 찾을 수 있다.

- 예수가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위에 확장될 것이다.
- 다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양식이 제공될 것이다.
-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온 세상의 주이며 왕으로 인정할 것이다.
- 가난한 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 받을 것이다. 예수가 그들을 54 고통 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 그는 대적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 그는 의와 평화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Above all God wants the earth to be filled with people who worship and honor him. These are people who belong to him as his children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And he wants them to live for ever. This is what is meant by God's will being done on earth. It will happen when Jesus returns from heaven to set up God's kingdom on the earth.

Psalm 72 is a chapter in the Bible which tells us what the future Kingdom on earth will be like. We find all these points in Psalm 72:

- Jesus will reign as King for God
- The Kingdom of God will extend over the whole earth.
- No one will be hungry ever again. There will be food for everyone.
- Everyone on earth will recognise Jesus as the Lord, the King of the whole world.
- People who are poor and in trouble will have their prayers answered. Jesus will deliver them from their problems.
- He will destroy those who oppose him.
- He will set up a kingdom which will be full of righteousness and peace.
- The Kingdom of God will last for ever.

22 과 – 비밀(秘密)이란?

그리스도께서 사역(使役)하신 동안,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犧牲)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 없이 그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傳播)하려 그들을 내보내시니라.” (누가 복음 9:2)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人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 우리라 하시되, 자회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 복음 9:44-45)

사도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했었다면, 그의 죽음은 그가 그 그리스도였었다는 그들의 믿음을 확신(確信)하게 하였을 것이다.

“저희는 성서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 복음 20:9)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줄 생각났더라” (요한 복음 12:16)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 전파를 다시 시작하기 前에 성령이 복음의 이 비밀을 나타내셨다.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秘密)을 알게 하신 것은...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에베소서 3:3-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永世) 전부터 감춰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라.” (로마서 16:25,26)

“이 비밀은 만세(萬世)와 만대(萬代)로부터 옴으로 감춰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 (골로새서 1:26)

이미 이루어진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들은 그 나라에 관한 복음에 포함된 사실들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은 복음과 연관된 하나의 중요한 주제(主題)이다.

요약(要約)

- 예수를 포함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양상은 그 사도들의 시대가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하나의 비밀이었다.
- 그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셨다.
- 한때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
- 하느님께서 세대들을 통하여 천천히 그의 계획을 계시하여 알게 하셨다.
- 이제는 그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 시대부터 주의 제자들은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使徒行傳 28:31), 또한 使徒行傳 8:12 을 보라.

인간 구원의 조건들은 그 계시된 비밀에 근거한 것들이다..

Section 22 - Mystery?

During the ministry of Christ, his disciples preached the Gospel of the Kingdom without teaching about his sacrificial death. They never thought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He sent them to preach the kingdom of God." (Luke 9:2)

"Let these sayings sink down into your ears: for the Son of man shall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men. But they understood not this saying and it was hid from them that they perceived it not." (Luke 9:44-45)

Had the apostles understood the things spoken by Jesus, his death would have confirmed their belief that he was the Christ.

"For as yet they knew not the scripture, that he must rise again from the dead" (John 20:9)

"These things understood not his disciples at the first: but when Jesus was glorified, then remembered they these things were written of him, and that they had done these things unto him." (John 12:16)

After Christ's ascension to heaven, the Spirit revealed this mystery of the Gospel to the apostles before they resumed their preaching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mystery...which in other ages was not made known unto the sons of men, as it is now revealed unto his holy apostles..." (Ephesians 3:3 - 5)

"...the preaching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 which was kept secret since the world began, but now is made manifest." (Romans 16:25,26)

"...the mystery which hath been hid from ages and from generations, but now is made manifest ..." (Col 1:26)

The prophecies concerning Jesus Christ that have been fulfilled are the facts embraced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mystery made known is an important theme connected with the gospel.

Summary

- Aspects of the Kingdom of God involving Jesus were a mystery to the world until the apostles' day
- The Apostles received an understanding of the mystery of Christ
- What was once a mystery is no longer a mystery
- God has revealed His plan slowly through the ages
- The revelation is complete

From that time, his disciples continue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and teaching those things which concern the Lord Jesus Christ" (Acts 28:31) see also Acts 8:12.

The conditions of salvation are based upon the revealed mystery.

23 과 - 성서의 개관 8

신구약 성서 사이의 시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그 사이에 하느님은 약 400 년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다.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고 그는 서구세계의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리스 문화는 이후 약 1000 년 동안 문명에 영향을 미친다. 오랜 로마 제국 기간에 걸친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알렉산더는 33 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네 명의 장군들이 제국을 분할하게 된다. 그 중 두 명의 세력이 가장 우세했는데, 그들은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와 북쪽의 셀레우쿠스였다. 그들은 알렉산더의 제국 전체를 둘로 나누어 왕조를 건립하였으며 그 왕조들은 거의 그리스도 시대까지 존속하였다. 이스라엘 땅은 셀루키아의 지배를 받았으나 두 국가의 경계선에 위치함으로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셀루키드 제국의 통치자들 중 최악이자 가장 잔인하였다. 그는 자신의 조상 (彫像)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스스로가 제우스신의 현현(顯現)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그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굴욕감을 주었다.

결국 유력한 유대인 집안인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되찾는다. 성전은 다시 한번 정화된다. 유대인 축제인 하누카(빛의 축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유래하였다. 성전의 기름 공급을 고갈시키고, 하루 동안 사용할 양으로 8 일 동안 태우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포함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제국과 셀루키드 제국을 집어삼킨 로마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통치하였다. 하느님 백성의 나라는 거의 500 년 가량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로마는 세계적 열강이었으나 그 문화 및 제국 전역에서 사용된 언어는 그리스의 것이었다. 1 세기 중엽에 이르러 유대인 사회는 제국 전역에서 대부분 그리스어를 사용하였다.

로마 시민들과 '자유민(노예신분 이었다가 해방된 사람들)은 제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혼합되고 열린 문화가 존재하였으며 그것은 실제 그리스도 교가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였다.

교통은 용이하였으며 어디든지 도로가 있었다. 그 도로들은 잘 건설되어있었고 모든 기후 조건에도 사용될 수 있었다. 우리는 19 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그 같은 건축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 로마에서는 모든 주요 도시로 이르는 주요 간선 도로들이 있었다.

해양 무역 항로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으며 평화와 자유, 안전의 '팩스 로마나(로마의 평화)'가 제국 전역에 걸쳐 로마 군대에 의해 유지되고 시행되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바울의 광대한 복음 전도 여행이 오로지 '팩스 로마나'로 인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Section 23 – Overview of the Bible 8

Period Between the Testaments

There is a period of some 400 years silence from God, between the end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beginning of the New. The Persian Empire was overthrown by Alexander the Great. H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estern world and Greek culture was to influence civilisation for almost the next 1000 years. Culture throughout the long period of the Roman Empire, was predominantly Greek.

Alexander died young, at age 33. After his death, his four generals divided the Empire between them. The two most powerful prevailed, Ptolemy in the South – Seleucus in the North. They carved up the whole of Alexander's Empire between them, and established dynasties that lasted almost to the time of Christ. The land of Israel came under the Selucids, but being on the border between the two, became a place of constant dispute.

Antiochus Epiphanes was the worst and most cruel of the Selucid rulers. He erected an image of himself in the Temple in Jerusalem and proclaimed himself a manifestation of the god Zeus. He wrought terrible evils on the Jews and humiliated them in their worship.

Eventually, a strong Jewish family, the Maccabees rose in revolt, and reclaimed Jerusalem. The Temple was once again, purified. The Jewish feast of Hannakuh (or festival of lights) originates from this difficult period. A tradition arose that the depleted Temple oil supply, sufficient for one day only, actually burned for eight days.

The Jews ruled themselves until the Roman Empire swallowed up the Ptolemaic and Selucid empires including Judea and Samaria. The nation of God's People had been dominated by foreign powers for most of 500 years, and they were looking for a saviour.

Rome was the world power, but the culture and the language spoken in much of the Empire, was Greek. By the middle of the first century, there were communities of natural Jews, most Greek speaking, all around the empire.

Roman Citizens and 'freed-men' – slaves, who had been granted their freedom from all countries of the world, could and did, move freely around the empire. There was therefore, an extremely mixed and open-minded culture, which actually provided fertile ground for the seeds of Christianity.

Communication was good. The roads went everywhere. They were well constructed and had all weather surfaces. We did not get back to such standards of construction until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re were main arterial roads from Rome to all the key cities.

The sea trading routes were extensive. And peace, freedom and safety - the 'Pax Romana' was maintained and enforced by the Roman legions throughout the empire. In Acts we read of Paul's extensive travels preaching the gospel, made possible only by the 'Pax Romana'.

하느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자신의 아들과 함께 복음이 전 세계로 바르게 확산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에 이 세계로 보내 셧다. 1 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중동, 북아프리카, 터키, 그리스, 이태리 전역에 에클레시아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니엘의 예언에서부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복음은 두 명의 예언의 실현을 기다리는 유대인에 대해 말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다. 여자 선지자 안나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였다.

30 년이 흐르고 예수께서 전통적으로 왕의 동물이었던 당나귀등에 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부활한 후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사도행전 1:6)라고 묻는다.

God had brought his son, with the message of salvation into the world at the optimum time for the gospel to be disseminated rapidly throughout the world. By the end of the 1st Century, there were Ecclesias throughout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Turkey, Greece and Italy.

From Daniel's prophesy, the Jews were expecting Messiah. Luke's Gospel tells of two prophesy watching Jews, Simeon who was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was promised that he would see the Lord's Christ. The Prophetess Anna, spoke to all those *"that looked for redemption in Jerusalem"*

Thirty years on, when Jesus rode into Jerusalem on a Donkey, the traditional king's animal, the people sought to make him king. After his resurrection, and before his ascension the disciples ask: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Acts 1:6)

24 과 - 성서 용어 III

족장(族長) - 한 종족(宗族)의 시조(始祖),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

“떨기세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7:4)

시편(詩篇) - 악기로 연주한 음악, 음악에 맞춘 詩.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역대상 16:9)

참람(僭濫)함 - 욕설, 나쁜 말을 함, 중상(中傷)함,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람 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 10:33)

유혹(誘惑) - 꼬이다, 사람의 고귀함, 선함이 시험을 받다. 외부 환경이나 또는 내적 욕망에 의해 일어나는 죄에 대한 유혹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딤후 6:9)

겸손(謙遜) - 겸손, 스스로 낮추는 것, 약함과 혼동하지 말 것)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민수기 12:3)

적(敵)그리스도 - 그리스도를 대항, 대적(對抗, 對敵)하는 者. 단수 또는 복수로 사용됨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이 7)

중보자(仲保者) - 평화와 우호(友好)를 위하여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자, 전달의 매개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 2:5)

메시아 -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語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語.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요한 1:41).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4:25)

유월절(逾越節) - 유대인의 한 절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때에 있었던 최후의 재앙(災殃)과 연관된 절기(節氣).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12 12:11. 또한 12 - 14 節을 보라)

Section 24 - Bible Terminology III

Patriarch - Father and ruler of a family, Abraham & his immediate descendants

"Now consider how great this man was, unto whom even the patriarch Abraham gave the tenth of the spoils." (Hebrews 7:4)

Psalms - Instrumental music; by implication, a poem set to music.

"Sing unto him, sing psalms unto him, talk ye of all his wondrous works." (Chronicles 16:9)

Blasphemy - Railing, evil speaking. To limit the power of God in any way.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that taketh His name in vain" (Exodus 20: 7)

Temptation - To try or tempt. The trial of man's integrity, virtue, constancy; also an enticement to sin, whether arising from the desires or from the outward circumstances.

"But every man is tempted when he is drawn away of his own lust and enticed" (James 1:14)

Meek - Humble, lowly, teachable (not to be confused with weak)

"Now the man Moses was very meek, above all the men which were upon the face of the earth" (Numbers 12:3)

Antichrist - Those found in opposition to Christ. Can be singular or plural

"Little children, it is the last time: and as ye have heard that antichrist shall come, even now are there many antichrists; whereby we know that it is the last time." (1 John 2:18)

Mediator - One who intervenes between two to restore peace and friendship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1 Timothy 2:5)

Messiah - Anointed; the Hebrew form of the Greek word Christ

"We have found the Messiah, which is, being interpreted, the Christ" (John 1:41).

"I know that Messiah cometh, which is called Christ" (John 4: 25).

Passover - to pass over. Connected with the final plague and Israel's deliverance from Egypt.

"And thus shall ye eat it; with your loins girded, your shoes on your feet, and your staff in your hand; and ye shall eat it in haste: it is the LORD'S passover." (Exodus 12:11 see also verses 12 - 14)

구원자 - 구해주는 자.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피할 바위지요 나의 방패지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높은 망대지요 나의 피란처지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삼하 22:3, 또한 요한 1:14 절을 보라).

이스라엘 - “하나님의 왕자” 라는 뜻으로 야곱족속에게 주신 이름: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유대인으로 알려짐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창 32:28)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히 8:10)

아브람 -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명.

창 12 장 1 절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람의 나중 이름.

창 17:5 :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권고(勸告) 하다 - 탄원(歎願)하다, 위로하다, 간절히 부탁하다, 강력히 촉구하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1 또한 히브리서 3:13 을 보라).

교회 (에클레시아) - 부름을 받아 나온 무리, 회중.

마태복음 18:17 :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Saviour - One who saves

"The God of my rock; in him will I trust: he is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high tower, and my refuge, my saviour; thou savest me from violence." (2 Samuel 22:3 see also 1 John 4: 14)

Israel - Israel meaning "a prince of God", was a name given to the patriarch Jacob. The family or descendants of Jacob. The nation of Israel, today known as the Jews.

"And he said, Thy name shall be called no more Jacob, but Israel: for as a prince hast thou power with God and with men, and hast prevailed." (Genesis 32:28)

"For this is the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ose days, saith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to their mind, and write them in their hearts: and I will be to them a God, and they shall be to me a people." (Hebrews 8:10)

Abram - father

"Now the LORD had said unto Abram, Get thee out of thy country, and from thy kindred, and from thy father's house, unto a land that I will shew thee:" (Genesis 12:1)

Abraham - Father of a multitude

"Neither shall thy name any more be called Abram, but thy name shall be Abraham; for a father of many nations have I made thee." (Genesis 17:5)

Exhort - Beseech, comfort, entreat, urge strongly

"Furthermore then we beseech you, brethren, and exhort you by the Lord Jesus, that as ye have received of us how ye ought to walk and to please God, so ye would abound more and more." (1 Thessalonians 4:1 see also Hebrews 3:13)

Church - Greek = "ecclesia" = "called out ones," assembly, gathering of people

"And if he shall neglect to hear them, tell it unto the church: but if he neglect to hear the church, let him be unto thee as an heathen man and a publican." (Matthew 18:17)

25 과 – 우리 성서

히브리어 구약 원문(BC.1500-300)

구약 성서는 서기들에 의해 대개 심대에 붙은 가죽 두루마리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나중에 파피루스가 사용 되었다.). 기원전 약 1 세기 경에 쓰여진 것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히브리어 두루마리는 1947 년 사해 근처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헬라어 구약 70 인역

기원전 200 년 까지 이스라엘 밖의 많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약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70 명의 학자들이 이 번역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믿어지며 이는 70 인역이라고 알려져 왔다.

헬라어 신약 원문 (AD.40-80)

신약 시대에 블레셋(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구어로 아람어를 사용하였으나 문어는 헬라어를 사용하여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에 기록하였다. 헬라어로 된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묶여져 최초의 완전한 책자 형태의 성서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가장 잘 알려진 사본은 대영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시내사본이다

제롬의 라틴어역 벌가타 (AD 380)

서부 유럽에서 라틴어는 헬라어를 대체하였고 약 AD 400 년 경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는 벌가타 또는 공동번역이라고 알려진 라틴어 성서의 최종 개역본이 만들어졌다.

앵글로 색슨어

노섬벌랜드 린디스판(거룩한 섬)의 알프레드 왕, 베데, 그리고 수도사들이 라틴어 성서의 일부를 번역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앵글로 색슨어 번역은 10 세기의 린디스판 가스펠이다.

영어로 된 성서

1384 년 최초의 영어 성서가 존 위클리프에 의해 만들어 졌다

1454 년 인쇄술의 발명은 성서의 생산에 혁명을 가져왔다. 윌리엄 틴데일이 1525 년 최초로 영어로 된 신약을 출판하였으며 마일즈 커버데일이 1535 년 최초로 영어 완역 성서를 출간하였다.

라틴어역 벌가타에 근거한 두아이-라임즈 성서가 1609 년 출판되었다.

영국의 제임스 1 세가 1611 년 새로운 영어 번역본을 출판하라는 명을 내렸고 이 성서 번역본은 흙정역 성서 또는 킹 제임스역 이라고 한다.

Section 25 - Our Bible

The Hebrew Old Testament (BC 1500 – 300)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were written by scribes, mainly in Hebrew, usually on scrolls of leather attached to rollers (although papyrus was also used at a later stage). The earliest surviving Hebrew scrolls, dating from around the first century BC were found in 1947 in caves near the Dead Sea.

The Greek Old Testament

By 200 BC many Jews outside Israel spoke very little Hebrew, so the Old Testament was translated into Greek in Alexandria. Seventy scholars were believed to be involved in this translation which became known as the Septuagint Version.

The Greek Bible (AD 40-80)

In New Testament times the Jews in Palestine spoke Aramaic, but they wrote in Greek usually on papyrus paper made from reeds. The Greek Old and New Testaments were brought together to make the first complete Bibles which were bound in *Codex* or book form. The most well known are the Codex Alexandrinus and the Codex Sinaiticus – both in the British Museum.

The Latin Bible (AD 380)

In Western Europe Latin superseded Greek and around 400 AD Jerome, using Greek and Hebrew texts, made the final revision of the Latin Bible - known as the Vulgate or common version.

Anglo Saxon

King Alfred, Bede, and monks in Lindisfarne (Holy Island) Northumberland translated parts of the Latin Bible. The earliest surviving Anglo Saxon translation is the tenth century *Lindisfarne Gospels*.

The Bible in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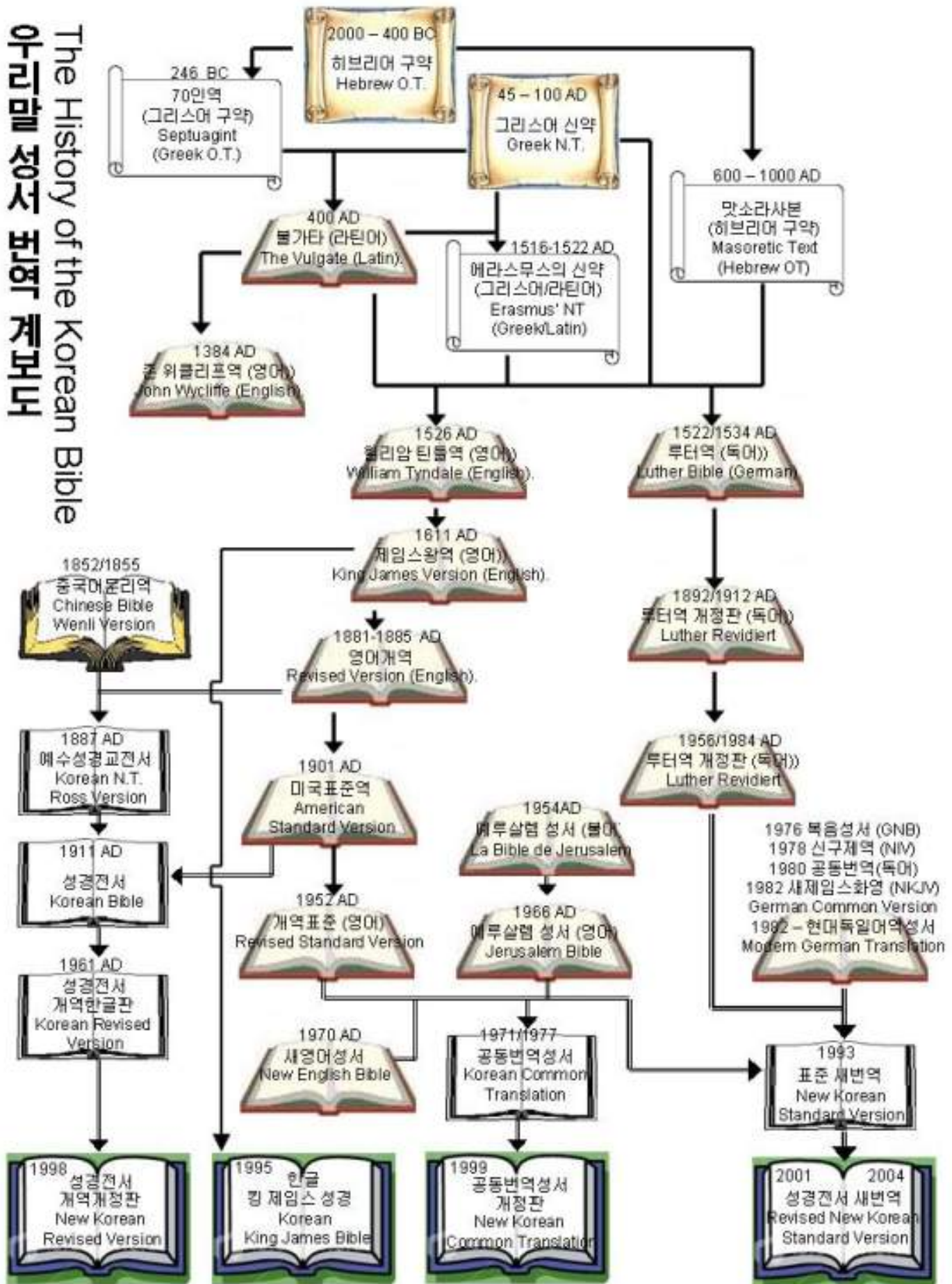
In 1384 AD the first Bible in English was produced by John Wyclif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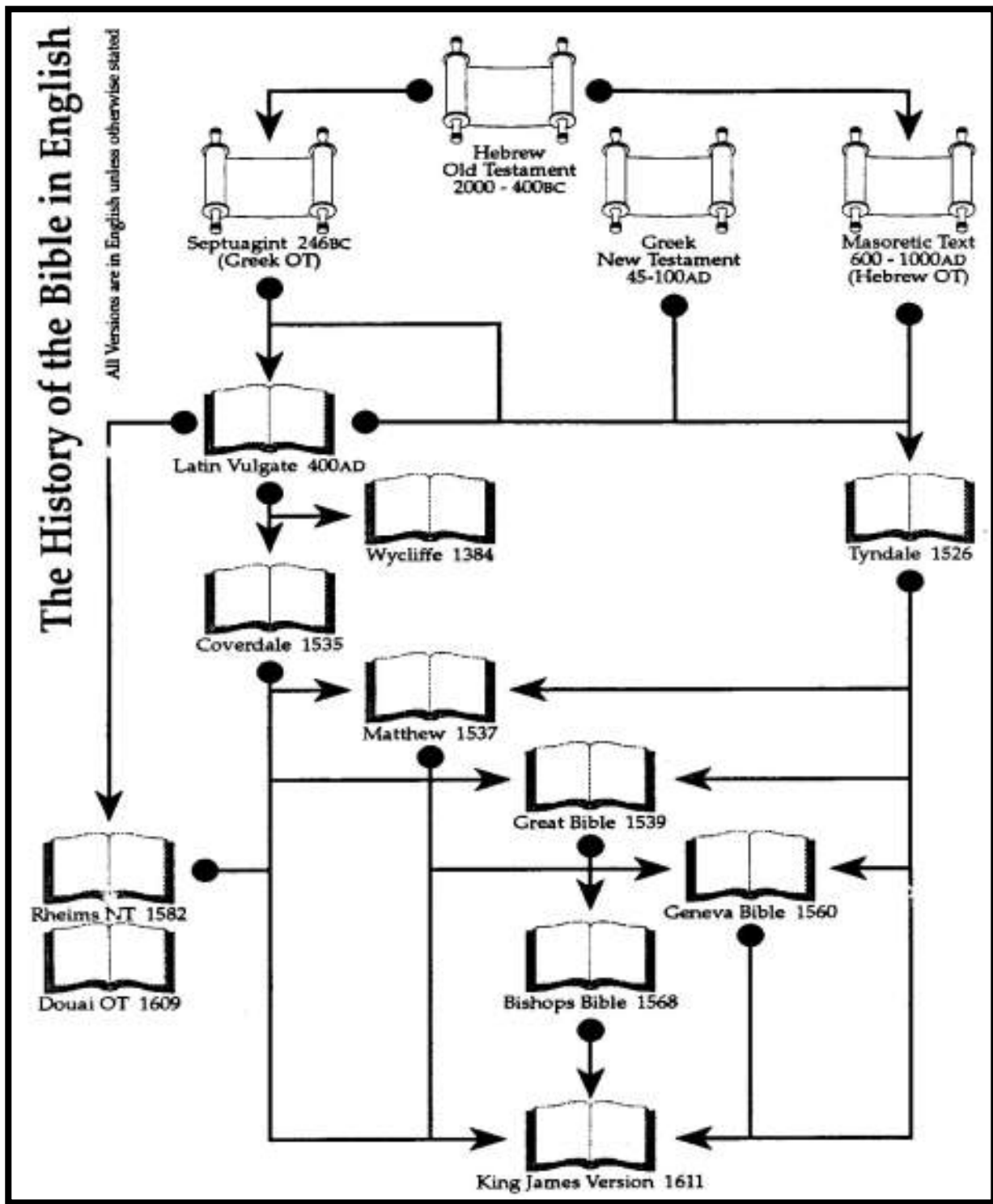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1454 revolutionised the production of Bibles. William Tyndale published the first New Testament to be printed in English in 1525, and Miles Coverdale produced the first complete Bible to be printed in English in 1535.

The Douai – Rheims Bible, based on the Latin Vulgate was published in 1609.

King James I of England authorised a new English translation to be made which was published in 1611 and is called the *Authorised Version* or the *King James Version*.

The History of the Korean Bible 우리말 성서 번역 계보도





우리말 성서 번역에 관하여

-날권 번역에서 완역본에 이르기 까지

성서 66 권 가운데서 날권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882 년 부터였다.

로스 목사를 중심으로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이응찬(李應贊), 백홍준 (白鴻俊), 서상륜(徐相崙), 이성하(李成夏) 등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각각 개별 날권으로 번역해서 출판한 것이 1882 년이었다. 한편, 발췌성경이 선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신문인 「조선크리스도인회보」가 창간호부터 매주 공과 공부용 성서 본문을 연재하였는데, 1897 년 2 월 2 일자부터 같은 해 7 월 14 일까지 연재된 사무엘기상하와 열왕기상의 번역이 주목할 만하다. 1898 년 6 월 22 일부터 그 다음 해 1899 년 6 월 14 일까지는 창세기도 번역되어 연재되었다. 1898 년에 나온 피터스(彼得)의 「시편촬요」는 시편 150 편 가운데에서 62 편을 골라 번역한 것이다. 성공회 쪽에서 나온 「照萬民光」(1894), 「舊約撮要」(1899), 「聖經要課」(1902), 「聖經選要」(1906), 「聖詩選篇」(1937), 「聖詩全篇」(1961) 등도 발췌 번역들이다.

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가 지났다. 우리말 성서 번역의 한 세기 역사에는 성격상 몇 개의 마디와 매듭들이 있었다. 먼저 성서공회가 신구약 성서를 완역해 낸 1911 년은 우리말 성서 번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다.

1882 년부터 1911 년까지는 신약 날권 번역시대 라고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신약 27 권이 날권으로, 또는 몇몇 날권의 합본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1887 년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완역 신약 「예수성교전서」가 나온다. 로스팀의 번역 외에도 이수정의 날권 번역도 괄목할 만하다.

로스역과 이수정역이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반하여, 국내에서도 날권 번역이 나오기 시작한다. 상설성경실행위원회(常設聖經實行委員會, The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 산하 성경번역자회(聖經翻譯者會, The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에서 번역한 것이다.

1900 년에는 드디어 「신약전서」 완역본이 나온다.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 신약의 경우는 거의 모든 책들이 이처럼 먼저 날권으로 출판되어 나왔었다.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후원을 받은 로스역 번역진의 번역이나, 우리 나라에 와 있던 영국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의 공인 번역 역시 신약의 경우 날권 번역이 완료되는대로 출판하였다.

구약의 경우에도 날권 출판을 볼 수 있다. 몇몇 날권이 나온 다음에, 1911 년에 「구약전서」가 나온다. 구약의 경우는 39 권의 개별 출판보다는 39 권 합본 구약전서 출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 1911 년에 미국성서공회는 우리말 구약전서를 상(창세기-역대하), 하(에스라-말라기) 두 권으로 출판해냈다.

William Tyndale – 1494 - 1536

Background

He is thought to have been born between Dursley and Slimbridge in Gloucester, in 1494. He went to Oxford University and graduated with a BA degree, followed by his MA in 1515. Whilst at Oxford he read the Bible, then only available in Latin.

As a result of reading of the Bible, he was convinced that everyone should be able to read the Bible in English. In reply to a 'learned man' who objected to this idea, saying that it was better to be without God's law than the Pope's law, Tyndale vowed,

"I defy the Pope and all his laws, if God spare my life I will make it possible for even the boy that follows the plough to know more of the Bible than thou dost".

Persecution

In May 1453 Constantinople fell to the Turks, and all of its scholars fled to the West, taking with them many precious manuscripts. These included copies of the New Testament, which were in Greek. A modern historian has commented on this event and says,

"Under the influence of Greek learning, the renaissance flowered."

Printed Bibles

Within two years of this event printing by moveable type was invented (1455) and the first book to be printed was a Bible! These two events had a bearing on what was to follow. By the end of the 15th century a printing press had been set up in London, and Greek was being taught in many Universities. By 1515 Erasmus, a Greek teacher at Cambridge University had collated all of the Greek manuscripts of the New Testament into one, which was then used for translation into other languages (It was called the "*Textus Receptus*" or the Received Text). These events had a great bearing on both the *Renaissance* (revival of learning) and the *Reformation*.

A Common Bible

Tyndale was aware of these developments, and being a Greek scholar, now decided to pursue his desire to give the Bible to the common people in their own tongue. After leaving Oxford he went to London (around 1524) where he contacted Cuthbert Tunstall the Bishop of London, and sought permission to translate the New Testament into English. His request was denied, and his arrest ordered. He fled to the continent, being helped by Humphrey Monmouth, a merchant of London, and a few other sympathisers. He found refuge in Cologne, and an opportunity to begin his task.

By the end of 1525 he had completed his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and the result was the printing of thousands of copies. They were despatched to London hidden in bundles of Merchandise to the Wharf of Humphrey Monmouth, and dispatched by men of the *new religion*, possibly with affinity from a movement in Poland called the *Polish Brethren*. However many of the Bibles were discovered by the established church and publicly burned in Smithfield, London.

개인이 번역한 날권 성경과 구역을 출판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80년대	
1882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1883	예수성교누가복음·데자헝적, 예수성교요한복음
1884	예수성교성서맞닥복음
1884	현토한한신약성서(이수정)
1885	예수성교성서요한복음·미비쇼셔신(존 로스)
1885	신약마가전복음서연회(이수정)
1887	예수성교전서(존 로스)
1887	마가의전후복음서연회(아펜젤러)
1890년대	
1890	누가복음전 (아펜젤러) 보라달로마인서 (아펜젤러)
1891	요한복음전 (펜윅)
1892	마태복음(아펜젤러), 사도행전(게일)
1893	약한의기록후로복음(펜윅)
1895	마태복음(아펜젤러), 마가복음(아펜젤러) 누가복음(언더우드), 요한복음(게일), 스도헝전(게일)
1896	마태복음·누가복음·요한복음·스도헝전, 마태복음(아펜젤러), 요한복음(언더우드), 스도헝전(게일)
1897	바울이갈나대인의게후편지(게일), 야곱의공변된편지(스크랜튼), 베드로전서(스크랜튼), 베드로후서(스크랜튼)
1898	마태복음(아펜젤러), 마가복음(아펜젤러), 누가복음 (언더우드), 스도헝전(게일), 로마인서(스크랜튼), 고린도전서(아펜젤러), 고린도후서(아펜젤러), 필립보인서(언더우드), 데살로니가인전후서(레널즈), 골로새인서(언더우드), 딤후모데전서(언더우드), 딤후모데후서(언더우드), 딤후도서, 빌네몬(언더우드), 히브리인서(스크랜튼), 요한일이삼유다서(언더우드)
1899	에베소인서
1900년대	
1900	요한복서
1900	신약전서
1904	신약전서
1904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스도헝전
1905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스도헝전
1906	신약전서
1906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스도헝전
1906	창세기, 시편
1907	출애굽기, 삼우엘전, 삼우엘후, 잠언, 말나기
1908	창세기, 렬왕기상·하, 이사야
1911	성경전서 , 구약전서
1925	창세기, 렬왕기상·하, 이사야

Captain of Heretics

Despite this apparent set back, Tyndale used the money from his sales for a second edition. The demand was increasing despite the threat of death for those who were found with a copy of this New Testament. Bishop Tunstall was furious, but Tyndale's greatest enemy was the Lord Chancellor of England who called Tyndale "Captain of heretics". He was Sir Thomas Moore. His attacks on Tyndale can only be described as cruel and malicious. Tyndale's replies reveal much of what he believed, in particular his belief in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Bible. This he set as:

SOLA SCRIPTURA - SOLA GRACIA - SOLA FIDE
(only scripture) - (only by grace) - (only by faith)

The implications of this three fold formula were tremendous and far reaching, for they challenged the established church in three vital areas:

The Church claimed absolute authority in all their fields, and claimed to have authority alone to interpret the Bible. Sometimes even to set aside the Bible!

'Salvation only by grace' challenged the sale of indulgence for sin (i.e. you could purchase forgiveness of sins by gifts to the Church).

The Church taught that "merits" could be built up in this life to earn salvation. That some merits could build up over and above the need for the individual, and could help someone else whose tally was below par. This doctrine is comparatively little known and is called 'works of Supererogation'.

His Final Work

Tyndale next began on the Old Testament, initially translating the five books of Moses, and then up to the end of the second book of Chronicles. His own martyrdom prevented him completing the whole of the Old Testament, but in the year before he was arrested he made a revision of his 1526 New Testament translation. This version is available today both in its original form and in modern spelling.

His Death

By 1535 the hunt for Tyndale had hotted up. The established church hired Henry Phillips, a man who had once been Tyndale's friend, to betray him, and soon Tyndale was arrested and imprisoned in Vilvorde Castle in Belgium. In October 1536 he was first strangled and then burned at the stake. His last words were,

"Lord, open the King of England's eyes."

Other Translations

In the year that Tyndale died, two other English translations of the Bible were in circulation, one by Miles Coverdale, a great friend of Tyndale (who also completed Tyndale's unfinished Old Testament), the other by John Roberts. Both Bibles were dedicated to King Henry VIII, who allowed them to be freely distributed.

The Chained Bible

In September 1538 the King ordered that an English Bible be placed in every Church in the country. It became known as 'The Chained Bible' because it was secured to prevent it from being stolen. So Tyndale's dying prayer was answered.

1882년부터 1911년까지를 또한 ‘성서 중역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중역이라 함은 성서를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지 아니하고, 다른 번역에서 거듭 번역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말 성서가 번역되어 나오던 초창기에는 피득(彼得 A.A.Peters)씨와 같은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 그리고 성서언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게일(S.Gale)씨와 같은 이들이 번역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어서 히브리어 원문을 다룰 수 있는 이들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말 구약전서는 여러 면에서, 1901년에 미국에서 나온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을 기초 본문으로 삼고 그 밖에 주로 한문 성서를 참고한 중역의 흔적이 짙다. 번역에 참여한 이들이 그 기능에 있어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즉 한 부류의 번역자들은 성서 원문이나 번역 대본이 되던 영미 계통의 번역본을 번역하던 이들로서, 선교사들이 이 역할을 맡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번역자들은 중국어 성서나 일본어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던 이들로서 우리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던 우리 나라 학자들이었다. 번역진들이 원문이나 중역 대본의 서양 언어를 다루던 외국인 전문가들과, 한문 성서나 일본어 성서에서 번역하여 선교사들의 번역과 대조하면서 번역된 본문을 우리말로 다듬던 우리 학자들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은 성서언어와 우리말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번역자가 없었던 당시 사정을 반영한다.

개정 역본들

1938 – “성경전서 개역”은 최초로 완성된 개역 성서이다. 부분적인 번역 개정 작업보다는 표준말로 고치는 작업이 이 때 개정의 큰 특징 중 하나다. 예를 들면 “아바지”는 “아버지”로, “량식”은 “양식”으로, “권세”는 “권세”로 고쳤다.

1952 –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은 더 손질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표기를 고쳐 출판한 첫 판이다.

1961 –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은 1952년에 편집되고 개역의 결정판 혹은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다.

1998 –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은 기존 “개역”의 대폭적 개정이다. 오늘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古語)와 한자어(漢字語)는 쉬운 말로 고쳤다. 또한 국어 맞춤법이 달라진 곳을 고쳤다. 예를 들면, “일찌기”는 “일찍이”로.. 이 밖에,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나 어색한 문장을 다듬었다.

새롭게 번역된 역본들

1967 – ‘신약전서 새번역’: 우리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학자들이 번역한 최초의 신약전서

1977 – ‘공동번역 성서’: 우리나라의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으로, 의역의 성격을 보이는 번역, 한국의 현대인이 쓰고 있는 현대어로 그리고 알기 쉬운 말로 번역된 점 등이 그 특징이다.

1999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은 명백히 틀린 것만 고쳤다.

1993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역”과는 달리 현대어와 쉬운 말로 번역했다. 또한 “개역”과 달리 우리말답게 번역했고 장애인 차별과 심한 성차별과 여성 멸시 표현을 없애버렸다.

2001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번역이 명확하지 못했던 본문과 의미 전달이 미흡한 본문은 뜻이 잘 전달되도록 고쳤다. 대화문에서는 현대 우리말 존대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주”를 “주님”으로 개정했다).

2004 – “성경서 새번역”: 2001의 번역과 같고 이름만 좀더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바꾸었다.

His Work Acknowledged

Tyndale's scholarship was fully acknowledged by his contemporaries. He was fluent in eight languages. His translation has never been surpassed. As the 16th Century advanced there were other translations into English. King James 1 commissioned a committee of linguistic scholars to publish a completely new translation, which became known as the Authorised Version. Ironically at least 90% of it depended largely on Tyndale.

The Effect upon the English Language

Up until this time the English language had been little esteemed in the eyes of continental Europe. Tyndale invented new words which have since become commonplace. Words like *beautiful*, *scapegoat*, *atonement* etc.

There is no doubt that Tyndale was the real genius which made the English language what it has become today; the most widely used language in the world. In Tyndale's day English was spoken by only 6 million people, now it is spoken by more than 600 million people worldwide.

Tyndale's latest biographer, Professor David Daniel, says that many people think we owe Shakespeare the debt for what English is today, but:

'...had there been no Tyndale there would have been no Shakespeare!'

성서 번역본

역사적 발전

첨부된 표는 성서 원문의 역사적 발전을 그리고 있다.

표준원문과 라틴어 원문

두 가지 구별되는 경로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번역에 이르게 한다.

카톨릭 교회가 첫 경로를 따른다. 그것은 라틴어 불가타역을 기초로 하며 약 AD 382 년 제롬에 의해 편집되었다. 그것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70 인역 구약에 뿌리를 두고있다.

두 번째는 표준 원문 또는 전통 원문이다. 그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구약과 헬라어 원문의 신약을 기초로 한다.

1611 년 킹 제임스 흠정역

표준 원문 경로에서 번역된 가장 유명한 번역본은 킹 제임스 역이다. 그것은 1611 년에 만들어 졌으며 지금까지 쓰여진 번역본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번역본이다. 오늘날 까지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번역본이다.

1870 년 웨스트콧과 홀트 원문

이 둘은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며 원문 비평의 이론과 결합되어 있다. 이는 1881 년 개역본의 출간에 기인하며 이 역에서 NIV(새 국제역)을 포함한 현대번역의 대다수가 나왔다.

무엇이 직역 번역인가?

이 질문은 관용구나 시대적 의미에 상관없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직접 엄격하게 번역된 성서 번역본을 가리킨다. 이러한 번역은 원문어구에 좀더 충실한 편이다.

그에 대한 영어 번역 예는 킹 제임스역, 새 국제역, 개역성서이다. 한국어번역 예는 개역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다.

무엇이 의역 번역인가?

의역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이 성서 번역들은 원문 또는 본문을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재진술한 것이다.

그에 대한 영어 번역 예는 리빙 바이블과 어린이 성서이다. 한국어번역 예는 현대인의 성경와 쉬운 성경이다.

어떤 번역본을 읽을 것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여러가지 다른 성서들을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 대부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한 학자들에게 의존한다. 번역가들은 인간이며 그들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선입된 생각들에게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문화적 태도와 우리가 친숙하고 편안한 관습에 비추어 성서를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번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Versions of the Bible

Historical development

The attached chart depict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Biblical Text.

Received text and Latin text

Two distinct paths were followed in reaching the modern translations we have today.

The first path is that followed by the Catholic Church. It is predominately based on the Latin Vulgate translation of the Bible compiled by Jerome in approximately 382 AD. It has roots in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written for the Jews in Alexandria, Egypt.

The second path is the Received Text or Traditional Text. It is from Hebrew manuscripts of the Old Testament and Greek manuscripts of the New Testament.

King James Authorised Version of 1611

The most notable version translated from the Received Text path is the King James Version. It was produced in 1611 and has bee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versions ever written. It is still one of the most widely used versions today.

Westcott and Hort Text of 1870

They used Greek manuscripts, coupled with the theory of textual criticism. This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the 1881 Revised Version, and it is from this version that the majority of the modern versions, including the NIV, are taken.

What is a literal translation?

This refers to a version of the Bible which is rigidly translated directly from the Greek and Hebrew manuscripts without regard to idiom or contemporary meaning. As such, these translations tend to be more faithful to the original meaning.

Examples of such are the King James, NIV, and RSV.

What is a Paraphrased translation?

As the name implies, these translations of the Bible are restatements of the text or passages, putting them in different terms.

Examples of such are the Living Bible and the Children's Bible.

When considering which translation to read, we must always keep in mind that we should often consult different translations of the Bible. On this issue, most of us are dependent on scholars who are well versed in Hebrew and Greek. Translators are human, and they, like the rest of us, are not able to come to the Bible free of all preconceived ideas. We all tend to read the Bible in light of the cultural attitudes and practices with which we are familiar and comfortable. This is also true of translators.

성서 읽기 묘책에 관한 장에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어떤 구절을 깊이 공부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들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어떤 언어에서든지 대부분의 단어들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번역가가 고르는 의미는 그 또는 그녀의 선입견이나 전통적 관념에 맞는 것인 경향이 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번역가는 자신만의 믿음이나 이해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현대 한국어 번역본들

개역개정
공동번역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표준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어떤 번역본이 나에게 맞을까?

사람마다 다 다르므로 모든 번역본이 다 한 사람에게 좋다고 할 수 없다. 읽기를 위해서는 각 개인에게 쉽고 편한 번역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더 구체적인 공부를 위해서 킹 제임스역을 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킹 제임스역은 헬라어, 히브리어 콘코단스와 렉시콘들 색인으로의 주요 연결어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We recall from the previous session on Tips on Reading, that it is helpful, when studying any passage in depth, to consult several versions. Most words in any language have more than one meaning. The meaning chosen by the translator will tend to be the one that fits his or her own preconceptions and traditions. Trying to translate so that the meaning is clear, the translator is influenced by his or her own beliefs and understandings.

Modern English Translations

Revised Standard Version (RSV)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B)
New King James Version (NKJ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
New English Bible (NEB)

Which Translation is right for me?

Each person is different, and as such, not all translations are good for the same person. It is recommended that for reading, a version be selected which is easy and comfortable for the individual. In addition to this, it is desirable to maintain a King James Version for use in more detailed study. It provides important linkages to Lexicons and Concordances.

26 과- 성서의 개관 9 - 복음서

복음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이 세 복음서는 공관(共觀) 복음서 - 공통된 시각을 취한다는 의미-이다. 이 세 복음서의 차이점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요한의 복음서는 이 세 복음서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누가를 제외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건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나지 않는다.

왜 4 개의 복음서인가?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였으며(사. 49:3-6), 이는 그가 이스라엘이 환기해야 할 선의 모든 자질들을 나타낼 것임을 내포한다. 이스라엘민족은 (예레미야 13:11; 이사야 43:7) 하느님 성품의 나타나심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내어 졌다. 그때에 이르러, 그들은 성막(Tabernacle) 주변과, 성막의 속죄소에 그들을 드리웠던 그룹들의 네 개의 얼굴을 재현한 네 개의 기치 아래에서 야영을 했다. 그들은 각각 왕위, 봉사, 인간성, 신성을 대표하는 사자, 소, 사람 그리고 독수리의 깃발(에스겔 1:10)을 가진 유다, 에브라임, 르우벤과 단 지파의 지도아래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졌다.

그리스도의 역사의 네 가지 기록은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예수를 드러낸다.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의 왕권을 확인시키는 구약의 예언에 의지하면서 그의 왕위를 강조한다. 마가는 그리스도의 봉사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그가 다른 이들을 위해 한 일, 그가 나타낸 기적과 사랑의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인간성의 관점에서 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누가 3 장).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씀이 사람이 되신, 아버지 하느님의 현현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의로운 성품의 근본을 알 수 있다.

네 개의 복음서의 기록들은 이스라엘의 네 개의 척도와 같다. 그들은 주를 네 개의 측면에서 나타내며, “육신에 현현하신 하느님”의 일반적인 계시에 기여를 한다. 그는 통치하며(마태복음의 사자), 봉사하기 때문에(마가복음의 소), 육신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누가복음의 사람), 영을 통해 승리한다(요한 복음의 독수리).

그리스도의 역사의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은 구약의 네 명의 주요 선지자들(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의해 예시되었다. 이사야는 주의 왕위(사자)를, 예레미야는 그의 봉사의 역사를 고통의 사람(소)으로 그려내었으며, 에스겔은 계속해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그리스도를 전형화하고 있고(사람), 다니엘은 그의 기적과 예언을 통해 영의 역사(독수리)를 강조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의 네 가지 기록은 “육신에 현현하신 하느님”으로서 주에 대한 균형 잡힌 설명을 제공한다.

Section 26 – Overview of the Bible 9 - The Gospels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all take a similar approach in their accounts and therefore these three are known as the Synoptic Gospels, meaning taking a common view.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described below. The Gospel of John takes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other three.

Except for Luke, the Gospel writers did not emphasise *when* events in Jesus' ministry happened. Therefore, many of the events are not given in chronological order.

Why four Gospels?

Isaiah spoke of the Messiah as the ideal Israelite (*Is. 49:3-6*), implying that he would manifest all the qualities of virtue to which Israel was called. As a nation, Israel was taken out of Egypt to glorify God (*Jeremiah 13:11; Isaiah 43:7*) by manifesting His characteristics. To that end they encamped around the Tabernacle and in the shadow of four standards which reproduced the four faces of the Cherubim which overshadowed the Mercy Seat in the Tabernacle. They were divided into four section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tribes of Judah, Ephraim, Reuben and Dan with the standards of a Lion, Ox, Man and Eagle (*Ezekiel 1:10*), representing Royalty, Service, Humanity and Divinity.

The four accounts of Christ's ministry reveal him in these four aspects. Matthew emphasises his royal dignity, constantly drawing upon the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in confirmation of his majesty. Mark gives attention to his work of service, recording what he did for others, the miracles and acts of love that he rendered. Luke records his ministry from the standpoint of his humanity, tracing his genealogy back to Adam (*Luke 3*). John shows him as the divine manifestation of the Father - the Word made flesh. We therefore appreciate the foundation for his righteous character.

The four Gospel records are like the four standards of Israel. They exhibit the Lord in four different aspects, contributing to the general revelation of "God manifest in the flesh." He rules (Matthew - the Lion), because he served (Mark - the Ox), and though he was flesh (Luke - the Man), he conquered through the spirit (John - the Eagle).

These fourfold aspects of Christ's ministry were foreshadowed by the four major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Isaiah, Jeremiah, Ezekiel, and Daniel. Isaiah predicted the Lord's royal majesty (the Lion); Jeremiah illustrated his work of service as man of sorrows (the Ox); Ezekiel constantly used the title of Son of Man and typified the Christ (the Man); Daniel by his miracles and prophecies emphasised the work of the spirit (the Eagle).

Thus the four accounts of Christ's life provide a balanced presentation of the Lord as "*God manifest in the flesh.*"

이 시기의 책들

마태

저자: 마태

시대: 4 BC - 30 AD

요약: 마태의 복음서는 유대인 청중을 위해 쓰여졌다. 이 책의 목적은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마태는 천국에 관련된 주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랜 동안 믿어왔던- 메시아는 투사적 지도자로서 현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위를 재정립할 것이라는 믿음을 견제하기 위해 쓰여졌다. 대신 마태는 예수께서 세상에 있을 당시 술선했던 종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한다.

왕으로서의 예수

사자의 얼굴 (*에스겔서 1:5-10, 10:20-22* 에 묘사된 얼굴들을 참고하십시오.)

주요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 1:1)

특징:

마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약의 기록을 60 회나 언급하고 있다. “성취되었다”라는 단어는 이 책의 특징이 된다. “왕국”이란 단어는 55 회 나오고 “하늘의 왕국 또는 천국”이라는 말은 32 회, “다윗의 자손”은 7 회 나온다. 유대인들은 성서를 매우 중요시 했으므로 이 복음서는 특히 그들을 위해 많은 부분의 구약 성서를 인용하여 쓰여졌다.

예비: 1:1 - 4:16

그리스도와 과거의 관계 1:1 - 2:23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관계 3:1-17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관계 4:1-11

전도: 4:17 -18:35

왕국을 선언함 4:12-25

예수가 가르치신 것 5:1 - 7:29

예수께서 역사하신 것 - 통치 능력을 보이신 12 개의 강력한 역사: 8:1 - 10:42

나병환자의 치유 8:1-4

백부장의 하인 - 중풍 8:5-13

베드로의 장모 - 열병 8:14-15

치유의 밤 8:16-17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8:18-27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자들이 치유됨 8:28-34

중풍 고침을 받은 남자 9:1-17

혈루증 앓는 여인 9:18-22

통치자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남 9:23-26

두 소경이 시력을 찾음 9:27-31

병어리 귀신들린 자가 치유됨 9:32-38

사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권능을 받음 10:1-42

[두 세 가지의 여담들이 있음 - 8:18-22; 9:9-17 을 보시오 -그러나 그것들은 수행된 기적들과 연관됨. 그 기적들은 복음이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나타냄.]

Books in this time period

Matthew

Author: Matthew

Time: 4 BC - 30 AD

Summary: Matthew is written for a Jewish audience. It's purpose is to witness that Jesus was the promised Messiah of the OT. Matthew emphasises the words of the Lord regarding the Kingdom of Heaven. This was done to counterbalance the popular Jewish belief of the day that the Messiah would be a militant leader who would overthrow the current Roman occupation and re-establish the throne of David. Instead, Matthew speaks of the servant role that Jesus led while on earth.

Jesus Christ as King

The Face of a Lion (see faces described in *Ezekiel 1:5-10, 10:20-22*)

Key Verse: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Matthew 1:1)

Unique Features:

Matthew makes no less than sixty references to the Old Testament writings as fulfilled in Christ, so that the word "fulfilled" becomes characteristic of the book. The word "Kingdom" is met with fifty-five times; "Kingdom of Heaven" thirty-two times; "Son of David" seven times. The Jews laid great store on Scripture, and this Gospel written particularly for them, abounds in such references.

Preparation: Ch 1:1 - 4:16

His Relation to the Past Ch 1:1 - 2:23

His Relation to God Ch 3:1-17

His Relation to Humanity Ch 4:1-11

Preaching: Ch 4:17 -18:35

Proclaiming the Kingdom Ch 4:12-25

What Jesus Taught Ch 5:1 - 7:29

What Jesus Wrought - Twelve mighty works showing his ability to rule: Ch 8:1 - 10:42

The cleansing of the leper Ch 8:1-4

Centurion's servant - palsy Ch 8:5-13

Peter's wife's mother - fever Ch 8:14-15

The evening of healing Ch 8:16-17

The stilling of the storm Ch 8:18-27

Gergesene demoniacs healed Ch 8:28-34

The man cured of the palsy Ch 9:1-17

The woman with haemorrhage Ch 9:18-22

The ruler's daughter raised Ch 9:23-26

Two blind men given sight Ch 9:27-31

The dumb demoniac healed Ch 9:32-38

The Apostles empowered to preach Ch 10:1-42

[There are a couple of digressions - see Ch 8:18-22; 9:9-17 - but they are related to the miracles performed. The miracles revealed physically what the Gospel can do spiritually.]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 그의 부름에 대한 12 개의 반응들: 11:1 - 18:35

침례자 요한 – 의심에 차 있음: 11:1-15

“이 세대” – 응답하지 않음 11:16-19

갈릴리의 도시들 – 회개하지 않음 11:20-30

바리새인들 – 불합리함 12:1-45

그의 가족들 – 잘못 생각함 12:46-50

군중들 – 분별력이 없음 13:1-58

헤롯왕- 무지함 14:1-13

제자들 – 믿음이 약함 14:14-36

예루살렘의 서기 – 냉담함 15:1-20

이방인 군중들 – 찾고 있음 15:21-39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 잔인함 16:1-12

사도들 – 교육을 필요로 함 16:13-18:35

유월절: 19:1 - 28:20

진술 19:1- 25:46

정죄 26:1- 27:66

입증 28:1-20

마가

저자: 마가

시대: 4 BC - 30 AD

요약: 마가의 복음서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 유대인 청중(특히 로마인들)을 겨냥하여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마가는 아주 실제 그대로의 단어들로 예수가 하신 기적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예수의 십자가 고난 및 죽음에 관해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마가의 복음서는 네 개의 복음서 중 첫 번째로 약 AD65 - 70 년 사이에 쓰여졌고 또한 이 책은 몇 가지 사건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유로 그의 말을 받아쓴 것으로 간주된다.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소의 얼굴

주요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 10:45)

특징:

원래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졌으므로(그렇게 간주됨), 이 복음서에는 구약 인용이 거의 없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3:17; 5:41; 7:11,34; 14:36)과 유대인들의 관습(7:3-4;14:12; 15:42)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군대나 백부장과 같은 라틴어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로마인들은 행동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으므로 이 복음서는 주를 일꾼으로서 그리고 있다.

거룩하게 하심: 1:1-13

요한의 증언 1:1-8

예수의 기름부으심 1:9-13

봉사: 1:14 - 8:30

첫 제자들과 첫 역사 1:14 - 3:12

사도들 임명과 노동의 확장 3:13 - 6:6

봉사에 있어서 협력 6:7 - 8:30

What People Thought - Twelve reactions to his call: Ch 11:1 - 18:35

John the Baptist - in doubt Ch 11:1-15

"This generation" - unresponsive Ch 11:16-19

Galilean cities - unrepentant Ch 11:20-30

The Pharisees - unreasonable Ch 12:1-45

His family - misunderstanding Ch 12:46-50

The multitudes - undiscerning Ch 13:1-58

Herod the king- unintelligent Ch 14:1-13

The disciples - of little faith Ch 14:14-36

Jerusalem scribe - unimpressible Ch 15:1-20

Gentile multitudes - seeking Ch 15:21-39

Pharisees, Sadducees - unrelenting Ch 16:1-12

The Apostles - needing education Ch 16:13-18:35

Passover: Ch 19:1 - 28:20

Presentation Ch 19:1- 25:46

Condemnation Ch 26:1- 27:66

Vindication Ch 28:1-20

Mark

Author: Mark

Time: 4 BC - 30 AD

Summary: The book of Mark describes in detail Jewish customs and is therefore thought to be aimed at a non-Jewish audience (in particular, Romans). Mark describes in very life-like terms the miracles of Jesus and great detail is given to the crucifixion and death of Jesus. It is thought that Mark was the first of the four gospels, probably written between 65 - 70 AD and that the book was taken by dictation from the Apostle Peter because some events in the book are unique to Peter.

Jesus Christ as Servant

The Face of an Ox

Key verse: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Mark 10:45)

Unique Features:

Being originally written (as is thought) for Romans, there are very few references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contained in this Gospel. Jewish words are explained (Ch 3:17; 5:41; 7:11,34; 14:36); and also Jewish customs (Ch 7:3-4;14:12; 15:42). Latin expressions are frequently used such as Legion, Centurion, etc. The Romans admired action, and this Gospel depicts the Lord as a worker.

Sanctification: Ch 1:1-13

The Witness of John Ch 1:1-8

The Anointing of Jesus Ch 1:9-13

Service: Ch 1:14 - 8:30

First Disciples and first work Ch 1:14 - 3:12

Appointed of Apostles and Extension of Labour Ch 3:13 - 6:6

Co-operating in Service Ch 6:7 - 8:30

제물(sacrifice): 8:31-15:47

기대된 것 8:31 -10:52

접근된 것 11:1 -14:42

성취된 것 14:43 -15:47

예식이 새로와짐 16:1-20

누가복음

저자: 누가

시대: 4 BC - 30 AD

요약: 누가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마가의 복음서에서 그 글의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 누가는 목격 증인들을 자신의 글의 출처로 삼는다. 그는 예수님의 인간성과 동정심 그리고 성령과 기도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얼굴

주요 구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누가. 23:47)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19:10)

특징:

이 책은 특히 지혜, 아름다움 및 체계를 즐기는 그리스인들을 위해 쓰여졌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 및 발전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였으며 다른 저자들에 의해 시도되지 않았던 연대기 순서에 따라 사실들을 열거하였다. 누가는 펜을 쥔 화가처럼 예수님의 초상화를 완벽한 인간으로 그려내었다. 그는 뒷 이야기인 사도행전(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인간관계 속의 인자: 1 :1- 4:13

서문 1:1-4

헤롯의 시대 1:5 - 2:52

30 년 후 3:1 - 4:13

선지자로서의 인자 - 갈릴리의 왕: 4:14 - 9:50

개요 4:14- 9:17

절정 9:18-50

유대에서 사역하는 인자: 9:51 - 19:27

유대에서 9:51 -13:21

베뢰아에서 (요단강 동쪽 지방)13:22 -19:27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거부당한 인자: 19:28 - 23:56

1. 체포전 19:28-22:46

2. 체포 후 22:47 - 23:56

영화롭게 된 인자: 24:1-53

처음의 모습 24:1-8

40 일이 지난 후 24:9-53

Sacrifice: Ch 8:31-15:47
Anticipated Ch 8:31 -10:52
Approached Ch 11:1 -14:42
Accomplished Ch 14:43 -15:47
Service Renewed Ch 16:1-20

Luke

Author: Luke

Time: 4 BC - 30 AD

Summary: The book of Luke gives us the most complete look at the life of Jesus. It takes many of its writings from the gospel of Mark. Luke uses eyewitnesses as sources for his writings. He stresses Jesus' humanity and compassion as well a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of prayer.

Jesus Christ as the perfect man

The Face of a man

Key Verses:

"When the centurion saw what was done, he glorified God, saying, Certainly this was a righteous man." (Luke. 23:47)

"For the Son of Man i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0)

Unique Features:

It was written particularly for Greeks who delighted in wisdom, beauty and system. Luke, therefore, tells the story of Jesus, unfolding his development in a systematic manner, setting the facts in chronological order in a manner not attempted by the other writers. Luke was an artist with the pen, drawing the portrait of Jesus as the perfect man. He followed this by writing the book of Acts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Son of Man in his human relationships: Ch 1 :1- 4:13

Prologue Ch 1:1-4

In the Days of Herod Ch 1:5 - 2:52

Thirty Years Later Ch 3:1 - 4:13

The Son of Man as prophet - King in Galilee: Ch 4:14 - 9:50

Introductions Ch 4:14- 9:17

Culminations Ch 9:18-50

The Son of Man in his Judean Ministry: Ch 9:51 - 19:27

In Judea Ch 9:51 -13:21

In Perea (east of the Jordan river) Ch 13:22 -19:27

The Son of Man rejected as Israel's King: Ch 19:28 - 23:56

1. Before the Arrest Ch 19:28-22:46

2. After the Arrest Ch 22:47 - 23:56

The Son of Man Glorified: Ch 24:1-53

The initial Appearance Ch 24:1-8

Forty Days Later Ch 24:9-53

요한복음

저자: 요한

시대: 4 BC - 30 AD

요약: 요한복음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자 그와 하느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믿는 모든 이들의 구원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 요한은 주 예수의 부활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이 요점을 정립하고 증명하는 여덟 가지 징조를 열거한다. 요한 복음은 4 개의 복음서 중 유일하게 비유를 언급하지 않는 책이며 대신 요한은 하느님의 현현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수리의 얼굴

주요 구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20:31)

특징:

요한 복음에는 많은 주요 단어들이 있으며 그 중 중요한 단어는 여덟 차례에 걸쳐 언급되는 “믿다” 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신념 또는 확신으로 발전하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따로 이 복음서는 믿는 이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의 내면의 힘을 인지하고 그것이 예수보다 위대하신, 즉 하느님에게로부터 뻗어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사용이다. 이 단어는 마태 복음에서는 한 번, 누가 복음에서는 두 번 언급되지만 요한 복음에서는 예순 번 이상 보여진다

요한은 마태와 마가가 거의 손대지 않았던 유대인을 위한 사역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신 목적을 정리하는 단지 여덟 개의 기적(그가 “표적”이라 칭하는)만을 기록하고 있다.

영원에서부터: 1:1-18

그리스도 앞의 신성 1:1-8

그리스도 안의 신성 1:9-18

육신 속의 하느님의 현현: 1:19 -19:42

세상에서 1:19 -12:50

그 자신 속에서 13:1 -17:26

십자가 위에서 18:1-19:42

영원으로: 20:1- 21 :25

영원한 생명 20:1-18

영원한 빛 20:19-31

영원한 사랑 21:1-25

John

Author: John

Time: 4 BC - 30 AD

Summary: The Book of John was written in order that men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consequently the Redeemer of all who believe in Him and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John cites eight signs to establish and prove this point culminating in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John is the only book of the four Gospels that does not cite any parables; instead John emphasises Jesus as the manifestation of God.

Jesus Christ as the Word made flesh

The Face of an Eagle

Key Verse:

"These are written, that ye might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elieving ye might have life through his name". (John 20:31)

Unique Features:

There are many key words in John's Gospel, and dominant throughout is the word "believe" which occurs over eighty times. The word, however, implies a belief that has developed into faith or conviction. As such, this Gospel was written for believers. They are enabled thereby to perceive the inner-strength of Jesus, and to see that it stemmed from a greater than he, even God. Another peculiarity is the frequent use of the word "Jew". It is only found once in Matthew, twice in Mark and in Luke, but over sixty times in John.

John concerns himself more with the Judaeian ministry which Matthew and Mark hardly touch upon, and he records only eight miracles (which he terms "signs") that set in order the whole purpose of God in Christ.

From Everlasting: Ch 1:1-18

Deity before Christ Ch 1:1-8

Deity in Christ Ch 1:9-18

God Manifest in the Flesh: Ch 1:19 -19:42

In the World Ch 1:19 -12:50

To His Own Ch 13:1 -17:26

On the cross Ch 18:1-19:42

To Everlasting: Ch 20:1- 21 :25

Abiding Life Ch 20:1-18

Abiding Light Ch 20:19-31

Abiding Love Ch 21:1-25

27 과 - 학습 도구 II

Section 27 - Study Tools II

Bible dictionaries

Unger's Bible Dictionary
Smith's Bible Dictionary

Bible atlases

The Macmillan Bible Atlas
The Oxford Bible Atlas
The Times Bible Atlas

History

World History (Any good history book)
Old Testament Bible History - Edersheim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 Edersheim
Josephus

Commentaries

Barnes' OT & NT
Speaker's
Pulpit
Eerdman's Bible Handbook
Halley's Bible Handbook

General

Harper's Encyclopaedia of Bible Life
Vine's Expository Dictionary of Biblical Words
Nave's Topical Bible
Treasury of Scriptural Knowledge
Robertson's "Harmony of the Gospels", Harper-Row

A word of warning

Commentaries, dictionaries, encyclopaedias, etc. are the work of uninspired men commenting about inspired Scripture passages. Such reference books are very useful, but they should always be read carefully with an eye toward scepticism. Never place total confidence in the writings of uninspired men. Verify or disprove what they suggest for yourself, from the Scriptures.

28 과 - 성서의 개관 10

사도 행전

사도 행전

저자: 누가

시대: 30-60 AD

요약: 사도행전은 1 세기 교회의 토대와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사도들이 직면했던 고난과 문제점 및 그 문제들을 극복할 해결책을 묘사하며 복음 전파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오순절 당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선택된 사람들의 능력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소아시아 및 로마 전역에 걸쳐 교회 형성을 도왔던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더듬고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

주요 구절: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전도의 준비 1:1 - 2:4

예루살렘에서 2:5 - 7:60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8:1-25

지구의 맨 끝 8:26 - 28:31

아프리카 쪽으로 8:26-40

아시아 쪽으로 9:1 - 16:5

유럽 쪽으로 16:6 - 18:17

아시아에서 18:18 - 26:32

유럽에서 27:1- 28:31

Section 28 – Overview of the Bible 10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Author: Luke

Time: 30-60 AD

Summary: Acts records the foundation and activities of the first century church. It illustrates the struggles and problems that they faced as well as the solutions to overcome the problems. It describes the power that was given to a select number of men by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to promote the Gospel. The book also traces the missionary journeys of Paul as he helped form churches throughout Asia Minor and Rome.

The Witness to Christ

Key Verse:

“But ye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Spirit is come upon you: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a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Acts 1:8)

Preparation for Preaching Ch 1:1 - 2:4

In Jerusalem Ch 2:5 - 7:60

In Judaea and Samaria Ch 8:1-25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Ch 8:26 - 28:31

Towards Africa Ch 8:26-40

Towards Asia Ch 9:1 - 16:5

Towards Europe Ch 16:6 - 18:17

In Asia Ch 18:18 - 26:32

In Europe Ch 27:1- 28:31

29 과 – 유대인들과 모세의 율법

우리는 하느님이 이 땅과 그리고 그에게로 향한 인간들에 대하여 설정하였던 그의 목적을 이미 살펴보았다. 성서는 계시하고 있다. 하느님은 그의 목적을 추진하게 할 작정으로 한 나라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느님이라” (이사야書. 43:12).

누가 유대인들인가?

1.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다.
 - 아브라함은 하느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창세기. 12:1
 - 하느님이 그에게 그 땅의 후사가 될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였다. 창 12:1-7; 13:14-17.
 -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창세기 15:1-18
 -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되었다. 창세기 26:1-5; 28:13
 -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스라엘’ = ‘하느님의 왕자’ 창 32:24-32
2. 그 나라가 – 하느님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 하느님께서 모세의 인도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였다. 출애굽기 1-14
 - 하느님께서 그 나라를 택하셨다. 신명기. 7:6, 7-8; 출애굽기 19:3-6

모세의 율법이란 어떤 것인가?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진을 치고 있을 동안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들과 법들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한 많은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수립돼 있다:

1. 예배에 관한 의식
 - 레위인들
 - 성막
2. 정부의 수단
 - Theocracy(神政-신정) – 하느님이 왕이시다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성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실패들을 기록해 놓았다. 그들의 행로를 통하여 서술하였다:

- 광야에서 방황
- 사사들(士師) 시대
- 번영과 쇠퇴 – 왕들의 시대
- 그리스도 – 메시아의 십자가 처형
- AD 70 – 유랑,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가 복음. 21:24).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로마인에게 보낸 사도바울의 편지에서, 그는 그 유대인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느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인서. 11:1)

그는 계속하여 기록하였다:

“그들은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느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인서 11:28-29).

Section 29 - The Jews and the Law of Moses

We have already seen that God has a purpose with this earth and with men and women who turn to Him. The Bible reveals how God chose Abraham to be the father of a nation through whom God intended to carry forward His purpose. God says of Israel:

"Ye are my witnesses ... that I am God" (Isaiah 43: 12).

Who are the Jews?

1. The People - Descendants of Abraham, Isaac & Jacob
 - Abram is called by God Genesis 12:1
 - He is promised a seed and to inherit the land Genesis 12:1-7; 13:14-17
 - Covenant is made by God with Abraham Genesis 15:1-18
 - Promises repeated to Isaac and Jacob Genesis 26:1-5; 28:13
 - Jacob's name changed to 'Israel' = 'Prince of God' Genesis 32:24-32
2. The Nation - Established by God
 - God delivers the people from Egypt under Moses Exodus 1-14
 - God chose the nation Deuteronomy 7:6, 7-8; Exodus 19:3-6

What is the Law of Moses?

The Law of Moses consists of the commandments and laws given by God to the nation of Israel while encamped at Mount Sinai. It consisted of not only the 10 Commandments, but many other instructions for the people.

It established:

1. An Order of Worship
 - Levites
 - Tabernacle
2. A Means of Government
 - Theocracy - God is King

What happened to the Jewish people?

The Bible records the failings of the nation of Israel. It documents their course through:

- Wilderness wanderings
- Period of Judges
- Glory and Decline - Period of the Kings
- Christ - Crucifixion of the Messiah
- AD 70 - Exiled, until the "times of the Gentiles be fulfilled" (Luke 21:24).

What is to happen to the Jewish people?

In the Apostle Paul's letter to the Romans, he writes concerning the Jews,

"Hath God cast away his people? God forbid..." (Romans 11:1)

He goes on to write that:

"...they are beloved for the fathers' sakes. For the gifts and calling of God are without repentance." (Romans 11:28-29).

바울은 또한 그의 소망을 묘사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사도행전. 28:20).

장차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들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다. 그것들의 얼마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들의 생애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된 것이다. 이 화해는 결국 그들이 하느님과 화해되기까지 계속 될 것이다.

고려해야 할 구절들:

스가랴 8

스가랴 12

예레미야 31:31-34

Paul also described his hope, that which was found through Christ, as the “*hope of Israel*” (Acts 28:20).

There are many prophecies concerning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with Israel. Some of those we have seen fulfilled in the lifetime of some people even in this class, with the re-establishment of the nation of Israel in the Promised Land. This reconciliation will continue until they are ultimately reconciled with God.

Passages for consideration:

Zechariah 8

Zechariah 12

Jeremiah 31:31-34

30 과 - 성서 용어 IV

명령, 계명 (命令, 誡命) - 계명. 질서, 요구사항, 마땅히 하여야 할 일에 따른 규정.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마가복음 10:5)

규례(規例) - 계명(誡命), 법령(法令), 율법(律法), 또는 조례(條例)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레위기 23:41)

안식일(安息日) - 휴식(休息)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출애굽기 20:11)

방언(方言) - 타 민족의 언어와 구별되어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 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11)

성도(聖徒) -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구별되어진 사람. 1세기의 모든 신자들을 성도라 불렀으므로, 성서상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 베드로’ 등의 용어는 없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매.” (시편 106:16)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1:1)

사단 - 히브리語; 대적자(對敵者), 대항하는 자; 대적자(일반적으로 -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으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 16:23)

마귀 - 중상하는 자, 거짓 모략하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 6:70)

루시퍼 - 아침의 별. 바빌론의 왕에게 붙인 칭호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이사야 14:12)

헬라인 - 1) 그리스(헬라) 사람 또는 그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 2) 광의로는 헬라의 언어, 풍습, 가르침을 받아들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로마서 2:10)

Section 30 - Bible Terminology IV

Precept - Commandment. An order, command, charge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For the hardness of your heart he wrote you this precept." (Mark 10:5)

Statute - A commandment, decree, law, or ordinance

"And ye shall keep it a feast unto the LORD seven days in the year. It shall be a statute for ever in your generations: ye shall celebrate it in the seventh month." (Leviticus 23:41)

Sabbath - rest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and rested the seventh day: w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hallowed it." (Exodus 20:11)

Tongue - A language used by a particular people in distinction from that of other nations.

"Cretes and Arabians, we do hear them speak in our tongues the wonderful works of God." (Acts 2:11)

Saint - Holy one, set apart to be a Son of God. All believers in the first century were called saints, and hence the Bible use of the term has no relationship to the common use of saint today, e.g. Saint Peter.

"The envied Moses also in the camp, and Aaron the saint of the LORD" (Psalm 106:16)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to the saints which are at Ephesus, and to the faithful in Christ Jesus." (Ephesians 1:1)

Satan - adversary, one who withstands; adversary (in general - personal or national)

"But he turned, and said unto Peter, Get thee behind me, Satan: thou art an offence unto me: for thou savourest not the things that be of God, but those that be of men." (Matthew 16:23)

Devil - prone to slander, slanderous, accusing falsely

"Jesus answered them, Have not I chosen you twelve, and one of you is a devil?" (John 6: 70)

Lucifer - means "The morning-star", title given the King of Babylon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how art thou cut down to the ground, which didst weaken the nations!" (Isaiah 14:12)

Gentile - A Greek by nationality, whether a native of the mainland or of the Greek islands or colonies. 2) In a wider sense the name embraces all nations not Jews that made the language, customs, and learning of the Greeks their own.

"But glory, honour, and peace, to every man that worketh good,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entile." (Romans 2:10)

천사 - 사자, 특사,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자(메신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26)

스랍 - 불, 맹렬함. 스랍, 상징적 피조물.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 6:2)

그룹 - 그룹. 상상적인 형체. 천사(天使)들과 혼동하지 말 것..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24)

Angel - A messenger, envoy, one who is sent, a messenger from God

"And the angel of the Lord spake unto Philip, saying, Arise, and go toward the south unto the way that goeth down from Jerusalem unto Gaza, which is desert."
(Acts 8:26)

Seraphim - Literally, "Burning, fiery." Specifically, a seraph or symbolic creature.

"Above it stood the seraphims: each one had six wings; with twain he covered his face, and with twain he covered his feet, and with twain he did fly." (Isaiah 6:2)

Cherubim - The cherubs or symbolic figures. Plural of cherub. Not to be confused with angels.

"So he drove out the man; and he placed at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Cherubims, and a flaming sword which turned every way, to keep the way of the tree of life." (Genesis 3:24)

31 과 - 생명과 죽음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창조- 모든 생물이 창조된 과정이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창 2:7을 자세히 음미하라.

“야웨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生氣 - breath of life)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生靈 - living soul, living being)이 된지라”.

생명에 관한 또 다른 유사한 묘사를 홍수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 7:21. 그 홍수로 인해 죽은 생명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생명 -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미 공부한 바대로,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 4:11)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죽음은 세상 창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었다.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선하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법을 제정하셨다.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후에 그 법이 집행되었다. 죽음의 저주가 그들에게 선언되었다. 창 3:15-19. 그 1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 주의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본래 창조에는 죽음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Section 31 - Life and Death in the Bible

Where does life come from?

In the first few chapters of Genesis we read about the creation of all living things - God's creation.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Genesis 2: 7).

Another similar description of "life" can be found in the account of the flood. Here it describes the living beings which died in the flood.

"All flesh died that moved upon the earth, both of fowl, and of cattle, and of beast, and of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eth upon the earth, and every man: All in whose nostrils was the breath of life, of all that was in the dry land, died" (Genesis 7:21).

Life - God supplies it through *"the breath of life"*.

As studied earlier, the purpose of life is to bring Glory to God.

"Thou art worthy, O Lord, to receive glory and honour and power: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Revelation 4:11).

Where did death come from?

Death was not originally a part of creation. All that God made was deemed "very good". However, God did impose one simple law upon Adam and Eve in the garden.

"Bu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ou shalt not eat of it: for in the day that thou eatest thereof thou shalt surely die" (Genesis 2:17).

That sentence was imposed following the eating of the forbidden fruit by Adam and Eve. The curse of death was pronounced upon them by God (Genesis 3:15-19). Note especially:

"...for dust thou art, and unto dust shalt thou return" (Genesis 3:19).

Though death was not originally part of creation it now passed on to all men. This is brought out by the Apostle Paul: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Romans 5: 12).

And later he wrote,

"Therefore as by the offence of one judgement came upon all men to condemnation; even so by the righteousness of one the free gift came upon all men unto justification of life" (Romans 5:18)

.

창세기 5장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있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담의 자손이 모두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죄 - 죄의 결과로 사망이 생겨났고,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이르게 되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인류는 계속하여 투쟁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성서는 죽음이 단순히 생명의 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율기를 살펴보면 이 사실이 입증된다. 욥 33:4에서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 34:14,15.

“그가(하나님) 만일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고, 그의 영광 그의 호흡을 거두실 진대, 모든 육체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이 진토로 돌아가리라”.

또한 전 12:7; 3:18-20을 보라.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잠자는 것과 같다: 단 12:2; 고전 15:18,20; 살전 4:13-18.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다니엘의 예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것을 밝히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29).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입장을 변명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행 24:14-15).

또한 고전 15:12; 요 6:39-40; 요 11:23-27을 보라.

Genesis 5 shows that death now reigns because of sin. The persons listed in the generations of Adam are described by the phrase, "and he died".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Romans 6:23).

Sin - Death is brought about as a consequence of sin and is inherited by all mankind

What happens at death?

Throughout the ages mankind has wrestled with this question. Everyone wants to know what lies beyond death. The Bible teaches that death is simply the ending of life. We turn to the book of Job for further testimony of this fact.

"If he (God) set his heart upon man, if he gather unto himself his spirit and his breath; All flesh shall perish together, and man shall turn again unto dust" (Job 34:14, 15).

"...the Spirit of God hath made me, and the breath of the Almighty hath given me life" (Job 33:4).

See also: *Ecclesiastes 3:18 - 20; 12:7.*

Death is likened to sleep:

Daniel 12:2; 1 Corinthians 15:18, 20; 1 Thessalonians 4:13-18

What lies beyond death?

In the prophecy of Daniel 12: 2 we read:

"And many of them that sleep in the dust of the earth shall awake, some to everlasting life, and some to shame and everlasting contempt".

The Lord Jesus Christ declared:

"The hour is coming, in the which all that are in the graves shall hear his voice, and shall come forth; they that have done good unto the resurrection of life; and they that have done evil, unto the resurrection of damnation" (John 5:28-29).

And Paul, in his defence before Felix, declared:

"But this I confess unto thee, that after the way which they call heresy, so worship I the God of my fathers, believing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in the law and in the prophets: And have hope toward God, which they themselves also allow, that there shall be a resurrection of the dead, both of the just and unjust" (Acts 24:14-15).

See also:

1 Corinthians 15 (note argument of verse 12); John 6:39-40; John 11:23-27

32 과 - 성서 개관 11

신약 서신들

이 시대의 성서

로마서

저자: 바울

시기: 58-60 AD

요약: 바울은 주 예수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므로 죽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편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드리고 그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가리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설명하였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에 모든 일의 최종 결과를 설명하였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주요 구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6-17)

소개: 1: 1-15

교리적- 복음과 구원의 관계 1:16- 8:39

정죄 1:16- 3:20

의롭다 하심 3:21- 5:21

거룩하게 됨 6: 1- 8:17

영화롭게 하심 8:18- 39

국가적-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 :9:1- 11:36

선택 9:1-33

버림 10:1-21

회복 11:1-36

실천적- 복음과 행동의 관계 12:1- 15:13

사회적 책임 12:1-21

시민으로서의 책임 13:1-14

교회 회중의 책임 14:1- 15:13

맺음말- 개인적인 일 15:14- 16:27

Section 32 – Overview of the Bible 11

New Testament Letters

Books in this time period

Romans

Author: Paul

Time: 58 - 60 AD

Summary: Paul was instructed by the Lord Jesus Christ to be a Minister to the Gentile people. Paul begins the letter by showing how all men are sinners in the eyes of God and therefore worthy of death. However, Paul explains that Jesus Christ was the “second Adam” in whom no sin was found, and is able to provide an acceptable covering for men’s sin if they accept all that Jesus said and follow after him in their own lives. With this in mind, Paul explain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Jews and the Gentiles and the final outcome of all things when the Lord Jesus returns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on the earth.

Christ: The Power of God to Us

Key Verse: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to everyone that believeth;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Romans 1:16-17)

Introduction: Ch 1:1-15

Doctrinal - How the Gospel relates to Salvation: Ch 1:16 - 8:39

Condemnation Ch 1:16 - 3:20

Justification Ch 3:21-5:21

Sanctification Ch 6:1-8:17

Glorification Ch 8:18-39

National - How the Gospel relates to Israel: Ch 9:1-11:36

Selection Ch 9:1-33

Rejection Ch 10:1-21

Restoration Ch 11:1-36

Practical - How the Gospel relates to Conduct: Ch 12:1 - 15:13

Social Responsibilities Ch 12:1-21

Civil Responsibilities Ch 13:1-14

Congregational Responsibilities Ch 14:1-15:13

Epilogue - Personal matters: Ch 15:14 -16:27

고린도전서

저자: 바울

시기: 55 - 57 AD

요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다. 바울은 새로 형성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점들과 죄 그리고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 적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문란한 이교적 환경에서 왔고, 이러한 전의 삶에서 떠나라고 권고를 받았다. 또한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레위기의 율법을 섞으려 했던 문제점들도 있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주요 구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전 1:17)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 1:24)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전 2:7-8)

소개: 1:1-9

책망: 분열에 대해 1:10-4:21

바로잡음: 불일치에 대해 5:1- 6:20

가르침: 문제점에 대한 답 7:1- 15:58

혼인상태에 대해 7:1-17

할례와 종의 신분에 대해 7:18-24

처녀와 혼인에 대해 7:25-40

우상의 제물에 대해 8:1-11:1

에클레시아의 자매들에 대해 11:2-16

주의 만찬에 대해 11:17-34

영적 은사에 대해 12:1-14:40

부활에 대해 15:1-58

일반적인 일들 16:1-24

1 Corinthians

Author: Paul

Time: 55 - 57 AD

Summary: Written to the church at Corinth by the apostle Paul. He deals with a series of problems, sins and false teachings that were present in the newly formed church. Most members were from a promiscuous pagan background and were exhorted to put away their previous ways. There were also problems with those who tried to “blend” the teachings of Christ with the Levitical law.

Christ: The Wisdom of God to Us

Key Verses:

“Christ sent me not to baptise, but to preach the gospel: not with wisdom of words, lest the cross of Christ should be made of none effect.” (1 Corinthians. 1:17)

“Unto them which ar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1 Corinthians. 1:24)

“We speak the wisdom of God in a mystery, even the hidden wisdom, which God ordained before the world unto our glory: which none of the princes of this world knew: for had they known it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1 Corinthians 2:7-8)

Introduction: Ch 1:1-9

Reproof: concerning schisms: Ch 1:10 - 4:21

Correction: concerning inconsistencies: Ch 5:1 - 6:20

Instruction: answers to problems: Ch 7:1 -15:58

Concerning the Marriage State: Ch 7:1-17

Regarding Circumcision and Slavery: Ch 7:18-24

Regarding Virgins and Marriage Ch 7:25-40

Regarding Meat Offered to Idols Ch 8:1-11:1

Regarding Sisters in the Ecclesia Ch 11:2-16

Regarding the Lord's Supper Ch 11:17-34

Regarding Spirit Gifts Ch 12:1 -14:40

Regarding the Resurrection Ch 15:1-58

General Matters: Ch 16:1-24

고린도 후서

저자: 바울

시기: 55-57 AD

요약: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번째 편지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 편지는 작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그가 가르침과 조언을 주려고 방문했으나 실패한 후에 쓰여진 것이다. 다수의 구성원들이 회개한 것을 알고 그는 고린도교회에 두번째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용기를 주는 동시에 각자가 주 예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나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가장 힘있게 역사하신다는 말로 끝맺었다. 이 편지는 아마도 첫번째로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낸 지 6개월 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주요 구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 1:3-4)

소개: 경험에서 나온 의견 1:1-11

설명: 사역자 바울 1:12- 5:21

그의 동기에 대해 1:12- 2:11

그의 직분에 대해 2:12- 5:21

권고: 아버지 바울 6:1- 7:16

영적인 것에 대해 6:1- 7:16

물질적인 것에 대해 8:1- 9:15

입증: 사도 바울 10:1- 12:18

비평과 요구 10:1- 11:15

사도와 그의 자격 11:16 - 12:18

끝맺음: 미래에 대한 의지 12:19 -13:14

2 Corinthians

Author: Paul

Time: 55 - 57 AD

Summary: This second letter to the church at Corinth was also penned by Paul. It was written after he made a distressing and unsuccessful visit to the small church in an attempt to give instruction and guidance on several divisive issues. Upon learning that a majority of members had repented, he wrote the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It gives encouragement, yet teaches of the suffering that each member must face for the Lord Jesus' sake. He concludes by saying that when he is weakest, then God is able to work through him most powerfully. This letter was, probably, written about six months after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Christ: The Comfort of God to Us

Key Verse:

"Blessed be God, even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and the God of all comfort; Who comforteth us in all our tribulation, that we may be able to comfort them which are in any trouble, by the comfort wherewith we ourselves are comforted of God." (2 Corinthians 1:3-4)

Introduction: The Voice of Experience: Ch 1:1-11

Explanation: Paul the Minister: Ch 1:12 - 5:21

Concerning His Motives Ch 1:12- 2:11

Concerning the Ministry Ch 2:12 - 5:21

Exhortation: Paul the Father: Ch 6:1 - 9:15

Concerning Things Spiritual Ch 6:1 - 7:16

Concerning Things Material Ch 8:1 - 9:15

Vindication: Paul the Apostle: Ch 10:1 -12:18

The Critics and their Pretensions Ch 10:1 - 11:15

The Apostle and His Credentials Ch 11:16 - 12:18

Conclusion: Future Intentions: Ch 12:19 -13:14

갈라디아서

저자: 바울

시기: 48-50 AD

요약: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이, 새로운 이방 개종자들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유대교인들은 첫째,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고 둘째, 이방인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례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의로워지고, 받아드리지고, 새롭게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율법에 의지하는 것은 죽음에 매여있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자유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는 변형된 복음은 모두 왜곡된 것임을 보여 주고, 그렇게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

주요 구절

“...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 2:2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 3:6)

“... 만일 능히 살게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갈 3:21)

“...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갈 5:5)

소개와 인사말 1:1-5

서신의 목적 1:6-9

서술: 개인적인 일 - 바울의 복음의 확신을 해설함 1:10- 2:21

설명: 교리적- 복음의 선포 3:1- 4:31

믿음으로 의롭게 됨 3:1- 14

율법과 믿음의 관계 3:15- 29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해설 4:1-31

권고: 실천적- 복음의 요구 5:1- 6:10

자유로의 부름 5:1- 12

실제적 자유 5:13-26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함께 누려야 한다. 6:1- 10

복습하며 끝맺음 6:11- 18

Galatians

Author: Paul

Time: 48 - 50 AD

Summary: The letter to the church in Galatia focuses on the divisions that Jewish-Christians were causing among new Gentile converts. These Judaizers were trying to convince the Gentiles that first, Paul's authority was given by men and not by God, and secondly, that they need to be circumcised and to keep the ritual law in order to be saved. Paul argues that both Jew and Gentile alike enjoy in Christ complete salvation. They are justified, adopted, renewed, and made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s of the Abrahamic covenant. Reliance on the Law was only a bondage to death and could not produce life-giving freedom, as only Christ could grant that freedom. Paul was showing that all legalistic variations of the Gospel are perversions of it and should be shown as such.

Christ: The Righteousness of God for Us

Key Verses:

"...if righteousness come by the law, then Christ is dead in vain." (Gal 2:21)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accounted to him for righteousness."
(Galatians 3:6)*

*"...if there had been a law given which could have given life, verily
righteousness should have been by the law." (Galatians 3:21)*

"...we...wait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by faith." (Galatians 5:5)

Introduction and Salutation: Ch 1:1-5

The Purpose of the Epistle: Ch 1:6-9

Narration: personal details - Illustrating the authenticity of Paul's Gospel: Ch 1:10- 2:21

Exposition: Doctrinal - A Declaration of the Gospel: Ch 3:1 - 4:31

Justification by Faith Ch 3:1-14

Faith's Relation to the Law Ch 3:15-29

Relationship of Faith to the Law Illustrated Ch 4:1-31

Exhortation: Practical - The demands of the Gospel: Ch 5:1 - 6:10

The Call Unto Liberty Ch 5:1-12

Liberty in Reality Ch 5:13-26

Freedom in Christ Must be Mutually Enjoyed Ch 6:1-10

Concluding Review: Ch 6:11-18

에베소서

저자: 바울

시기 62-63 AD

요약: 이 편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번째 부분은 그리스도 안의 축복과 영적 풍요에 대한 것, 두번째 부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함에 대한 것이다. 이 편지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또는 받으실 영적 풍요, 즉 은혜, 영광, 자비, 영생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걷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함을 알게 되어,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사랑을 나타내며, 모든 언행을 바르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편지는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간에 돌려 읽혀진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움

주요 구절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18-20)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요함 1:1- 3:21

인사 1:1-2

에클레시아의 예정 또는 기원 1:3-23

에클레시아의 교훈 또는 구성 2:1-22

에클레시아의 사명 또는 기능 3:1-2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함 4:1- 6:20

에클레시아의 책임 4:1-16

개인의 행실 4:17-6:9

신앙의 전투 6:10-24

Ephesians

Author: Paul

Time: 62 - 63 AD

Summary: The letter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first outlines the blessings and spiritual riches in Christ; the second the walk in imitation of Christ. The intent was to illustrate the abundance of spiritual riches that Christ himself received or would receive, namely grace, glory, mercy, immortality, and to foster the incentive to walk as Christ himself did. By doing so, the believer would learn to *“walk worthy of the calling wherewith ye are called”* (4:1); not as Gentiles which know not God, but as children of light who show forth love and walk correctly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 and action until the return of the Lord Jesus. It is thought that this letter was one of several which were circulated to the different churches in Asia.

Christ: The Riches of God to Us

Key Verse: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being enlightened; that ye may know what is the hope of His calling, and what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and what is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to us-ward wh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king of His mighty power which He wrought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t him at His own right hand in the heavenly places.” (Ephesians 1:18-20)

Our Wealth in Christ: Ch 1:1 - 3:21

Salutation Ch 1:1-2

Predestination, or the Origin of the Ecclesia Ch 1:3-23

Edification, Or the Construction of the Ecclesia Ch 2:1-22

Vocation, Or the Function of the Ecclesia Ch 3:1-21

Our Walk in Christ: Ch 4:1- 6:20

Ecclesial Responsibilities - Ch 4:1-16

Individual Conduct - Ch 4:17 - 6:9

Faith's Warfare - Ch 6:10-24

빌립보서

저자: 바울
시기 62 AD

요약: 이 편지의 어투는 그 어느 편지보다 사적이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대강을 설명하고, 모든 신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됨을 설명하였다. 신자들은 자기 희생과 한결 같은 표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는 주 예수와 십자가의 벗인 사람들과 십자가의 원수들을 대조하였다.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분함

주요 구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7-8)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의 삶이신 그리스도 1:1-30

우리의 정신이신 그리스도 2:1-30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 3:1- 4:1

우리의 힘이신 그리스도 4:2-23

Philippians

Author: Paul

Time: 62 AD

Summary: The tone of this letter is more personal in nature than any other letter. Paul outlines his own beliefs and relates the attitude that all believers must not be self centred in their own lives. Each believer must look to Christ for an example of self-sacrifice and unity in purpose. He further contrasts enemies of the cross with those who are friends of the Lord Jesus and the cross. It is thought that Paul wrote this epistle while he was in prison.

Christ: The Sufficiency of God to Us

Key Verses:

"But what things were gain to me, those I counted loss for Christ. Yea, doubtless, and I count all things but loss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do count them but dung, that I may win Christ." (Phil. 3: 7-8)

"Brethren, I count not myself to have apprehended; but this one thing I do,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reaching forth unto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I press toward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Let us therefore, as many as be perfect, be thus minded." (Ch 3:13-15)

Christ our Life: Ch 1:1-30

Christ our Mind: Ch 2:1-30

Christ our Goal: Ch 3:1 - 4:1

Christ our Strength: Ch 4:2-23

골로새서

저자: 바울

시기 62-63 AD

요약: 골로새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바울의 주의를 끌었던 이단화와 유대화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졌다.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주요 문제점들:

천사나 또는 다른 물질적인 영들을 높임

금욕이나 관습의 이행이 영적인 것을 생성한다는 생각을 강조함

그릇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는 이례적인 지식을 주장함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전통에 의한 철학이며 따라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한다. 그는 사랑, 겸손, 권위에 대한 복종과, 끝으로 하나님의 지혜가운데

신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만함

주요 구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 8-12)

소개 1:1-14

교리적- ‘너희로 채우게 하시고’ 1:15- 2:23

실질적- ‘위엿 것을 찾으라’ 3:1- 4:6

개인적-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4:7- 18

Colossians

Author: Paul

Time: 62 - 63 AD

Summary: The letter to Colossae was written in response to the heresy and Judaizing that were brought to Paul's attention. The major errors that had crept into the church were:

the exaltation of angels or other "elemental spirits"

the emphasis on ascetic or liturgical practices thought to produce spirituality

those in error claimed a special knowledge beyond that found in the Gospel of Christ.

Paul states that these are philosophies based on human tradition and are therefore worthless. He teaches love, humility, submission to authority, and finally prayer to establish a believer in the wisdom of God.

Christ the Fullness of God to Us

Key Verse:

"Beware lest any man spoil you through philosophy and vain deceit, after the tradition of men, after the rudiments of the world, and not after Christ. For in him dwelleth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And ye are complete in him, which is the head of all principality and power: in whom also ye are circumcised with the circumcision made without hands, in putting off the body of the sins of the flesh by the circumcision of Christ: buried with him in baptism, wherein also ye are risen with him through the faith of the operation of God, who hath raised him from the dead." (Colossians 2:8-12)

Introduction: Ch 1:1-14

Doctrinal - 'That you may be filled': Ch 1:15 - 2:23

Practical - 'Seek those things above': Ch 3:1 - 4:6

Personal - 'That you may know our estate': Ch 4:7-18

데살로니가 전서

저자: 바울

시기: 50 AD

요약: 이 편지의 주요 관점은 그리스도안에서 죽은 자들의 상태이다. 그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로이 침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편지를 썼다. 그는 많은 유대인의 질투로 인해 도시 밖으로 쫓겨났었다. “너희가 아나니”란 말의 사용은, 그 주제에 대해 전에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도중에 방해로 받아서 바울은 그 주제에 대해 기초를 튼튼히 하기 원했음을 암시한다. 두번째 편지에서는 그들을 꾀박했던 악한 자들이 받을 벌에 대해 씬으로 더욱 용기를 북돋워준다.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주요 구절

“...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장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9-10)

회고- 그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1:1- 3:13

개종을 통해 1:1- 10

복음전파를 통해 2:1- 20

후의 보살핌을 통해 3:1- 13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1- 18

기대- 보고 기다림 5:1-28

데살로니가 후서

저자: 바울

시기: 50 AD

요약: 이 편지의 주요 관점은 그리스도안에서 죽은 자들의 상태이다. 그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로이 침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편지를 썼다. 그는 많은 유대인의 질투로 인해 도시 밖으로 쫓겨났었다. “너희가 아나니”란 말의 사용은, 그 주제에 대해 전에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도중에 방해로 받아서 바울은 그 주제에 대해 기초를 튼튼히 하기 원했음을 암시한다. 두번째 편지에서는 그들을 꾀박했던 악한 자들이 받을 벌에 대해 씬으로 더욱 용기를 북돋워준다.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요 구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1:7-10)

위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실에서 1:1-12

경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지시 2:1- 17

명령-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려한 권고 3:1- 18

1 Thessalonians

Author: Paul

Time: 50 AD

Summary: The main focus in these letters is the state of the dead in Christ. It deals with their resurrection and the future of the Kingdom of God. Paul appears to have written these letters due to the large number of newly baptised believers in Thessalonica. He was forced out of the city by jealous Jews. The occurrence of “you know” in the letters indicates that the teachings were begun but were interrupted and therefore Paul wishes to solidify the subject matter. Further encouragement is given in the second letter regarding the punishment of those wicked men who were persecuting them.

Christ as Our Hope

Key Verse:

“...ye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even Jesus, which delivered us from the wrath to come.” (1 Thessalonians 1:9-10)

Looking back - how they were called: Ch 1:1 - 3:13

Through Conversion Ch 1:1-10

Through Preaching Ch 2:1-20

Through After-care Ch 3:1-13

Looking on - how they should live: Ch 4:1-18

Looking forward - watching and waiting: Ch 5:1-28

2 Thessalonians

Author: Paul

Time: 50 AD

Summary: The main focus in these letters is the state of the dead in Christ. It deals with their resurrection and the future of the Kingdom of God. Paul appears to have written these letters due to the large number of newly baptised believers in Thessalonica. He was forced out of the city by jealous Jews. The occurrence of “you know” in the letters indicates that the teachings were begun but were interrupted and therefore Paul wishes to solidify the subject matter. Further encouragement is given in the second letter regarding the punishment of those wicked men who were persecuting them.

Christ as our Victory

Key Verse:

“And to you who are troubled rest with us, when the Lord Jesus shall be revealed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 in flaming fire taking vengeance on them that know not God, and that obey not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when he shall come to be glorified in his saints, and to be admired in all them that believe in that day.” (2 Thessalonians 7-10)

Consolation - from the fact of Christ's Coming: Ch 1:1-12

Caution - instruction on the time of Christ's Coming: Ch 2:1-17

Command - injunctions in view of Christ's Coming: Ch 3:1-18

디모데 전서

저자: 바울

시기: 67 AD

요약: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켰다.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위험들에 대한 근심을 나타내었고 모든 개인의 경건한 행동들에 대해 조언하였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편지와 디도에 보내는 편지는 그 제재의 성격상 종종 목회서신이라 불리운다.

책무: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주요 구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1:18)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디모데전서 6:20)

소개 1:1-20

에클레시아의 품행 2:1- 3:16

에클레시아의 문제점 4:1-16

개인적 훈계 6:11-21

디모데 후서

저자: 바울

시기: 67 AD

요약: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켰다.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위험들에 대한 근심을 나타내었고 모든 개인의 경건한 행동들에 대해 조언하였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편지와 디도에 보내는 편지는 그 제재의 성격상 종종 목회서신이라 불리운다.

책무: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다.

주요 구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 후서 1:6)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 후서 2:2)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 후서 3:1)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6)

책임을 이행하라 1:1-18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임 맡기를 격려하라 2:1-26

무심한 자들로부터 책임을 지키라 3:1-17

언제든지 그 책임을 전파하라 4:1-8

바울의 끝맺음 말 4:9-22

1 Timothy

Author: Paul

Time: 67 AD

Summary: Both letters were written by Paul from Rome during his imprisonments. Paul gives Timothy encouragement and reminds him of the work at hand. He reveals his fears to Timothy of the dangers within the church and lends advice for godly conduct of all individuals. The two letters to Timothy along with that to Titus are often called the Pastoral letters due to the nature of their material.

The Charge: Guard That Which Has Been Committed Unto Thee

Key Verses:

"This charge I commit unto thee, son Timothy . . . that thou mightest war a good warfare;" (1 Timothy 1:18)

"O Timothy, guard that which is committed unto thee" (1 Timothy 6:20 RV).

Introduction: Ch 1:1-20

Ecclesial conduct: Ch 2:1 - 3:16

Ecclesial problems: Ch 4:1-16

Personal admonition: Ch 6:11-21

2 Timothy

Author: Paul

Time: 67 AD

Summary: Both letters were written by Paul from Rome during his imprisonments. Paul gives Timothy encouragement and reminds him of the work at hand. He reveals his fears to Timothy of the dangers within the church and lends advice for godly conduct of all individuals. The two letters to Timothy along with that to Titus are often called the Pastoral letters due to the nature of their material.

The Challenge: Stir Up the Gift of God

Key Verses:

"Wherefore I put thee in remembrance that thou stir up the gift of God, which is in thee" (2 Timothy 1:6).

"The things that thou hast heard of me among many witnesses, the same commit thou to faithful men, who shall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2 Timothy. 2:2)

"Perilous times shall come" (2 Timothy. 3:1).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II Tim. 4:6)

Hold on to the charge: Ch 1:1-18

Encourage others to take up the charge: Ch 2:1-26

Guard the charge in face of apathy: Ch 3:1-17

Preach the charge in all seasons: Ch 4:1-8

Paul's final words: Ch 4:9-22

디도서

저자: 바울

시기: 67 AD

요약: 이 편지는 로마에 있던 바울이 그레테 섬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디도에게 썼다. 이 편지는 그레테의 신자들을 대할 지침과 함께 디도의 행동에 대한 조언과 지시를 담고 있다.

경고: 교회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

주요 구절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디도서 1:5)

순종적인 교회 1:1-16

건전하고 착실한 교회 2:1-15

실천적인 교회 3:1-15

빌레몬서

저자: 바울

시기: 61-62 AD

요약: 이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것이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하여 바울을 만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보내며,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추천하는 편지를 함께 보냈다.

그리스도 안의 책임

인사 1-3 절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칭찬 4-7 절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부탁 8-17 절

보답에 대한 서약 18-22 절

끝인사 23-25 절

Titus

Author: Paul

Time: 67 AD

Summary: This letter was written by Paul from Rome to Titus who was teaching to the churches on the island of Crete. The letter provides Titus with instruction and advice for his conduct as well as guidance for dealing with the believers in Crete.

The Caution: What a Church Must Aim For

Key Verse:

"That thou shouldest set in order the things that are wanting" (Titus 1:5).

An orderly church: Ch 1:1-16

A sound church: Ch 2:1-15

A practical church: Ch 3:1-15

Philemon

Author: Paul

Time: 61-62 AD

Summary: Paul writes to Philemon whose slave, Onesimus, had run away to Rome where he met Paul and became a Christian. Paul sends him back to his rightful owner with his personal letter of recommendation to accept him back with love and charity.

Responsibilities in Christ

Salutation: v1-3

Paul's Praise of Philemon: v47

Paul's Plea for Onesimus: v8-17

Paul's Pledge of Repayment: v18-22

Final Greetings: v23-25

히브리서

저자: 미상- 바울일 가능성이 있음

시기: 63 AD

요약: 이 편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그리스도의 특수성을 설득력있게 나타낸다.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서의 모든 예언과 상징을 성취하셨음을 증명했다. 예수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모세의 율법 아래 요구되었던 동물의 희생 제물 등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모든 시대에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과 중보자이다.

그리스도: 새롭고 살아있는 길

주요 구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19-25)

아들이신 그리스도- 전에 있던 것보다 더 나은 1:1- 7:28

선지자보다 나은 말씀 1:1-3

천사보다 나은 이름 1:4- 2:18

모세보다 나은 사도 3:1-19

여호수아보다 나은 지도자 4:1-13

아론보다 나은 제사장 4:14- 7:28

레위 계통보다 나은 제사 형식 7:1- 28

희생이신 그리스도- 더 나은 언약의 확증 8:1-10:18

모세의 형식에 대조모형이신 그리스도 8:1-5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8:6-13

모세의 장막 9:1-5

그것이 가르치는 교훈 9:6-10

더 나은 성소를 마련하신 그리스도 9:11-14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희생을 준비하심 9:15-28

동물 희생제사의 한계 10:1-4

그리스도의 제물의 효율성 10:5-10

그의 제물의 완성 10:11-18

그리스도와 믿음- 진실하고 더 나은 길 10:19-13:25

믿음- 진실된 응답 10:19-39

믿음- 그 시대의 감동의 힘 11:1-40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믿음 12:1-13

믿음은 실질적인 도덕성을 통해 드러남 12:14- 13:21

끝맺는 말 13:22-25

Hebrews

Author: Unknown - probably Paul

Time: 63 AD

Summary: This letter persuasively presents the distinctiveness of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Addressed to Jewish Christians, it sets out to prove that Jesus Christ was the fulfilment of all Old Testament prophecy and symbol. With Christ revealed there was no longer a need to make the animal sacrifices, etc. required under the Mosaic Law. Christ is the High Priest and mediator for all believers in all ages who look for the redemption of God.

Christ: The New and Living Way

Key Verse:

"Having therefore, brethren, boldness to enter into the holiest by the blood of Jesus, by a new and living way, which he hath consecrated for us, through the veil, that is to say, his flesh; and having an high priest over the house of God; let us draw near with a tru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having our hearts sprinkled from an evil conscience, and our bodies washed with pure water. Let us hold fast the profession of our faith without wavering; (for he is faithful that promised); and let us consider one another to provoke unto love and to good works; not forsaking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as the manner of some is; but exhorting one another: and so much the more, as ye see the day approaching." (Hebrews 10:19-25)

Christ The Son - better than his predecessors: Ch 1:1 - 7:28

A Better Voice Than the Prophets Ch 1:1-3

A Better Name Than the Angels Ch 1:4 - 2:18

A Better Apostle Than Moses Ch 3:1-19

A Better Leader Than Joshua Ch 4:1-13

A Better Priest Than Aaron Ch 4:14 - 7:28

A Better Priestly Order Than the Levitical Ch 7:1-28

Christ The Sacrifice - Confirming the Better Covenant: Ch 8:1 -10:18

Christ the antitype of the Mosaic Order Ch 8:1-5

Christ the mediator of a better covenant Ch 8:6-13

The Mosaic Tabernacle Ch 9:1-5

The lessons it taught Ch 9:6-10

Christ Provided a better Sanctuary Ch 9:11-14

Christ Provided a better Sacrifice Ch 9:15-28

The limitations of animal sacrifices Ch 10:1-4

The effectiveness of Christ's offering Ch 10:5-10

The completeness of his offering Ch 10:11-18

Christ and Faith - The True and Better Way: Ch 10:19 -13:25

Faith - The True Response Ch 10:19-39

Faith - The Moving Power of the Ages Ch 11:1-40

Faith Leads Unto Christ Ch 12:1-13

Faith Expresses Itself in Practical Morality Ch 12:14- 13:21

Final Words: Ch 13:22-25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

시기: AD 43-50

요약: 야고보의 편지는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일상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특별히 어느 교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유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난 율법의 원칙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나타내었다. 이는 참된 믿음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완성하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믿음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교리보다 실제적인 면을 더 강조하였다.

행동에서 나타나는 믿음

주요 구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26)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1:1-27

다른 이들에 대한 행동을 다스리는 믿음 2:1-26

허를 훈계하는 믿음 3:1-18

성품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믿음 4:1- 17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주는 믿음 5:1- 20

베드로 전서

저자: 베드로

시기: 66 AD

요약: 이 편지는 소아시아(흑해·지중해 사이의 지역)의 그리스도인에게 곧 다가올 핍박가운데서도 기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려고 썼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박해가 곧 다가올 것이므로 각자 박해에 대항해 굳건히 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고난에서의 승리

소개 1:1-2

부르심과 그에 속한 것들 1:3-2:10

순례자의 삶과 그 삶의 방식 2:11- 4:11

불 같은 시련과 그를 이기는 방법 4:12- 5:11

끝맺는 말 5:12- 14

베드로 후서

저자: 베드로

시기: 66 AD

요약: 이 편지의 주제는 참된 지식이다. 새로이 형성된 교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으므로, 베드로는 이 위협에 대해 인식하도록 신자들을 권고하였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슬며시 들어와 복음의 참된 교리를 몰래 파괴할 것을 설명하였다.

진실된 지식과 확실한 소망

하나님의 계시- 도덕적 부패에 대한 대책 1:1-21

하나님의 계시- 교리의 부패에 대한 대책 2:1-22

하나님의 계시- 정치적 부패에 대한 대책 3:1-18

James

Author: James

Time: AD 43-50

Summary: The letter of James contains practical information about every day life as a Christian. It is not directed at any Church in particular, but to Jewish believers, revealing their responsibilities to the principles of the Law as manifested in Christ. It focuses on real Faith and shows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faith as an energising power that finds its outworking in a changed life. Therefore, the epistle dwells on practice and not doctrine.

Faith in Action

Key Verse:

*"For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works is dead also."
(James 2:26)*

How faith can triumph over trials: Ch 1:1-27

How faith can govern actions towards others: Ch 2:1-26

How faith can discipline the tongue: Ch 3:1-18

How faith can purify character: Ch 4:1-17

How faith can create confidence in God: Ch 5:1-20

1 Peter

Author: Peter

Time: 60 AD

Summary: This letter was written to Christians in Asia Minor (the region between the Black and Mediterranean seas) to help establish a joyful hope in the face of coming persecution. Peter sternly warns that persecution would come and that each individual must stand fast against it. He also illustrates man's relation to God as well as to mankind.

Triumph in Tribulation

Introduction: Ch 1:1-2

The call and what it involves: Ch 1:3 - 2:10

The pilgrim life and how to live it: Ch 2:11 - 4:11

The fiery trial and how to bear it: Ch 4:12 - 5:11

Final words: Ch 5:12-14

2 Peter

Author: Peter

Time: 66 AD

Summary: The theme of this letter is true knowledge. The newly formed church was threatened by false teachers and therefore Peter exhorts the Christians to be aware of this danger. Peter explains that false teachers had crept in and were secretly subverting the true doctrine of the Gospel.

The True Knowledge and the Sure Hope

Divine revelation - the antidote to moral corruption: Ch 1:1-21

Divine revelation - the antidote to doctrinal corruption: Ch 2:1-22

Divine revelation - the antidote to political corruption: Ch 3:1-18

요한 일서

저자: 요한

시기: 85-100 AD

요약: 이 편지는 그노시스파와 직면한 집단에게 쓴 편지이다. 요한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할 지에 대해 가르쳤다.

진리와 에클레시아

소개: 이 편지를 쓴 이유 1:1-4

빛이신 하나님 1:5-2:29

사랑이신 하나님 3:1- 4:21

생명이신 하나님 5:1- 21

요한 이서

저자: 요한

시기: 85-100 AD

요약: 이 편지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보냈던 것이고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최소화 하라고 권고하였다. 사랑, 진리, 순종의 개념이 강조되었다.

진리와 가정

소개 1-4 절

드러냄- 사랑의 정의 5-8 절

권고 7-9 절

적용- 그릇된 자비에 대한 회피 10-11 절

소식 12-13 절

요한 삼서

저자: 요한

시기: 85-100 AD

요약: 이 편지는, 믿음의 선생들이 그의 집과 재정을 쓰도록 선행과 자비를 베풀 가이오를 칭찬하였다. 그는 선행이 알려진 자들만 받고 악인은 피하라고 명을 받았다.

진리와 개인

가이오 -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인정이 있음 1-8 절

디오드레베- 권세를 부리며, 독단적이고 거만함 9-11 절

데메드리오- 모든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음 12 절

요한의 끝맺는 말 13-14 절

1 John

Author: John

Time: 85 -100 AD

Summary: This letter was written to a community who faced Gnostic heresy. John teaches how to walk in the light and also to keep in their remembrance the sacrifice which the Lord Jesus Christ made for them.

The Truth and the Ecclesia

Introduction: why the Epistle was written: Ch 1:1-4

God is Light: Ch 1:5- 2:29

God is Love: Ch 3:1 - 4:21

God is Life: Ch 5:1-21

2 John

Author: John

Time: 85 -100 AD

Summary: The letter is addressed to “an elect lady” who is advised to have minimal fellowship with unbelievers. The ideas of love, truth, and obedience are emphasised.

The Truth and the Home

Introduction: v1-4

Exposition - Love defined: v5-8

Exhortation: v7-9

Application - False charity to be avoided: v10-11

Information: v12-13

3 John

Author: John

Time: 85 -100 AD

Summary: The letter commends Gaius for his piety and charity by allowing Christian teachers use of his home and financial means. He is urged to receive only good men which were known by their works and to shun evil men.

The Truth and the Individual

Gaius - the sincere, dedicated, loveable: v1-8

Diotrephes - the domineering, self-assertive, arrogant: v9-11

Demetrius - of good repute to all: v12

Last Words from John: v13-14

유다서

저자: 유다

시기: 70-80 AD

요약: 유다가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새로이 개종한 그리스도인 사이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것이다. 유다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유전으로 왜곡했던 악한 자들이 과거에 받았던 심판에 대해 말하였다.

믿음을 위해 열심으로 싸움

소개 1-2 절

싸움의 필요성- 진리를 버린 선생들 3-16 절

싸움의 방법- 가능한 수단 17-25 절

요한 계시록

저자: 요한

시기: 95 AD

요약: 이 계시록은 신약성서와 성서 전체의 마지막 책이다. 사도 중 하나였던 요한은, 자신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될 때까지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는 매우 상징적이며,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교회의 변절에 대해 나타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

주요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 계시록 1:1)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救贖)받은 자들 1:1- 20

예수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 2:1- 3:22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 4:1- 22:21

소개 4:1- 5:14

일곱 개의 인 6:1- 7:17

나팔 부는 일곱 천사 8:1-11:19

집승, 그 형상과 조직의 발달과 멸망 12:1- 14:20

일곱 대접과 하나님의 진노 15:1- 16:21

음녀의 심판과 양의 승리 17:1- 20:15

새 하늘과 새 땅 21:1- 22:21

Jude

Author: Jude

Time: 70 - 80 AD

Summary: The primary message Jude is trying to relate is the danger of false teachers who have “slipped in” unawares by the newly converted Christians. Jude further outlines the past judgements upon evil men who forsook the Word of God and perverted it into the traditions of men.

Contending Earnestly for the Faith

Introduction: v1-2

The need to contend - apostate teachers: v3-16

The way to contend - available resources: v17-25

Revelation

Author: John

Time: 95 AD

Summary: This is the final book of the NT and the Bible as a whole. John, one of the apostles, is given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pertaining to events from the time of John to the return of Chris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The vision is highly symbolic and signifies the apostasy of the church as well as the judgements of those who are held accountable.

The Unveiling of the Lord Jesus Christ

Key Verse: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unto him, to shew unto his servants things which must shortly come to pass; and he sent and signified it by his angel unto his servant John.” (Rev. 1:1)

Jesus Christ and the Redeemed: Ch 1:1-20

Jesus Christ and the Ecclesia: Ch 2:1 - 3:22

Jesus Christ and the Kingdom: Ch 4:1 - 22:21

Introduction: Ch 4:1 - 5:14

The Seven Seals: Ch 6:1 - 7:17

The Seven Angelic Trumpeters: Ch 8:1 - 11:19

The Development and Destruction of the Beast, His Image and Organisation:
Ch 12:1 - 14:20

The Seven Vials of Divine Wrath: Ch 15:1 -16:21

The Judgement of the Great Whore and Triumph of the Lamb: Ch 17:1 - 20:15

New Heavens and New Earth: Ch 21:1 - 22:21

33 과 – 선(善) 對 악(惡)

악의 기원(起源)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하느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31). 또 다른 곳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 “주(하느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제시룩. 4:11). 성서에 그 악(惡)은 창조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시초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었으나, 나중에 그것이 나타난 광경이 전개되었고, 그것이 죄(罪)와 함께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죄(罪)란 무엇인가?

요한이 첫번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不法)이라.” (요한一書 3:4). 그 불법(不法)이라는 헬라語는 “아노미아(anomia)”로. 그것은 법을 犯(범)하는 것을 지적할 뿐 아니라, 또한 법에 반항하는 태도가 포함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이 하느님께 대항하던가 또는 그런 생각, 말, 행동을 가질 때 범죄(犯罪)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누구를 시험하거나 범죄하도록 하는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느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느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書 1:13-15).

범죄의 근원(根源): 욕심과 자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情慾)과 이생(生)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요한 일서 2:16).

범죄의 고전적 실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다 (創世記 3:1-7)

그 열매가:

- “먹음직 하였다” – 육신(肉身)의 정욕(情慾)
- “보암직도 하였다” - 안목(眼目)의 정욕
-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될 줄 생각하게 하였다” – 이생의 자랑

범죄의 결과(結果):

- 사람과 하느님 간에 불화, 반목
- 육신(肉身) 對 영(靈)

Section 33 - Good vs Evil

Origin of Evil

In the Genesis account of creation it says, *"God saw every thing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Gen. 1:31). Elsewhere it is written, *"Thou (God) didst create all things, and by thy will they existed and were created."* (Rev. 4:11 RSV) The Bible is quite clear that evil was not part of creation and present at the beginning, but it soon appeared on the scene, for it came with SIN.

What is Sin?

In John's first epistle he writes, *"Everyone who sins breaks the law; in fact, sin is lawlessness."* (1 John 3:4 NIV) The Greek word for lawlessness is "anomia". It indicates not merely a transgression of a given law, but involves also an attitude of rebellion. In other words, when one defies God either through thought, word, or deed, it is considered sin.

Does God tempt anyone or cause them to sin?

"Let no man say when he is tempted, I am tempted of God: for God cannot be tempted with evil, neither tempteth he any man: But every man is tempted, when he is drawn away of his own lust, and enticed. Then when lust hath conceived, it bringeth forth sin: and sin, when it is finished, bringeth forth death." (James 1:13-15)

The Source of Sin: Lust and Pride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1 John 2:16)

Classic Example: Eve's sin in the Garden (Gen. 3:1-7)

Fruit was:

- "good for food" - lust of the flesh
- "pleasant to the eyes" - lust of the eyes
- "ye shall be as gods" - pride of life

Result:

- Enmity Between Man & God
- Flesh versus Spirit

사람은 날때부터 악한가 또는 선한가?

성서의 모든 책에 사람은 “악성(惡性)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느님 간의 불화와 반목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能)히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書 17:9)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淫亂)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姦淫)과 탐욕(貪慾)과 악독(惡毒)과 속임과 음탕(淫蕩)과 흘기는 눈과 훼방(毀謗)과 교만(驕慢)과 광패(狂悖)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福音 7:20-23).

또한, 창세기 6:5; 8:21; 이사야書 59:1-8; 로마人書 3:10-12,23 을 보라.

근본 생각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이 일시적으로 우세하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궁극에는 선함이 이길 것이다. 바울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놀라운 약속을 생각하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足)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被造物)의 고대(苦待)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虛無)한데 굴복(屈服)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解放)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人書 8:18-21).

또한,

“내가 들으니, 보좌(寶座)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帳幕)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居)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親)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死亡)이 없고, 애통(哀痛)하는 것이나 곡(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以前)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啓示錄 21:3-4).

어찌하여 세상에 고난이 있는가?

죄(罪)와 고난(苦難)은 현세상의 일부 상태(狀態)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상이나 또는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온 것으로 - 세대들을 거쳐 계속돼 오며, 여러 경우에 있어, 세상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데서 일어난 것이다.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활동의 장소(場所)에 인간의 모든 고난과, 죄악과, 유혈과 살인, 질병(疾病), 분노(憤怒), 장애들, 불공평을 이끌어 들여, 그것이 목격된 이래 세상은 오래 동안 슬픈 인간의 역사가 되었다. 오늘날 인간 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 빈민가, 살인, 도박, 테러 등은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이 생산한 것들이다.

Is man inherently good or evil?

The Bible clearly shows, in each book of the Bible, that man is essentially “evil” by nature. The enmity between man and God has continued throughout the ages.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wicked: who can know it?” (Jeremiah 17:9)

“That which cometh out of the man, that defileth the man. For from within, out of the heart of men, proceed evil thoughts, adulteries, fornications, murders, thefts, covetousness, wickedness, deceit, lasciviousness, an evil eye, blasphemy, pride, foolishness: All these evil things come from within, and defile the man” (Mark 7:20-23).

See also: Genesis 6:5; 8:21; Isaiah 59:1-8; Romans 3:10-12,23.

Bottom line

Man is evil and God is good. Evil may prevail for a season, but ultimately good will prevail according to God’s timetable. Consider the wonderful promise found in Paul’s epistle to the Romans: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rustration, not by its own choice, but by the will of the one who subjected it, in hope that the creation itself will be liberated from its bondage to decay and brought into the glorious freedom of the children of God” (Romans 8:18-21 NIV).

Also,

“I heard a great voice out of heaven saying, Behold, the tabernacle of God is with men, and he will dwell with them, and they sha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shall be with them, and be their God. And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shall be no more death, neither sorrow, nor crying neither shall there be any more pain: for the former things are passed away” (Revelation 21:3-4).

Why is there suffering?

Sin and suffering are a part of the present state of things, not caused by the design or purpose of God, but by the folly of mankind in the very beginning of history - and perpetuated, in many cases, by the foolish actions of an ignorant and disobedient world. Man’s disobedience has introduced into the arena of God’s work the cause of all the suffering, evil, bloodshed, disease, anger, impediments, and inequities that the long and sad history of the world ever since has witnessed. The problems that society faces today slums, murder, gambling, terrorism, etc. are the products of man’s lusts and folly.

인간은 계속하여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교훈이 담긴 성서에 무관심하며, 동시에, 죄악과 고통가운데 방황하고 있다. 세상 고통의 대부분은 인간 행동들의 직접적 결과이다. 스트레스, 좌절, 암, 정신질환의 증가, 환경 오염에 의한 호흡기 질병, 에이즈와 같은 인류의 저주인 질병은 무죄한 가족, 또는 공동체에 비난을 초래한다.. “전도서 저자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臨)함이라” (전도서. 9:11).

어찌하여 하느님은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서는 이와 같은 끔찍한 환경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어떤 이유나 목적도 없이, 죄 많은 인류에게 아무 제한도 없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면, 하느님은 그의 궁극적 목적을 결코 성취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생산하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15:14), 그리고 인류에게 그의 방법의 지혜를 가르치실 수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느님의 가르침을 인식하지 못하며, 하느님의 교훈(敎訓)을 수용(受容)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의(義)의 길을 좇으려고 하지 아니한다. 인간의 악한 성품(性品)은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온다. 성서의 구속을 떨쳐 버린 인간 사회는 동료들에게 명백한 권리침해를 하고 있음이 오늘날 분명하다.

성서는 그와 같은 사회는 우리가 살기에 악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그것에서 분리(分離) 하여 살라고 경고하신다. 우리는 더 이상 “심히 좋은”상태가 아니라 “악함”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죄의 절망에서 일어서 의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열쇠이다. 성서는 우리의 생활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도록 길을 명확히 보여주며, 또한 우리가 해결책이 없어 갈등하는 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줄 것이다.

고난은 필수적인가?.

어찌하여 의인도 고난을 받는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의 피조물(被造物)들에게 요구하시는 품성은 갈라디아書 5:22-23 에 요약되어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성품을 타고나지 않으므로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로, 거의 모든 사람이 육신의 생활을 하다가 죽고 만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의 그런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셔서 시험과 고난을 수단으로 이용하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사도행전 14:22). 하느님은 그의 종들 누구에게나 그 시련과 환란을 면제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그 手段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믿음을 용감하게 증거하며,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신자들의 믿음이 강하게 되며, 이해심과 자비와 충성심이 강해진다. 이것들은 하느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품성들이다.

Man continues to be disinterested in heeding the Word of God, and the divine instructions contained therein,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s to wonder at the presence of evil and suffering. Much of the suffering in the world is a direct result of man's actions. Stress, heart failure, cancer, the increase in mental illness, respiratory ailments due to pollution, and such curses upon humanity as AIDS, bring trauma and distress even to innocent families and communities. Consider the words of "the Preacher", "...time and chance happeneth to them all" (*Ecclesiastes. 9:11*).

Why doesn't God intervene?

Some say God could remove all these dreadful circumstances. Certainly, He could. But if He did so without reason and purpose, providing sinful mankind with every blessing and benefit without restriction, He would never accomplish His ultimate purpose which is to produce a people "*for His Name*" (*Acts 15:14*), and to teach mankind the wisdom of His ways.

Without an understanding of God's Word, men do not acknowledge divine instruction, and are not prepared to accept God's teaching. They will not naturally follow the way of righteousness. The evil characteristics of man are the cause of much of humanity's suffering. A society that throws off the restraint of the Scriptures causes the glaring injustices against its fellows which are so evident today.

The Bible invites us to separate from such a society; to recognise the evil condition of life about us; to acknowledge that we are no longer "*very good*", but inherently "*desperately wicked*", and therefore to seek for the means to raise ourselves above the hopelessness of sin, and seek for righteousness.

The Bible is the key to such a positive attitude. It clearly shows the way in which men and women can find real satisfaction in life, and obtain answers to the perplexing questions that otherwise seem to have no solution.

Is suffering necessary?

Why do the righteous also suffer?

The qualities that Almighty God seeks in His creatures, are summed up in *Galatians 5:22-23*,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meekness, temperance.*"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natural to us; they only come by development. Instead, we are born with the selfish desires of flesh. These are uppermost in our consideration, and in most people remain the prime force of their lives.

But God wants to change that, and the means employed are often trial and suffering. Indeed, the Apostle Paul taught that it is "*through much tribulation*" that believers will "*enter the Kingdom of God*" (*Acts 14:22*). God does not exempt His servants from suffering and trials, for it is by such means that they are able to prove their courage and their conviction about the things they believe. Not only so, but it is through difficulties that a person is made stronger in character, more understanding and compassionate, and more faithful in disposition.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with which God is well-pleased.

“참고 선(善)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尊貴)와 썩지 아니함(Im-mortality)을 구(求)하는 者에게는 영생(永生-Immortality)을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다(로마人書 2: 7) – 그 약속의 영생(永生 - Immortality)은 “하느님의 성품”(“divine nature”)이며 (베드로 후서 1: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계시록. 5:10). 그 때에는 더 이상 인간의 연약성이 없고, 질병이나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불멸의 생명에 관한 표현을 선지자 이사야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해 놓았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書 40:31).

시편 기자는 괴로움 중에서도, 하느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였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 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이 주실 것이나이다.” (시편 27:4-5).

다윗은 어떠한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느님께서 自己를 지켜주실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그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고하였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詩篇 27:14).

And, there will be an end of suffering. Those who “by patient continuance in well doing seek for glory and honour and immortality” will be granted “*eternal life*” (Romans 2: 7) - the promise of “*divine nature*” (2 Peter 1:4), and the privilege of reigning as “*kings and priests*” with Jesus Christ (Rev. 5:10) by the grace of God. No more will the weaknesses of human nature be felt; no longer the diseases, distresses and frustrations of life; no longer the realisation of increasing age, with all its weaknesses and concerns. The joy of immortality is beautifully expressed in the words of the prophet Isaiah: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as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and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Isa 40:31).

In the midst of a time of trouble the Psalmist confidently asserted,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enquire in His temple. For in the time of trouble He shall hide me in His pavilion: in the secret of His tabernacle shall He hide me; He shall set me up upon a rock” (Psalm 27:4-5).

David knew that whatever trials he was required to face, God would protect him, so that ultimately he might achieve his heart’s desire. So he tells us,

“Wait on the Lord: be of good courage, and He shall strengthen thine heart: Wait, I say, on the Lord” (Psa 27:14).

34 과 - 결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 강하고 담대하라” 고 말씀하셨다. 또한 다음의 말씀도 하셨다.

“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수 1:8).

여호수아는 그 말을 지켰고 백성들을 그 땅으로 성공적으로 인도하였다. 여호수아의 길은 형통하였고, 위에 기록된 말은 참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여호수아는 말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다음의 말을 하였다.

“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4-15)

이 말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였던 말에 대한 메아리이다. 신명기 28장 - 30장에서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들이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경우에 받게 될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 끝부분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신명기 30:19 - 20)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야 한다.

성서는 인류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구원에 이르는 열쇠를 담고 있다. 성서 속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서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 그 길로 걸어가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형제들로부터

Section 34 - Conclusion

After the death of Moses, Joshua was set up as the leader of the nation of Israel by God. God told Joshua to “be strong and of a good courage.” He also told him,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out of thy mouth; but thou shalt meditate therein day and night, that thou mayest observe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therein: for then thou shalt make thy way prosperous, and then thou shalt have good success.” (Josh. 1:8)

Joshua heeded those words and led the people successfully into the land of Israel. The words proved true, for Joshua’s way prospered and he had good success. At the end of his life, he gathered all Israel to him and said these words:

“Now therefore fear the LORD, and serve him in sincerity and in truth: and put away the gods which your fathers served on the other side of the flood, and in Egypt; and serve ye the LORD. And if it seem evil unto you to serve the LORD, choose you this day whom ye will serve; whether the gods which your fathers served that were on the other side of the flood,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e dwell: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Josh. 24:14-15)

These words echoed those of Moses, as he addressed the people of Israel prior to his death. In ch 28-30 of Deuteronomy, Moses exhorts the people on obedience to God, outlining the blessings and cursing they would receive, whether obedient or disobedient. At the end of this discourse Moses says,

“I call heaven and earth to record this day against you, that I have set before you life and death, blessing and cursing: therefore choose life, that both thou and thy seed may live: That thou mayest love the LORD thy God, and that thou mayest obey his voice, and that thou mayest cleave unto him: for he is thy life, and the length of thy days: that thou mayest dwell in the land which the LORD swore unto thy fathers,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to give them.” (Deuteronomy. 30:19-20)

As we bring this course to a close, we bring to mind that we are all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erefore should *be rendering unto God the things which are God’s*. The Bible contains His plan for mankind and the earth, and it alone contains the key to salvation. Life is to be found in the Bible, and we have attempted to put you on the path to obtaining it.

As you move forward, you too have a choice - life or death. We encourage you to choose life, for both you and your families.

THE CHRISTADELPHIANS

부록 1 – 성서의 화폐들(Coins)

이 항에는 초기 성서 시대부터 로마제국 시대를 통하여 사용된 화폐의 진보에 관한 참고이다.

교환의 초기 방식들

물론, 가장 초기의 교환은 물물교환 제도법이 사용되었다. 창세기에 있는 초기 기록은 “농사를 하는 가인이” 하느님께 드릴 제물로 한 짐승을 “양 치기인 아벨에게” 물물 교환으로 얻고자 한 사례를 시사하고 있다.

도량형(度量衡)

나중에 이것은 귀중한 금속물의 도량형(度量衡)으로 발전한 것을 성서에서 읽게 된다. 모세의 율법에는 “한 옹크”, “한 오멜”과, “에바”와 “한 호멜” 등등, 도량법이 포함돼 있다. “세겔”, “베가”, “게라”, “달란트”, “다릭”, 그리고 “므나” 등등, 다른 형법(衡法)도 사용되었다. 나중에 이것들의 얼마는 주화(鑄貨)의 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혼동하기가 쉽다. 성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도량형 세겔은, 해당되는 주화가(鑄貨價) 보다는 중량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일반적 사용은 성전 또는 성막의 세겔로 알려지게 되었다.

초기의 금전

고대의 금전은 비주화(非鑄貨)와 주화 두 가지가 있었다. 발견된 많은 주화는 통치 왕조들 추적에 사용되며, 그리고 고대 문화의 성서 기록들 확인에 사용된다. 주화의 초기 성서 기록은 에스라 시대까지 (약 B.C. 458 년) 나타나지 아니한다.

신약 시대의 금전

동전(銅錢) - Mite (Gr. 렘돈) – 예수 시대에 사용되었던 가장 작은 화폐로, 파아당 동화(銅貨) 반 페니에 해당된다. (마가복음. 12:42)

은전(銀錢) - Penny (Gr. 데나리온) – 로마의 은전(銀錢)으로, 로마 제국 전 영토의 주된 은전이였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된다 – 마태복음. 20:2-13.

은화(銀貨) - Pieces of Silver – 예수에 배신으로 받은 은 30 은, 보통 비주화 (非鑄貨)의 은인 “드라크마 은화”, 또는 “청동화(靑銅貨)”, 헬라 은화(銀貨)의 “데나리온” 이었다..

므나(銀錢) - Pound – 누가복음 19:13-25. 100 “드라크마”, 또는 한 “달란트”의 1/60 에 해당되는 무게였다.

달란트 - (히브리어 키카 = 원) 약 6,000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무게였다.

Appendix 1 - Coins of the Bible

This section follows the progress of currency from early Bible times through to Roman times.

Early forms of Exchange

The earliest records of exchange were of course by using the bartering system. Early accounts in Genesis suggest for instance that Cain a “tiller of the ground” was expected to barter with Abel, a “keeper of sheep” in order to obtain an acceptable animal offering for God.

Weights and Measures

Later on in the Bible we read that this moved to the weighing of precious metals, and so the Law of Moses contains measures such as a “handful”, an “omer”, and “ephah”, and a “homer”. Other forms of exchange would use weights such as a “shekel”, a “bekah” a “gerah”, a “talent”, a “dram”, and a “pound”. Because some of these later became coins it is easy to get confused over which is which. The shekel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weights used in the Bible, was certainly a weight rather than proper coin, but was in such common usage that it became known as the shekel of the sanctuary (or tabernacle).

Early Money

Money in ancient times was both un-coined and coined. Many of the coins found are useful for tracing back which kings reigned where and when, and are useful in confirming the Biblical accounts of ancient civilisations. The earliest Bible accounts of coins do not appear until the days of Ezra (about B.C. 458).

New Testament Money

Mite (Gr Lepton) - The smallest coin in use at the time of Jesus, representing half a farthing. (*Mark 12:42*)

Penny (Gr denarion) - A Roman silver coin, the principal silver coin of the Roman commonwealth. Equivalent to one days wages for a labourer - *Matt 20:2-13*.

Pieces of Silver - Such as 30 pieces for the betrayal of Jesus, usually accepted as being either the “drachma” which was an un-coined piece of silver, or the “penny” or “denarion” the Greek silver coin.

Pound - *Luke 19:13-25*. Was a weight equivalent to 100 “drachmas”, or 1/60th of a “talent”.

Talent - (Heb Kikkar = a circle) Again a weight equivalent to about 6,000 “drachmaes”.

부록 2 - 초기 그리스도인들

서론(序論)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개종자들이 되게 하라고 부탁하였다 (마태복음. 28:16-20, 마가복음. 16:14-20 과, 누가복음. 24:44-53 을 보라).

일세기(一世紀) 에클레시아에 관한 정보의 주된 원천(源泉)은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의 기록으로, 그것에 소아시아에 그 일곱 에클레시아를 포함하여, 기타 초기 여러 에클레시아들에 보낸 서신(書信)들로서 보충되었다(계시록 2,3 장을 보라). 누가가 사도행전에 쓴 초기 에클레시아의 역사는 주로 베드로와 요한, 스테반, 빌립, 바나바와 바울과 그들의 연합에 관한 기록, 이방인 고넬료, 요한, 마가, 실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볼로와 기타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삽화들로 구성되었다.

누가의 기록의 선포 목적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복음’을 전파했는지 말하려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일세기(一世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복음 전파에 관한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 책의 첫째 부분은 열두 번째 사도로 가룟인 유다 대신 맛디아를 임명하는 과정이 묘사되었고, 그리고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스테반과 빌립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 전파를 계속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역에 반대가 있었는데, 특히 이방인들에게 전도함에 대해, 완고한 유대인들(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서도 반대를 받았다. 그 후반부(사도행전. 12-28)에는 바울의 행적이 묘사되었는데, 특히 로마제국 여러 곳에서 에클레시아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의 세 번의 선교 여행과 그가 당한 곤란에 대해 기록하였다. 조세퍼스와 유세비우스같은 역사학자들의 책이나 ‘사도적 교부(敎父)들의’ 글도 초기 에클레시아 수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령의 도래(到來)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에 관하여 묘사하였다. 그 양(兩) 기록에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누가복음 24:49-51; 사도행전. 1:4-5, 9-11). 오순절(五旬節)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 시대에 관한 기록에는, 이 절기(節期) 동안 예루살렘 도성과 그 주위에 이백 오십만 이상의 많은 사람이 운집하였었다고 시사하고 있다. 사도행전 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교 에클레시아가 시작되는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그 오순절의 기적이였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과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관해 힘있게 선포하였다. 이적들, 표적들, 그리고 기사(奇事)들이 그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시효과들로 말미암아 허다(許多)한 무리가 고무(鼓舞)되어, 사도들이 전파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Appendix 2 - The Early Christians

Introduction

Jesus told his Apostles to make converts by preaching repentance, baptism, and the forgiveness of sins to all nations (See *Matthew 28:16-20*, *Mark 16:14-20*, and *Luke 24:44-53*).

Our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First Century Church is Luke's record in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this is complemented by the letters to some of the early Churches, including those to the Seven Churches in Asia (See *Revelation 2 and 3*). Luke's history of the early Church in Acts is principally composed of episodes from the lives of Peter and John, Stephen, Philip, Barnabas and Paul, together with accounts of their association with Cornelius, John Mark, Silas, Aquila and Priscilla, Apollos and others.

The declared purpose of Luke's record was to relate how the followers of Jesus, guided by the Holy Spirit, spread the 'Good News'. The accounts in the Acts present us with a remarkable picture of the lives and teachings of the First Century Christians. The first part of the book describes the appointment of Matthias as the twelfth apostle to replace Judas Iscariot, and goes on to show how the Apostles, particularly Peter and John, followed by Stephen and Philip, preached the Gospel in Jerusalem, Judea, and Samaria.

There was opposition to this work, especially the preaching to the Gentiles (non Jews), from 'hard-line' Jews (Judaisers), and also from some Jews who had been converted to Christianity. The second part (*ch 12-28*) describes the activities of Paul, and in particular, his three missionary journeys, where he helped form churches throughout certain parts of the Roman Empire, and the difficulties that he faced. The works of historians like Josephus and Eusebius, and the writings of the 'Apostolic Fathers' als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early Church.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In his Gospel and in The Acts, Luke describes the Ascension of Jesus into heaven. Both records emphasise the need for the disciples to wait at Jerusalem fo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See *Luke 24:49-51* *Acts 1:4-5, 9-11*). The bestowal of the Holy Spirit on Jewish believers occurred at the Feast of Pentecost in Jerusalem.

Records of those times suggest that there were probably upwards of two and a half million people present in or around Jerusalem during this period. The second chapter of the Acts of the Apostles describes the dramatic scene that marked the preaching of Jesus Christ to the world and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Church. This was the marvel of Pentecost -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of the Risen Christ was proclaimed with power. Miracles, signs, and wonders were the methods used to preach the Gospel. Spurred on by these demonstrations, multitudes flocked to the Word of God as proclaimed by the Apostles.

종족(種族)에 관계 없이 만민이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으로 들어옴으로 에클레시아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들은 한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한 구주를 믿고, 그리고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이 지시를 받고 그 위대한 사역을 수행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적들의 직접적 증거가 나타났다. 즉각, 그들은 그 약속의 모든 상태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였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영의 은사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능력의 쇄도(殺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른 방언들로 증거할 수 있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그리고 대적과 스트레스를 견디어낼 수 있게 하였다. 하느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도된 이 증거는 놀라운 것이었다.

오순절에 외친 베드로의 연설은 말씀에 근거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그 생애(生涯)와 가르침;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의 계속적 삶(生)—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제자들은 하느님의 목적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은혜의 완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켰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다. 바로 첫날 삼천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개종하였고, 다른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2:41; 4:4 을 읽어 보라).

변화(變化)

복음을 수락(受諾)한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들은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확신으로 뜨거워졌으며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하나의 중대한 경험으로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지역(地域)에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는 개척자로서 예수의 사명(使命)과 사역(使役)에 동참하기로 생각하였다.

이 놀라운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특히 유대 나라 당국(當局)과 로마의 핍박이 있음에도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전심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사도들은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전파하였으나, 신자들은 거짓 종교와 깊이 빠진 미신(迷信)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진리가 거짓 복음에 승리할 때에 큰 격려를 받았다.

The Church grew as men and women were called out of all nations into one family in Christ, regardless of origin. They were to be as one people having one God, one Saviour, and one Salvation.

The disciples were provided with immediate proof of the signs that Jesus had said would be manifested through them as they carried out the great work to which they were being directed. Instantly, they would be filled with confidence in all aspects of that promise. Doubts and fears could be cast aside. The gift of the Spirit meant an influx of joy and power to the disciples, which enabled them to witness in different languages, to heal those in need, and to endure hostility and stress. This witness, motivated by the power of God, was remarkable.

Peter's speech at Pentecost emphasised God's plan of salvation based on: the life and teaching; death and Resurrection; and the continuing life of Jesus. The disciples now understood better the Divine purpose, and they convinced others of the outworking of the grace of God. Peter's preaching caused a large number of the Jews present in Jerusalem to believe in Christ and be baptised. Three thousand Jews were converted to Christ on the very first day, and shortly afterwards, many others were baptised. (See Acts 2:41; 4:4).

Transformation

The acceptance of the Gospel had a powerful effect on these men and women. They were burning with the conviction that Jesus was the Saviour of the world, and their association with Christ was a tremendous experience - it transformed their lives. Through Jesus Christ, the believers became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living God, and they felt that they were sharing in Jesus' mission and ministry as pioneers of a new order: heralds of the Kingdom of God.

What was the reason for this wonderful transformation, especially when persecution came from both the Jewish authorities and the Roman State? Surely it wa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he wholehearted acceptance of the power and teachings of Jesus Christ and of His Resurrection. The Apostles preached Jesus as the Saviour of the World, but the believers had to face the challenge of false religions and deeply held superstitions. They were encouraged when truth triumphed over falsehood.

성전(聖殿)에서

사도행전 기록에서 그 제자들이 성전에 몇 번 모였다는 누가의 진술(陳述)에서, 그 성전은 아마 성전의 바깥 뜰이었을 것이다(사도행전.3:11,1 을 보라). 그곳은 복음 전파에 편리하였던 곳으로,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이 모이므로 공개적 공포(公布)와 잇달아 일어나는 토론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예수와 그 열 두 사도가 제사장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물적 증거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그들의 성전에 대한 애착은 의미심장(意味深長)한 바가 있다. 그곳은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을 위한 중심 장소였다.

사도들은 예수를 성전의 주라고 생각하고 그가 세상에 돌아와서 성전을 바르게 관리하고 그의 백성을 의로 통치할 그 때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교 초기에 신자들은 하나의 유대인 종파(宗派)로 여겨졌으며 오직 유대인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강조하였다.

모든 물건의 공동(共同) 사용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 열 두 사도들이 (가룟인 유다 대신에 맛디아를 포함) 새로운 에클레시아의 인도자들로 임명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교제를 나누던 중심 인물들은 예수의 사역 동안 그를 따르던 갈릴리에서 온 무리였으나,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는지는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였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초기 개종자들이 도성 가운데 정착하여 거주하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신자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에게 공동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합동적이고 공개적인 믿음의 공개는 그 예배와 기사(奇事)들과 표적(表蹟)들의 행사와 그리고 복음 전도(傳道)에서 잘 나타났다. 궁핍(窮乏)한 자를 돌보는 위대한 공동 의식성(共同 意識性)이 표현되었다(사도행전. 2:42-44 과 4:32-35 을 보라).

In the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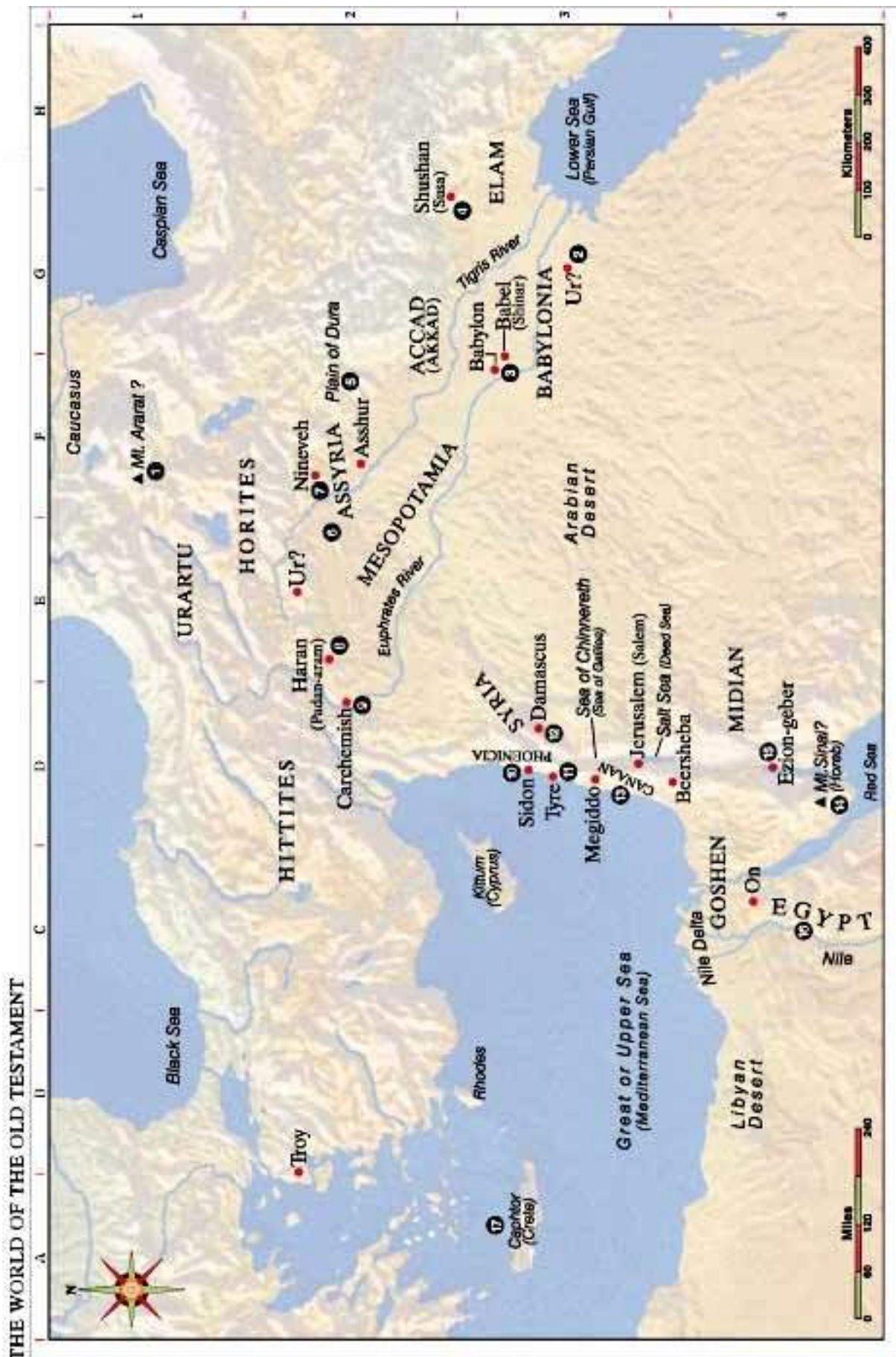
On several occasions the account by Luke in Acts records that the disciples assembled in the Temple, probably in the Outer Courts (See Acts 3:11-10). This was a convenient place for preaching, for many Jews gathered there in circumstances that favoured public proclamation and ensuing debat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substantial evidence that Jesus and the Twelve practised as priests, their attachment to the Temple is significant. It was the central place for the religious life of the Jews.

The Apostles regarded Jesus as Lord of the Temple and looked forward to the time when he would return to exercise righteous direction of the Temple and rule over his people. In the early days of Christianity the believers were regarded as a Jewish sect - the emphasis was on Jesus as the Jewish Messiah.

All Things Com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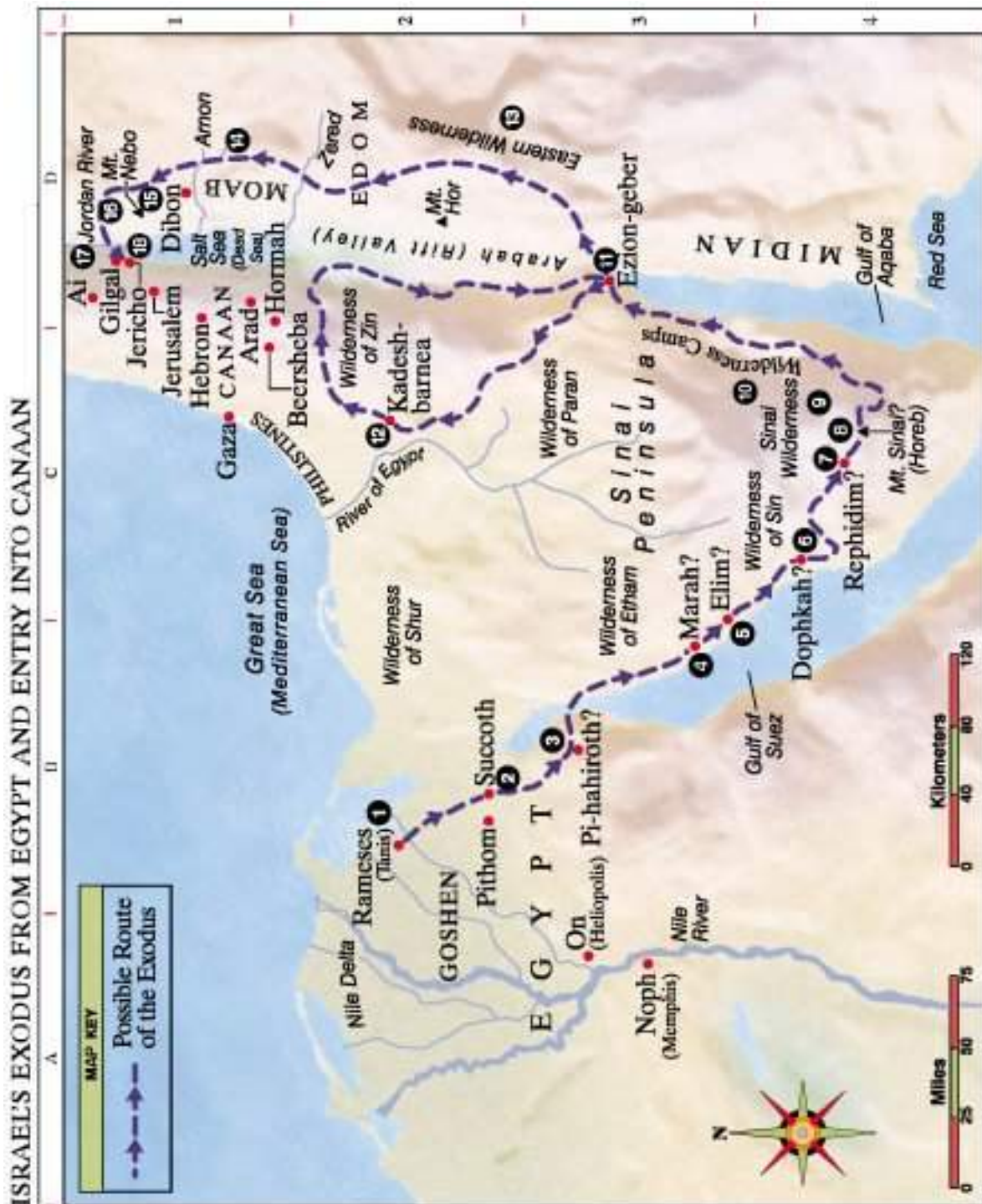
The twelve Apostles (Judas Iscariot was replaced by Matthias) were the divinely authorised leaders of the new Church. The nucleus of the fellowship of disciples in Jerusalem was the group of Galileans who had followed Jesus during his ministry, but there is no record of them ever visiting Galilee again. The references in Acts to common meals in homes in Jerusalem show that settled residents of the city were amongst the early converts.. The life of the believers was based on a common devotion and loyalty to Christ, and the central and public demonstration of the faith was to be seen in worship; the performance of wonders and signs; and in preaching. There was a great communal awareness expressed in caring for one another's needs (See Acts 2:42-47 4:32-35).

Appendix 3 - Bible Ma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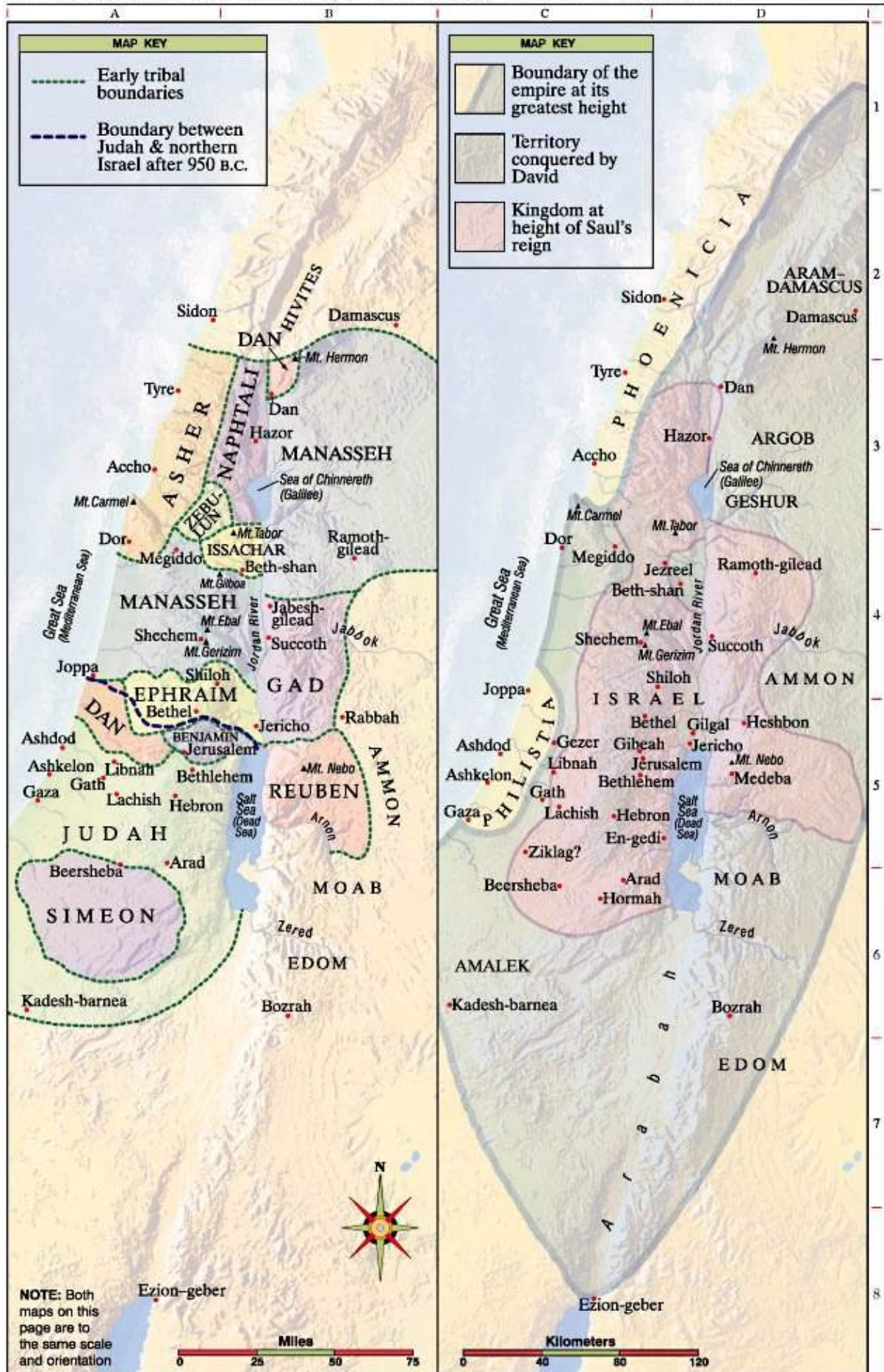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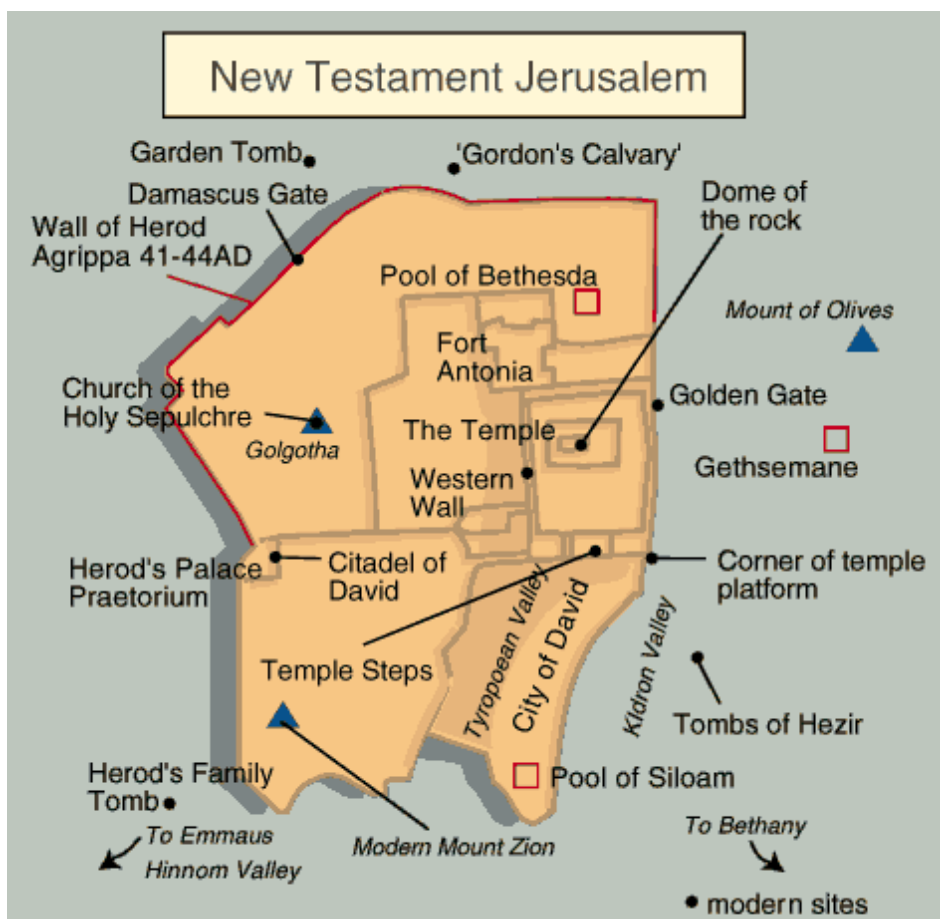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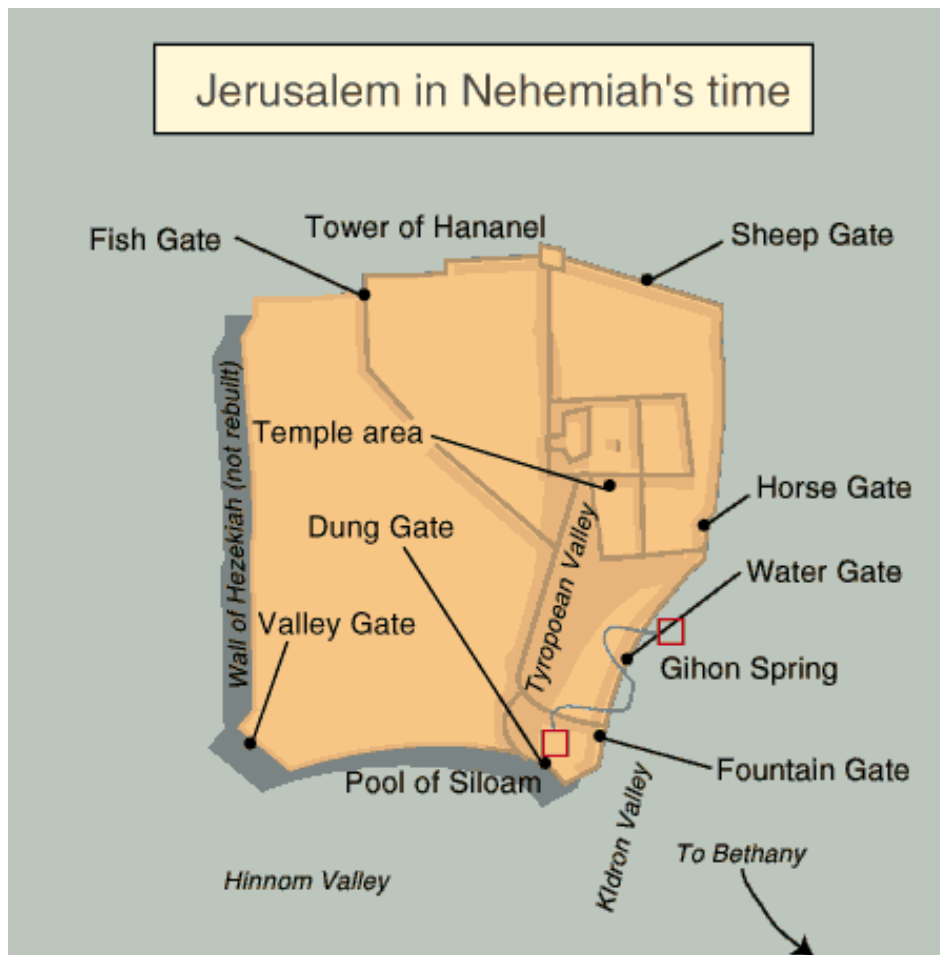
PHYSICAL MAP OF THE HOLY 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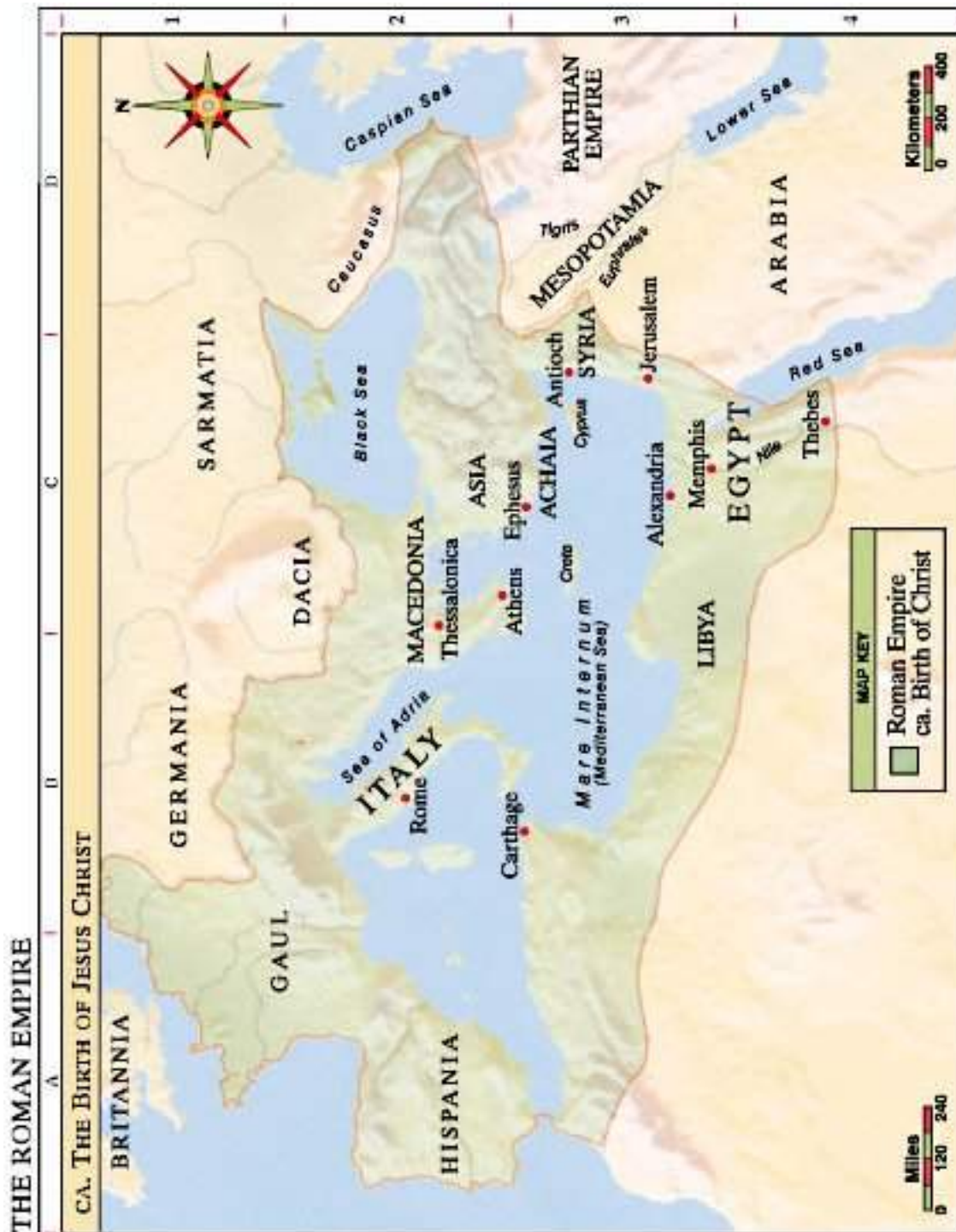
THE DIVISION OF THE 12 TRIBES; THE EMPIRE OF DAVID AND SOLO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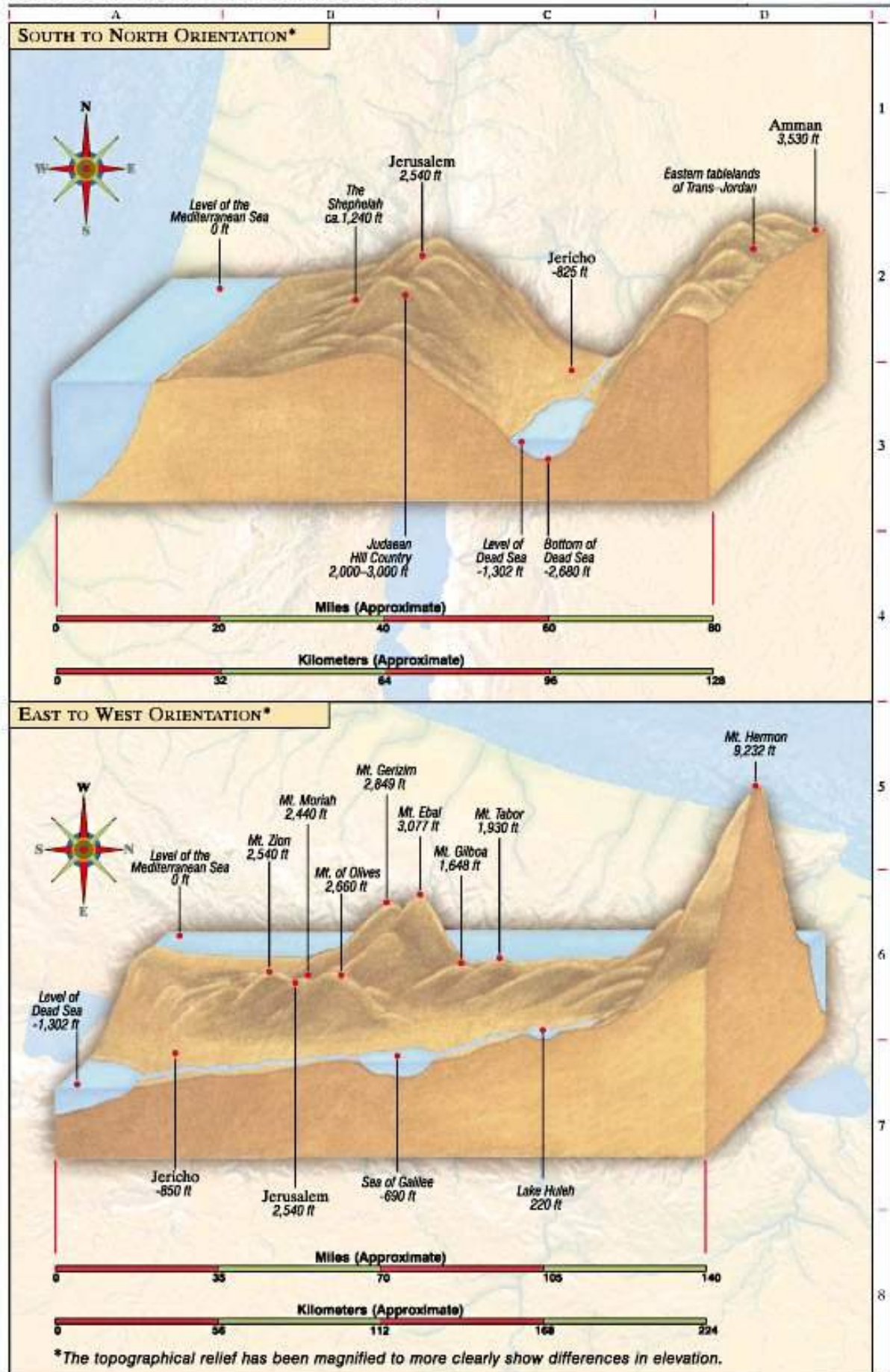


THE HOLY LAND IN NEW TESTAMENT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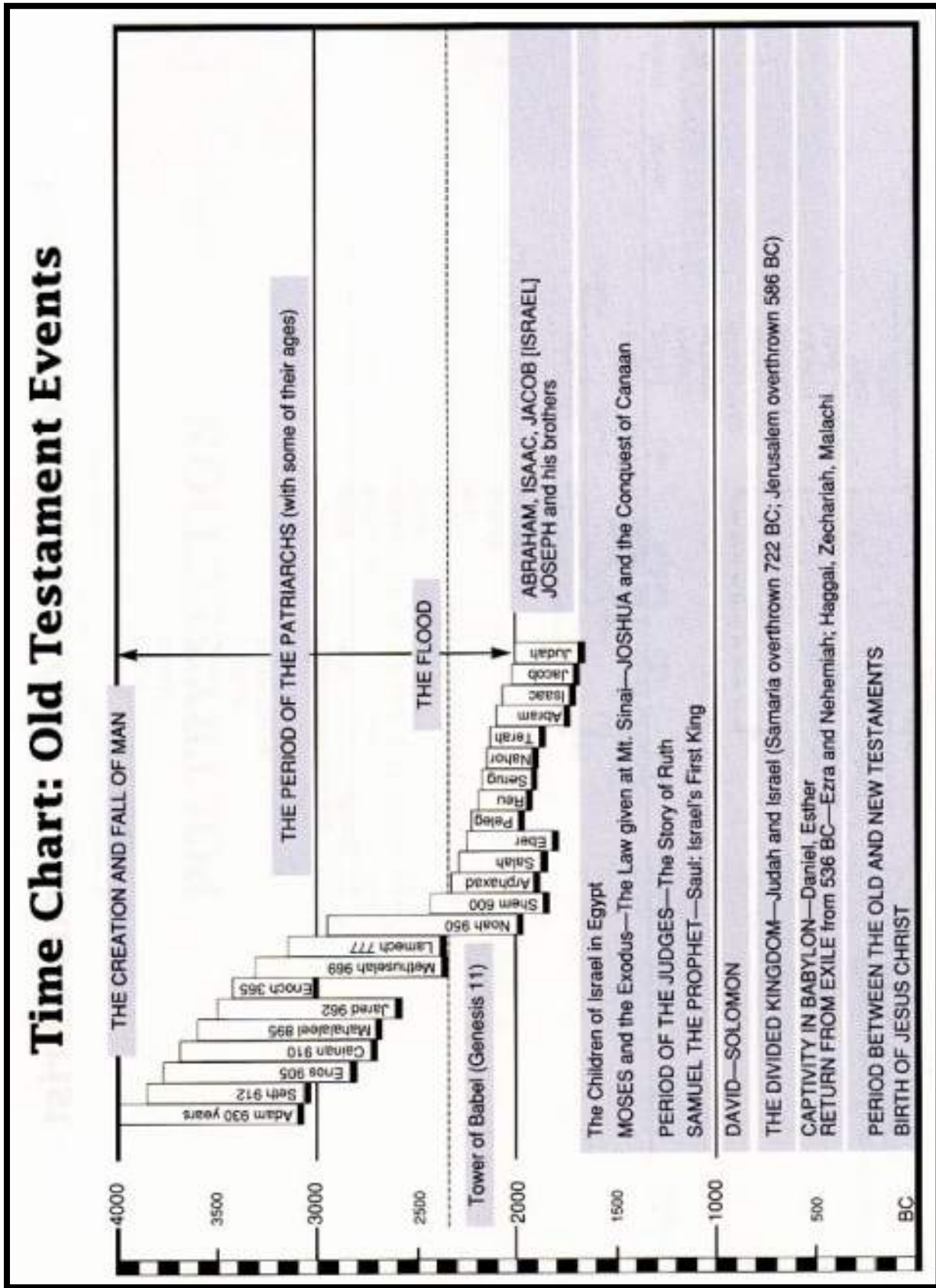




HOLY LAND ELEVATIONS IN BIBLE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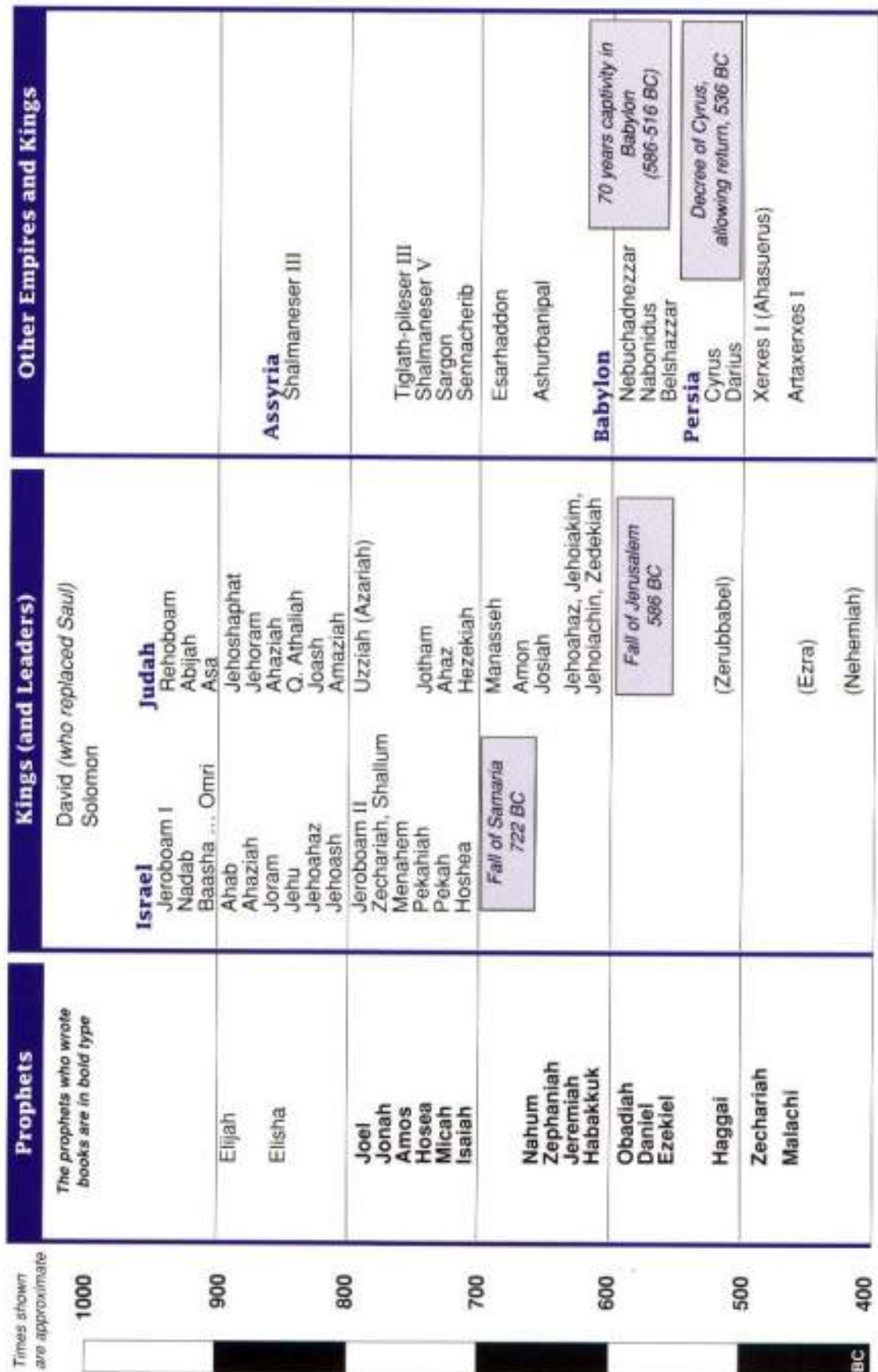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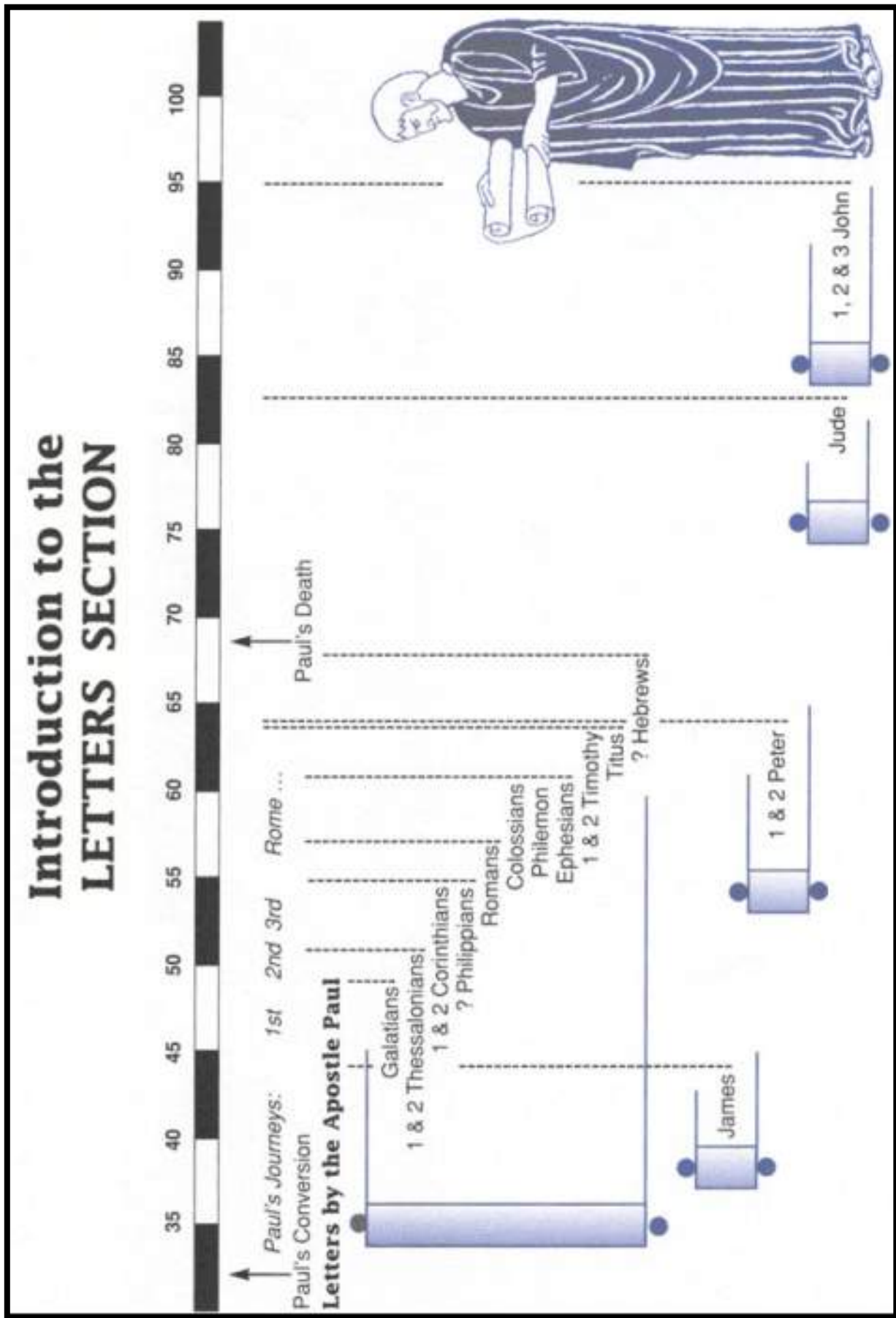
Appendix 4 - Time Charts



Charts 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hristadelphian Office

Time Chart of the Kings and Prophets





Appendix 5 - Bible Reading Plan

January	1	Genesis	1, 2	Psalms	1, 2	Matthew	1, 2
	2	...	3, 4	...	3, 5	...	3, 4
	3	...	5, 6	...	6, 8	...	5
	4	...	7, 8	...	9, 10	...	6
	5	...	9, 10	...	11, 13	...	7
	6	...	11, 12	...	14, 16	...	8
	7	...	13, 14	...	17	...	9
	8	...	15, 16	...	18	...	10
	9	...	17, 18	...	19, 21	...	11
	10	...	19	...	22	...	12
	11	...	20, 21	...	23, 25	...	13
	12	...	22, 23	...	26, 28	...	14
	13	...	24	...	29, 30	...	15
	14	...	25, 26	...	31	...	16
	15	...	27	...	32	...	17
	16	...	28, 29	...	33	...	18
	17	...	30	...	34	...	19
	18	...	31	...	35	...	20
	19	...	32, 33	...	36	...	21
	20	...	34, 35	...	37	...	22
	21	...	36	...	38	...	23
	22	...	37	...	39, 40	...	24
	23	...	38	...	41, 43	...	25
	24	...	39, 40	...	44	...	26
	25	...	41	...	45	...	27
	26	...	42, 43	...	46, 48	...	28
	27	...	44, 45	...	49	Romans	1, 2
	28	...	46, 47	...	50	...	3, 4
	29	...	48, 50	...	51, 52	...	5, 6
	30	Exodus	1, 2	...	53, 55	...	7, 8
	31	...	3, 4	...	56, 57	...	9
February	1	Exodus	5, 6	Psalms	58, 59	Romans	10, 11
	2	...	7, 8	...	60, 61	...	12
	3	...	9	...	62, 63	...	13, 14
	4	...	10	...	64, 65	...	15, 16
	5	...	11, 12	...	66, 67	Mark	1
	6	...	13, 14	...	68	...	2
	7	...	15	...	69	...	3
	8	...	16	...	70, 71	...	4
	9	...	17, 18	...	72	...	5
	10	...	19, 20	...	73	...	6
	11	...	21	...	74	...	7
	12	...	22	...	75, 76	...	8
	13	...	23	...	77	...	9
	14	...	24, 25	...	78	...	10
	15	...	26	...	79, 80	...	11
	16	...	27	...	81, 82	...	12
	17	...	28	...	83, 84	...	13
	18	...	29	...	85, 86	...	14
	19	...	30	...	87, 88	...	15, 16
	20	...	31, 32	...	89	1 Corinthians	1, 2
	21	...	33, 34	...	90, 91	...	3
	22	...	35	...	92, 93	...	4, 5
	23	...	36	...	94, 95	...	6
	24	...	37	...	96, 99	...	7
	25	...	38	...	100, 101	...	8, 9
	26	...	39, 40	...	102	...	10
	27	Leviticus	1, 2	...	103	...	11
	28	...	3, 4	...	104	...	12, 13
March	1	Leviticus	5, 6	Psalms	106	1 Corinthians	14
	2	...	7	...	106	...	15
	3	...	8	...	107	...	16
	4	...	9, 10	...	108, 109	2 Corinthians	1, 2
	5	...	11	...	110, 112	...	3, 4
	6	...	12, 13	...	113, 114	...	5, 7
	7	...	14	...	115, 116	...	8, 9
	8	...	15	...	117, 118	...	10, 11
	9	...	16	...	119, v. 40	...	12, 13
	10	...	17, 18	...	v. 41 - 80	Luke	1
	11	...	19	...	v. 81 - 128	...	2
	12	...	20	...	v. 129 - 176	...	3
	13	...	21	...	120, 124	...	4
	14	...	22	...	125, 127	...	5
	15	...	23	...	128, 130	...	6
	16	...	24	...	131, 134	...	7
	17	...	25	...	135, 136	...	8
	18	...	26	...	137, 139	...	9
	19	...	27	...	140, 142	...	10
	20	Numbers	1	...	143, 144	...	11
	21	...	2	...	145, 147	...	12
	22	...	3	...	148, 150	...	13, 14
	23	...	4	Proverbs	1	...	15
	24	...	5	...	2	...	16
	25	...	6	...	3	...	17
	26	...	7	...	4	...	18
	27	...	8, 9	...	5	...	19
	28	...	10	...	6	...	20
	29	...	11	...	7	...	21
	30	...	12, 13	...	8, 9	...	22
	31	...	14	...	10	...	23
April	1	Numbers	15	Proverbs	11	Luke	24
	2	...	16	...	12	Galatians	1, 2
	3	...	17, 18	...	13	...	3, 4
	4	...	19	...	14	...	5, 6
	5	...	20, 21	...	15	Ephesians	1, 2
	6	...	22, 23	...	16	...	3, 4
	7	...	24, 25	...	17	...	5, 6
	8	...	26	...	18	Philippians	1, 2
	9	...	27	...	19	...	3, 4
	10	...	28	...	20	John	1
	11	...	29, 30	...	21	...	2, 3
	12	...	31	...	22	...	4
	13	...	32	...	23	...	5
	14	...	33	...	24	...	6
	15	...	34	...	25	...	7
	16	...	35	...	26	...	8
	17	...	36	...	27	...	9, 10
	18	Deuteronomy	1	...	28	...	11
	19	...	2	...	29	...	12
	20	...	3	...	30	...	13, 14
	21	...	4	...	31	...	15, 16
	22	...	5	Ecclesiastes	1	...	17, 18
	23	...	6, 7	...	2	...	19
	24	...	8, 9	...	3	...	20, 21
	25	...	10, 11	...	4	Acts	1
	26	...	12	...	5	...	2
	27	...	13, 14	...	6	...	3, 4
	28	...	15	...	7	...	5, 6
	29	...	16	...	8	...	7
	30	...	17	...	9	...	8
May	1	Joshua	18	Isaiah	24	Hebrews	6, 7
	2	...	19	...	25	...	8, 9
	3	...	20, 21	...	26, 27	...	10
	4	...	22	...	28	...	11
	5	...	23, 24	...	29	...	12
	6	Judges	1	...	30	...	13
	7	...	2, 3	...	31	James	1
	8	...	4, 5	...	32	...	2
	9	...	6	...	33	...	3, 4
	10	...	7, 8	...	34	...	5
	11	...	9	...	35	1 Peter	1
	12	...	10, 11	...	36	...	2
	13	...	12, 13	...	37	...	3, 5
	14	...	14, 15	...	38	2 Peter	1, 2
	15	...	16	...	39	...	3
	16	...	17, 18	...	40	1 John	1, 2
	17	...	19	...	41	...	3, 4
	18	...	20	...	42	...	5
	19	...	21	...	43	2 John & 3 John	...
	20	Ruth	1, 2	...	44	Jude	...
	21	...	3, 4	...	45	Revelation	1, 2
	22	1 Samuel	1	...	46, 47	...	3, 4
	23	...	2	...	48	...	5, 6
	24	...	3	...	49	...	7, 9
	25	...	4	...	50	...	10, 11
	26	...	5, 6	...	51	...	12, 13
	27	...	7, 8	...	52	...	14
	28	...	9	...	53	...	15, 16
	29	...	10	...	54	...	17, 18
	30	...	11, 12	...	55	...	19, 20
June	1	Joshua	18	Isaiah	24	Hebrews	6, 7
	2	...	19	...	25	...	8, 9
	3	...	20, 21	...	26, 27	...	10
	4	...	22	...	28	...	11
	5	...	23, 24	...	29	...	12
	6	Judges	1	...	30	...	13
	7	...	2, 3	...	31	James	1
	8	...	4, 5	...	32	...	2
	9	...	6	...	33	...	3, 4
	10	...	7, 8	...	34	...	5
	11	...	9	...	35	1 Peter	1
	12	...	10, 11	...	36	...	2
	13	...	12, 13	...	37	...	3, 5
	14	...	14, 15	...	38	2 Peter	1, 2
	15	...	16	...	39	...	3
	16	...	17, 18	...	40	1 John	1, 2
	17	...	19	...	41	...	3, 4
	18	...	20	...	42	...	5
	19	...	21	...	43	2 John & 3 John	...
	20	Ruth	1, 2	...	44	Jude	...
	21	...	3, 4	...	45	Revelation	1, 2
	22	1 Samuel	1	...	46, 47	...	3, 4
	23	...	2	...	48	...	5, 6
	24	...	3	...	49	...	7, 9
	25	...	4	...	50	...	10, 11
	26	...	5, 6	...	51	...	12, 13
	27	...	7, 8	...	52	...	14
	28	...	9	...	53	...	15, 16
	29	...	10	...	54	...	17, 18
	30	...	11, 12	...	55	...	19, 20

July

1	1 Samuel	13	Isaiah	56, 57	Revelation	22
2	...	14	...	58	Matthew	1, 2
3	...	15	...	59	...	3, 4
4	...	16	...	60	...	5
5	...	17	...	61	...	6
6	...	18	...	62	...	7
7	...	19	...	63	...	8
8	...	20	...	64	...	9
9	...	21, 22	...	65	...	10
10	...	23	...	66	...	11
11	...	24	Jeremiah	1	...	12
12	...	25	...	2	...	13
13	...	26, 27	...	3	...	14
14	...	28	...	4	...	15
15	...	29, 30	...	5	...	16
16	...	31	...	6	...	17
17	2 Samuel	1	...	7	...	18
18	...	2	...	8	...	19
19	...	3	...	9	...	20
20	...	4, 5	...	10	...	21
21	...	6	...	11	...	22
22	...	7	...	12	...	23
23	...	8, 9	...	13	...	24
24	...	10	...	14	...	25
25	...	11	...	15	...	26
26	...	12	...	16	...	27
27	...	13	...	17	...	28
28	...	14	...	18	Romans	1, 2
29	...	15	...	19	...	3, 4
30	...	16	...	20	...	5, 6
31	...	17	...	21	...	7, 8

August

1	2 Samuel	18	Jeremiah	22	Romans	9
2	...	19	...	23	...	10, 11
3	...	20, 21	...	24	...	12
4	...	22	...	25	...	13, 14
5	...	23	...	26	...	15, 16
6	...	24	...	27	Mark	1
7	1 Kings	1	...	28	...	2
8	...	2	...	29	...	3
9	...	3	...	30	...	4
10	...	4, 5	...	31	...	5
11	...	6	...	32	...	6
12	...	7	...	33	...	7
13	...	8	...	34	...	8
14	...	9	...	35	...	9
15	...	10	...	36	...	10
16	...	11	...	37	...	11
17	...	12	...	38	...	12
18	...	13	...	39	...	13
19	...	14	...	40	...	14
20	...	15	...	41	...	15
21	...	16	...	42	...	16
22	...	17	...	43	1 Corinth.	1, 2
23	...	18	...	44	...	3
24	...	19	...	45, 46	...	4, 5
25	...	20	...	47	...	6
26	...	21	...	48	...	7
27	...	22	...	49	...	8, 9
28	2 Kings	1, 2	...	50	...	10
29	...	3	...	51	...	11
30	...	4	...	52	...	12, 13
31	...	5	Lamentations	1	...	14

September

1	2 Kings	6	Lamentations	2	1 Corinth.	15
2	...	7	...	3	...	16
3	...	8	...	4	2 Corinth.	1, 2
4	...	9	...	5	...	3, 4
5	...	10	Ezekiel	1	...	5, 7
6	...	11, 12	...	2	...	8, 9
7	...	13	...	3	...	10, 11
8	...	14	...	4	...	12, 13
9	...	15	...	5	Luke	1
10	...	16	...	6	...	2
11	...	17	...	7	...	3
12	...	18	...	8	...	4
13	...	19	...	9	...	5
14	...	20	...	10	...	6
15	...	21	...	11	...	7
16	...	22, 23	...	12	...	8
17	...	24, 25	...	13	...	9
18	1 Chronicles	1	...	14	...	10
19	...	2	...	15	...	11
20	...	3	...	16	...	12
21	...	4	...	17	...	13, 14
22	...	5	...	18	...	15
23	...	6	...	19	...	16
24	...	7	...	20	...	17
25	...	8	...	21	...	18
26	...	9	...	22	...	19
27	...	10	...	23	...	20
28	...	11	...	24	...	21
29	...	12	...	25	...	22
30	...	13, 14	...	26	...	23

October

1	1 Chronicles	15	Ezekiel	27	Luke	24
2	...	16	...	28	Galatians	1, 2
3	...	17	...	29	...	3, 4
4	...	18, 19	...	30	...	5, 6
5	...	20, 21	...	31	Ephesians	1, 2
6	...	22	...	32	...	3, 4
7	...	23	...	33	...	5, 6
8	...	24, 25	...	34	Philippians	1, 2
9	...	26	...	35	...	3, 4
10	...	27	...	36	John	1
11	...	28	...	37	...	2, 3
12	...	29	...	38	...	4
13	2 Chronicles	1, 2	...	39	...	5
14	...	3, 4	...	40	...	6
15	...	5, 6	...	41	...	7
16	...	7	...	42	...	8
17	...	8	...	43	...	9, 10
18	...	9	...	44	...	11
19	...	10, 11	...	45	...	12
20	...	12, 13	...	46	...	13, 14
21	...	14, 15	...	47	...	15, 16
22	...	16, 17	...	48	...	17, 18
23	...	18, 19	Daniel	1	...	19
24	...	20	...	2	...	20, 21
25	...	21, 22	...	3	Acts	1
26	...	23	...	4	...	2
27	...	24	...	5	...	3, 4
28	...	25	...	6	...	5, 6
29	...	26, 27	...	7	...	7
30	...	28	...	8	...	8
31	...	29	...	9	...	9

November

1	1 Chronicles	30	Daniel	10	Acts	10
2	...	31	...	11	...	11, 12
3	...	32	...	12	...	13
4	...	33	Hosea	1	...	14, 15
5	...	34	...	2	...	16, 17
6	...	35	...	3	...	18, 19
7	...	36	...	4	...	20
8	Ezra	1, 2	...	5	...	21, 22
9	...	3, 4	...	6	...	23, 24
10	...	5, 6	...	7	...	25, 26
11	...	7	...	8	...	27
12	...	8	...	9	...	28
13	...	9	...	10	Colossians	1
14	...	10	...	11	...	2
15	Nehemiah	1, 2	...	12	...	3, 4
16	...	3	...	13	1 Thessalo.	1, 2
17	...	4	...	14	...	3, 4
18	...	5, 6	Joel	1	...	5
19	...	7	...	2	2 Thessalo.	1, 2
20	...	8	...	3	...	2
21	...	9	Amos	1	1 Timothy	1, 3
22	...	10	...	2	...	4, 5
23	...	11	...	3	...	6
24	...	12	...	4	2 Timothy	1
25	...	13	...	5	...	2
26	Esther	1	...	6	...	3, 4
27	...	2	...	7	Titus	1, 3
28	...	3, 4	...	8	Philemon	...
29	...	5, 6	...	9	Hebrews	1, 2
30	...	7, 8	Obadiah	...	...	3, 5

December

1	Ezra	9, 10	Jonah	1	Hebrews	6, 7
2	Job	1, 2	...	2, 3	...	8, 9
3	...	3, 4	...	4	...	10
4	...	5	Micah	1	...	11
5	...	6, 7	...	2	...	12
6	...	8	...	3, 4	...	13
7	...	9	...	5	James	1
8	...	10	...	6	...	2
9	...	11	...	7	...	3, 4
10	...	12	Nahum	1, 2	...	5
11	...	13	...	3	1 Peter	1
12	...	14	Habakkuk	1	...	2
13	...	15	...	2	...	3, 5
14	...	16, 17	...	3	2 Peter	1, 2
15	...	18, 19	Zephaniah	1	...	3
16	...	20	...	2	1 John	1, 2
17	...	21	...	3	...	3, 4
18	...	22	Haggai	1, 2	...	5
19	...	23, 24	Zechariah	1	2 John & 3 John	...
20	...	25, 27	...	2, 3	Jude	...
21	...	28	...	4, 5	Revelation	1, 2
22	...	29, 30	...	6, 7	...	3, 4
23	...	31, 32	...	8	...	5, 6
24	...	33	...	9	...	7, 9
25	...	34	...	10	...	10, 11
26	...	35, 36	...	11	...	12, 13
27	...	37	...	12	...	14
28	...	38	...	13, 14	...	15, 16
29	...	39	Malachi	1	...	17, 18
30	...	40	...	2	...	19, 20
31	...	41, 42	...	3, 4	...	21, 22

설문 조사

1. 이 강좌의 자료들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2. 자세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이 강좌를 통해 스스로 성서를 읽을 수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3. 어떤 주제나 자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또는 이 강좌에 누락된 주제나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좀더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느꼈던 주제나 자료들이 있습니까?

5. 공부 시간 비중을 줄여도 된다고 느꼈던 주제나 자료가 있습니까?

6. 이 강좌의 체계와 해설 형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이 강좌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할 것이 있으십니까?

8.다음에 어떠한 성서주제에 대해 추가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감:

이 강좌에 관심이 있을만한 사람이 주변에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Questionnaire

1. Did you find the material in the course helpful?

2. Was enough detail provided? In other words, do you feel you are walking away with information you can apply to your own Bible reading?

3. Were there any topics or material covered which you did not enjoy or didn't think belonged in the course?

4. Were there any topics or material which should have had more time devoted to them?

5. Are there any topics or material which should have less time devoted to them?

6. Do you think the format and presentation style was appropriate for this course?

7. What are your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ourse?

8. What additional Bible topics would you like to see presented in the future?

OTHER COMMENTS:

Please list others who might be interested in attending this course:
